

50+마을기독지원단과 함께하는
금천사람들 인터뷰 기록집 Vol.1

CONTENTS

퍼내는 글 · 4

가산동

김명자 · 6
김종범 · 10
김종임 · 14
류은무 · 18
박영오 · 22
최석희 · 26

독산1동

강은향 · 32
김기황 · 36
김은주 · 40
박지영 · 46
서경철 · 52
소현자 · 56
유영선 · 62
이인식 · 66
이인영 · 70

독산2동

고경미 · 74
문세이 · 78
박미현 · 82
백재원 · 86
위성요 · 90
이근수 · 96
진미영 · 102

독산3동

김순식 · 108
박양희 · 112
안옥자 · 118
양재호 · 122
오애리 · 128

독산4동

강신환 · 132
김민정 · 136
박현주 · 140
신용란 · 146
조연주 · 150
최지수 · 156

시흥1동

김미선 · 160
박춘옥 · 164
이수영 · 170
이용곤 · 176
정순정 · 180
정은숙 · 184
탁경숙 · 190
황영이 · 194
나미정 · 198

시흥2동

공석완 · 204
김태희 · 208
박언경 · 212
이영대 · 216
전명숙 · 222
정태량 · 226
조정자 · 230

시흥3동

김명자 · 234
김민금 · 238
배정님 · 242
서희경 · 246
장제모 · 250
정성경 · 260

시흥4동

강영자 · 268
권영미 · 272
백기성 · 278
엄셋별 · 284
이정석 · 290
이주희 · 296
정미라 · 302
조영일 · 308

시흥5동

김성철 · 312
류경숙 · 316
박원희 · 320
설우중 · 324
시미선 · 328
양영신 · 332
이성호 · 336
임정숙 · 342
장인국 · 346

피내는 글

이 책은 함께 지은 책입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 운영을 고민하며 2019년 50+마을기록가 김금주, 신선순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였고, 금천마을지기 6기 26명이 교육과정 속에 마을활동가 인터뷰기록을 담았고 2020년 50+마을기록가 전선희, 정선화, 육연숙, 신선순 선생님과 요약정리한 금천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을지기 선배들, 마을공동체 위원회, 마을지원활동가로 시작하여 릴레이 추천으로 다양한 마을활동가들 인터뷰로 구성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인터뷰기록집 Vol.1 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Vol.2, Vol.3 주욱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이 더 따뜻하고 환해질 수 있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되도록 마을기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을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특별한 동네가 있는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시선이 우리가 사는 동네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금천 사람들 이야기를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oldmaeul.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객 정현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가산동
김명자

금천마을지기 2기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트리블 없이 완만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남의 말 잘 듣고 서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깐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하고 싶어요.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마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을활동을 시작한 거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세 아이를 금천구에서 키우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와 학원에 갈 때 함께 다닐 때가 많았는데 다니는 길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은 못하고 구청에 전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런 불편한 것들이 바로 시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 키울 때는 바빠서 시정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마을에 불편한 부분들에 자꾸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마을에 애착도 생기고 하다 보니깐 마을 일을 하나하나씩 하게 되고 이웃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여년 동안 마을활동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마을지기로 교육받으면서 우리 동네 돌아보기활동이 있었어요. 그때 활동을 하면서 ‘순이네 집’이라고 구로공단의 예전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에 가서 직접 보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던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일부러 잘 찾아가지 않는 곳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접 가보니까 참 신기하고 좋았어요.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는 어르신들 돌봄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요즘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장년층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 가서 말벗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말문도 안 열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자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도 받으시고 찾아가면 반가워해요. 만약에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계속 돌봄을 하고 싶어요.

또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하고 싶어요.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들로 인한 나의 변화라든지 내 주위에 변화가 어떻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마음을 열고 보니까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베풀고 돌보고 하다 보니깐 기쁨도 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해야 많은 일이 트러블 없이 완만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남의 말 잘 듣고 서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산동
김종범

금천마을지기 4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면
사실 인생 자체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렵다 생각 안하고
다른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어려움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위복이죠~
어려움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꺼지기 때문에
저는 더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직장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니 마을이 보이고 또 공동체라는걸 알게 되었어요. 류은무 전 의원님과 가산동에서 조기축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마을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마을지기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 마을지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지원활동가, 주민자치위원 등 연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절건모(절제로 건강을 지키는 모임)에서 안양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봉사하러 오는 학생들과 많이 접촉하게 돼요. 저는 봉사 나오는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만 떼우러 온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모아서 해 보니까 굉장히 적극성이 많고 봉사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 생각으로만 상대를 평가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몸소 경험해 보니까 그 친구들의 실제 마음이라든지 행동을 알게 됐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또 마을에 나와서는 봉사활동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하면 사실 인생 자체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안하고 또 다른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전화위복이죠. 어려움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꺼지기 때문에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제 의견도 전달하는게 참 좋거든요. 그런 게 좋다 보니까 마을활동 하는 게 즐거워요. 즐겁다 보니까 개인적인 걸 제쳐놓고라도 우선적으로 마을활동에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웃음)





가산동
김종임

금천마을지기 1기
마을지원활동가 2015~2019

전에 신문 기자분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표도 안 나는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서서히라도 변하는
우리는 달팽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변화는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어쨌든 체감하는 것을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회를 봐서 주변에 더 안내하고 체감할 수 있게 해보려고요.
내년에는 제 꿈은 그겁니다.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마을이란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에 교육 듣기로는 마을이란 게 주변에 있는 이웃을 만나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결혼하면서 이곳으로 왔는데, 낯선 곳에서 아이들 육아를 혼자 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보육정보센터에서 또래 엄마들을 만나서 자조모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자조 모임이 없어지고 함께 했던 엄마들과 마침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품앗이 모임 지원이 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모르는 사람들과도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막내가 태어나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교육받던 엄마가 부모커뮤니티사업을 해보자는 제의를 해서 하겠다고 한 게 본격적인 마을활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어찌다가 마을활동 5년차가 되었네요.

아이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시작하셨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요즘 애들은 혼자인 아이들도 많고 혼자 노는데 익숙해진 아이들도 많은데 어쨌든 다양하게 어울려 노는게 사회성 발달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디를 데려다 놓아도 어울려 노는 것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마을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현재 가산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네 주민이 올린 의제 같은 것을 진행하는데, 작년에 제가 올린 의제를 갖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니까 동네 엄마들이 참여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마을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같이 어울리면서 재밌어하는게 그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제 일이 더 늘어나서 고민이에요. 그래도 사람을 만난다는 것,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활동들을 볼 수 있고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 그런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거 같아요.(웃음)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마을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근거리엔 뭔가가 변화가 있는 게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가산동 쪽에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전에 신문 기자분이 '마을공동체사업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표도 안 나는데 왜 하냐고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서서히라도 변하는 달팽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변화는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는 것 같고,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요. 내년에 제 꿈은 그겁니다.



가산동
류은무

마을지원활동가 2016
주민자치회장 2019~현재

내가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마을 활동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끈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거미줄처럼
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을~
어릴 때 동네에서 놀았던 그런 생각도 떠오르게 되고
참 좋은 마을이 금천입니다.
그러므로 마을의 정책은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같이 참여하면서
나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누가 만드느지는 모르지만 괜찮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도 특별히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런 활동을 안 했으면 제가 인생이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간혹 하거든요. 자기가 하던 일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움직이다가 그 직을 다 내려놓게 되면 갈등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대부분 활동을 크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일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맘속으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고, 구의원직까지 끝나고 나니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때 다행히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모집이 있었어요. 그걸 신청해서 12명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됐지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를 좀 지탱시킨 거죠. 내가 한참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길 때 대학에서 배운 상담심리학이 나를 많이 잡아 주었고, 마을공동체 활동이 동네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길을 잡아줬었죠.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의 다 욕심을 접었죠. 이제 구의원으로써 갖고 있던 명예의식 이런 거는 다 낮춰졌어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내가 스스로 내린다고 엄청 다 낮춰놨더니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다는 생각에 조금 서운한 감이 생겨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활동을 좀 크게 하고 남 앞에 많이 나섰던 사람들은 교만이라는게 다 있다고 상담심리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중간중간 그런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입주할 때 나의 계획서는 뭘 냈냐면 여기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한 칠만 평 범위예요. 이 안에서 마을 이야기를 기록·관리하겠다. 숨어있는 이야기, 역사 또 업체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연구 조사 검토해서 책으로 발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놨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요. 여태까지 배운 것들 활용을 별로 안 했는데 이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예요.

목표하신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내가 꼭 남기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마을 활동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끈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일이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거미줄처럼 엮어줄 수 있

고, 마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연구해서 이웃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아파트 윗집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하나라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가산동
박영오

주민자치회장 2017~2018

지역에서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을 하지만
단체활동을 통한 마을활동 이야말로
바로 각박해진 도시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알게 되고 회원들을 서로 연결도 시켜주고
트러블이 생기면 화해도 시켜주고
주변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마을 활동이고
어떨 때는 좀 힘이 들지만
보람도 조금 느끼고 있어요
마을 활동의 원동력 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회원들 사이에도 점점 진파가 많이 되어서
마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지역에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좀 뭔가 해보려고 ‘절건모’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절건모는 절제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는 지역 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내 자신의 건강도 찾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냥 친목 모임은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입소문으로 200여명 회원이 되면서 금천에서만 하면 안 되겠다해서 규모를 전국화하려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웃 주민들과 공동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추진 중이신데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서울시와 협약하여 EM 생명살림 환경운동본부를 두고 사업을 하는데 EM 관련된 환경 교육과 강의, EM으로 흙 공 만들기, 안양천에 흙 공 던지기 등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르신 장례과와 협력하여 웰다잉, 웰라이프 강좌를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하고 있고, 주변에서 또 우리 건강을 찾는 일에 ‘파크골프’가 괜찮다 해서 파크골프를 창립했어요. 그걸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거 역시 일이 많아요, 또 중장년층에는 아주 인기야. 이게 지금 골프 치던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지역에 처음 봉사도 하지만 단체활동을 통한 이것이 바로 각박해진 도시 생활 속에서 서로 간에 알게 되고, 회원들 서로 간에 연결도 시켜주고, 화해도 시켜주고 주변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마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보람은 있어요.

마을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을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도시 생활에서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특히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내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 이 봉사 활동으로 보람과 기쁨도 누리고, 건강 찾고, 행복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팀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혼자서는 안되잖아요?

힘들어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요. 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활동을 통해서 나와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같은 회원들이 같은 보람을 느끼면서 동참을 자꾸 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변화고 ‘절건모’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2년 6개월 됐는데 체계가 좀 잡혔어요. 지금은 자원봉사자들도 자발적으로 오고 있어요. 자원봉사 나오는 애들은 스스로 하고자 해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몇 번씩 하다 보니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자꾸 알리고 또 우리 회원들도 점점 전파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순이네 집’이라고 그 유래를 잘 알아요. 73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땅을 밀어 공단을 만들었는데 시흥, 안산으로 공단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공동화가 돼버렸어요. 텅 빈 동굴 같은 형태를 몇 년 유지하다 IMF 때 중국교포, 동남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별집주택이 많이 없어졌어요, 구로공단의 변천사가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순이네 집’을 추천하고 싶어요.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의 생활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인터뷰 대상으로 추천하고 싶은 마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현대아울렛 20층에 가면 NS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봉제 회사인데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없고 전부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작하고 브랜드 또는 런던포그 등인데, 왜 인터뷰대상으로 추천을 하느냐면 구로공단이 생길 때 이 친구가 처음 들어 왔어요. 구로공단에 역사와 함께 한, 어쩌면 구로공단 가산동 때문에 먹고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로공단과 함께한 산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양복점 점원부터 시작해서 광명시장 2층에 봉제공장 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2, 3공단 입주를 하라고 할 때 들어와 끝까지 버티고 해서 지금은 대리점이 130개가 넘는다고 해요. 성함은 김기복님이요 경북 영양 출신입니다.



가산동
최석희

마을공동체위원회 2015~2017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거는 민간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달라요
행정은 아주 단기적이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시민사회라는 영향에 자율성과 독자성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어떻게 마련할까에 관심이 있구요
사실은 단체 하나하나 보면 몇 명 안 되고
힘들게 진행 되는 게 있거든요
서로 상생 융합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자기 꺼만 강조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놓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런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부족하더라도 밀어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지역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중심이고 그것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린이날 공동행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천교육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을 만들고 마을교육에 주로 관심이 있었어요. 이걸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죠. 도시농업 네트워크, 건강한 농부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단체들과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이란 걸 만들어서 가급적 금천구에 태양광 발전소를 학교 옥상에 짓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죠.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일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학이야...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금천구에 구로공단이 있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산업 단지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노동자와 기업이 있었는데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현장, 일터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민주화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에서 그런 마음으로 지역을 민주화하고 그 속에서 재밌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처음의 생각이었고, 지금은 아들이나 자식들이 우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없는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을인교육이라는 사단법인을 출범시킨 일, 우여곡절 끝에 마을인교육이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일, 독산고등학교에 50kw 태양광 발전소를 올렸을 때 이럴 때가 기억이 남네요.

마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독산동이나 가산동 골목에 가면 많은 봉제 회사들이 있어요. 현대직산업센터 외형으로 보면 글로벌 하고 현대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약 30프로는 봉제 회사들이에요. 예전에 구로공단 시절에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주로 했던, 섬유 의류회사가 많았거든요. 그것이 90년대 거치면서

그 업체들이 공단에서 지역으로 밀려온 업체들이에요. 섬유분야가 현재 금천구 산업경제에 20프로 정도는 차지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거기서 일하시는 미싱사 분들은 제 또래가 많거든요. 50대에서 60대로 향후 10년 이후에 그 봉제 산업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더 들고 그 분들이 그 노동을 이어가기 힘들 건데, 문제는 그 산업을 이어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박해요. 옛날 노동운동 할 때는 그나마 올랐을 텐데 이제는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도급제니 이런 걸 하면서 일당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이 받아야 하는데 예술이고 전문가들인데, 처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섬유산업에 대해서 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회에서 몇몇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잘 되는 거 같지 않고 봉제문화에 대해서 처우개선 하는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이탈리아 같은데 보면 비싼 가격에 수제를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고급 노동이고 4차 산업혁명이 되어도 사람들 계속 옷을 입을 거니까 미래지향적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쉽죠. 금천구 경제의 20프로인데 봉제문화센터라도 생겨서 그쪽 분야에 대해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추진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봉제문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구로구에서 분리된 게 95년도니까 도시로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금천구에 역사는 구로구에서 떨어져 나온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역사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구청이나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많이 아쉽고 동네에서 금천구 역사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고 옛날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추려서 구로구에서 분구할 때 나름 금천구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걸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표지석이라도 하나 만들어 뒤야 할 거 같아요. 지금은 그런 역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을활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금천구가 분구되기 이전부터 나름 해오던 활동이 있었고, 사실은 1995년도 분구 됐을 당시 지역에 오늘날 말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었어요. 가령 그때 살구여성회 정도가 있었구요. 80년대 작은 교회들이 노동조합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새터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게 단체를 넘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라는 진영에 어떤 영향이 예전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게 제 개인적 자부심으로 있고 분구될 때도 우리 동네는 단체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행정의 역할도 크지만, 서울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금천구가 빠지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자부심이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행정에 도움을 바라고 행정도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해요. 자율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달라요. 행정은 예산을 1년 그해에 다 사용하는 아주 단기적이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민사회 성장보다는 눈앞의 성과가 중심인데, 시민사회라는 영향에 자율성과 독자성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그걸 어떻게 마련할까에 관심이 있구요, 두 번째는 사실은 단체 하나하나 보면 몇 명 안되고 되게 힘들게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서로 상생 융합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자기것만 강조하지말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놓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부족하더라도 밀어주는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독산동
강은향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우리가 아이 하나를 키울 때는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키운다잖아요.
처음에는 학교 봉사시간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고,
저는 캠프장으로서
그 봉사자한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줬을 뿐인데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효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이런 말보다는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다 마을인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독산1동에서는 자원봉사캠프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며, 복지관 활동과 가족봉사단 운영을 하죠. 반딧불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독산1동에서는 한네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10개동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각 동마다 중간조직으로 거점캠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받고 상담가라는 직책을 받고 캠프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 홍보부터 모집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을 다하니 자원봉사센터캠프를 거점으로 중간자원봉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동 중 저는 독산1동 자원봉사캠프를 운영·지원하며 학생이나 가족봉사활동을 원하시는데 할 데가 없다하시면 캠프로 오셔서 상담을 해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캠프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가족봉사대 미용봉사, 재능나눔봉사, 청소년 자원봉사도 하고있고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호암복지관하고 연계활동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식을 했고, 수화센터와도 협약식을 통해서 활동을 했던 거고 지난번에 수화기초교육을 개설했었어요. 개인으로 활동하는 거는 가족봉사대하고, 키와니즈라는 국제단체에서 이사 활동도 하며 청소년 활동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것은 마을 안의 문제를 자원봉사와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까 해서 참여하고 있죠.

봉사활동이 선생님 삶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자원봉사가 생활 속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 출근을 하듯 캠프라는 곳은 거점이기 때문에 항상 상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월급을 받고 상주하는 직원들이고,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와 주민들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거라서 열정을 갖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곳이에요. 여기는 순수봉사자들이라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람이 있어 계속하고는 있죠.

봉사활동이 지역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봉사대로 책 배달 봉사를 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자유롭게 외출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도서관 책을 갖다 주는 활동인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오지 못해도 책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푸드마켓이라고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가져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본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물품을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푸드마켓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직원들이 차량으로 배달을 했어요.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이 금천구 10개동이에요. 각동마다 찾아가야 하는데 차량과 직원이 제대로 배정이 안되는거예요. 그때 청담복지관에서 지역에 봉사자들을 모집해 생필품 가족배달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봉사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은 가족봉사대가 40여 가족, 150명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봉사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천구 25개 가족봉사단이 생겼어요. 지금은 각 동마다 가족봉사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고민이 많던 어떤 친구가 자원봉사 시작하면서 정말 다른 청년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아이 엄마가 봉사하면 혹시 아이가 좀 변화가 될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이가 바뀐거예요. 어르신을 만나면 어르신은 늘 칭찬해 주시잖아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 학생은 학교에 가면 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니 칭찬 한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봉사단에 오면 믿어주고, 놀러 안 가고 어르신 만나러 가니까 정말 기특하다. 칭찬을 다른 가족한테 듣고 어르신이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아이가 감사함을 느끼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좋고 봉사시간을 받으려 한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가면 자기가 불안해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기다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화될 때 굉장히 고맙고 우리가 아이 하나를 키울 때는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키운다잖아요. 처음에는 학교 봉사시간 때문에 자원봉사 하러 왔고, 저는 캠프장으로서 그 봉사자한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줬을 뿐인데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효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보다는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다 마을인 것 같아요.



독산동
김기황

주민자치회장 2020~현재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제 생각에 봉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복과 덕을 짓는다고 생각해요. 봉사를 열심히 하시면
본인에게도 좋다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동네, 내 집앞 청소등
깨끗이 하면 어느 누가봐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우리동네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독산1동 4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제가 복숭아마을에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3억짜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가져 왔어요.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성초등학교 건너편 우리은행 옆쪽에 복숭아마을이 있어요.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은데 복숭아마을 재건축 추진을 하면서 마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현재하시고 있는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독산1동 주민자치회장으로 앞으로 마을사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재건축도 하고, 통장일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치분과 소속이 있었어요.

그동안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무엇인가요?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을 해서 자치위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 만족도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마을자치회는 분과별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독산1동에 '독일마을'이라고 있는데 취약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화단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 쓰레기도 안 버리고, 벽에 그림도 그리고 하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주민자치 회장으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 같아요. 꾸준히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나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나요?

마을에 필요한 일을 구석구석 찾아서 독산1동을 이사오고 싶은 동네, 깨끗한 동네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자신의 변화 또는 주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복숭아마을 대표를 지냈을때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의아해 하면서 말했어요. 왜 저런 걸 하나 할 일이 없어서 저런 걸 하는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복숭아마을은 서울시에서 주민공동위원시설에 33억정도 가져왔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복 받은 동네라고 생각해서 살기 좋은 마을, 깨끗한 마을, 이사 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제2대 회장으로 부대표님이 대표가 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마을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숭아마을이 잘되면 독산1동이 잘 되는 거고, 독산1동이 잘 되면 금천구가 잘 되는 거니까 아무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 봉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복과 덕을 짓는다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동네, 내 집 앞 청소를 깨끗이 하면 어느 누가와도 좋잖아요.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동네로 바뀌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산동
김은주

마을지원활동가 2015~2017

마을지원활동가로 교육을 담당 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을을 알지 못했을 때 관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활동 할수 있는 영역이
분명 없었을 거고
관심이 없었다면 알아가지 못했을 거고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거 같아요

그런데 관심을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니 더 하고 싶다 생각이 들고
더 활동하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에 이렇게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그러면
눈에 더 많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금천구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이기도 합니다.

활동가로 계시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처음 시작은 제가 학부모이다 보니깐 학부모와 관련된 아이들 교육이나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는 것들이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마을일을 시작한지가 2013년 후반부터니까 햇수로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6년의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것들이 학부모와 관련된 활동,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활동과 범위를 좀 넓혀 사단법인마을인교육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의 키워드는 ‘학부모’, ‘교육’, ‘아이들’ 이런 것 들입니다.

마을일을 확장해 가면서 나의 변화나 내 주위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천구로 2007년에 이사를 왔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독산1동 분소지역이라서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활동은 광명시가 더 가까운 약간 그런 경계성 지역이라서 마을에 대한 애착, 관심,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금천구에서 진행한 학부모 리더십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2013년 6월 말~ 7월 초여서 대학에서 종강을 하고 마무리 되는 때여서 약간 뭔가 다른 거를 찾아서 방학을 뜻깊게 보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여서 참석을 했었고, 그 교육에 함께 참석하였던 분들은 이미 금천구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천구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금천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금천구 역사·문화들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의 아이들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저의 애들은 금천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금천구에 별 애정을 갖지 않았었고 그냥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었는데, 제가 마을활동을 하면서 금천구에 대해 많이 알고 하니깐 애들도 관심을 갖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우리 애들이 많이 참여했고, 거기에서 오는 나름의 자부심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저지만 저의 아이들이 마을에 대한, 금천구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런 애정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해요.(웃음)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뭐 마을 일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런 거는 없지만, 앞으로도 금천구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르게 설명해 주고, 제가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사람들이 비슷한 공통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나누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다보니 본인이 좋은 싫든 거기에서는 자기 자치구를 이름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뭐~ ‘금천구에 김은주’ 입니다. 이런 식으로...(웃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금천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곳에 가도 분명한 제 소신을 밝히는 또 그런 성향이라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금천구에 김은주 선생님 이러면 ‘아~ 똑 부러지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니까 금천구 안의 다른 선생님들이 봤을 때 금천구에는 저런 선생님이 계시어서 좋다 내지는 긍정적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나름 작은 힘이지만, 힘을 보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요즘에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자치라든지 어필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함께 해 보고 격려도 하고 이런 일들이 금천구를 위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활동하지 않지만 제가 마을지원활동가였거든요. 3년 정도 2015년~2017년까지 활동했던 거 같아요.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을 할 때 제가 마을교육을 담당 했었어요. 제가 말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 나름의 컨셉 같아요. 그러다보니 마을지원활동가로서 마을교육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들이 ‘관심’ 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을을 알지 못했을 때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을 거고, 그냥 지나쳤을 거 같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니 더 하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

고요. 그래서 처음 마을을 잘 몰라서 어~ 이게 뭘까? 이런 것 들이 어떤 걸까? 약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발을 선뜻 내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좀 갖고 보면 그것들이 밑알이 돼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독산동
박지영

마을지원활동가 2015~2020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행복해지려고 해요”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들한테 뭔가 필요로 하는 거 도울 수 있어서
다시 즐겁고 다시 행복하고 있어요.

어쨌든 스스로 행복하다고
스스로 오늘 잘했지! 라고
저녁에 스스로 토닥여줄 수 있는 정도로
하루하루 마을에서 즐겁고 싶어요.

마을지원활동가, 교육청 활동 등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시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이가 하나예요.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동생을 만들어 줄 수 없고 언니도 만들어 줄 수 없어 아이한테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찾다 보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시작은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점점 하다보니까 애만 즐거울 게 아니라 저도 즐거워야 되니까 나도 즐거우며 좋겠다해서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찾아 다니게 된 거고 요만큼 배우니 조금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운더리가 그냥 공깃밥 하나가 나중에 대접되고, 대접이 샐러드볼이 되고, 그게 또 빨간 다라이가 되고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거 같아요.

마을활동에 대한 철학이 '행복'이라고 책자에서 접한 것 같은데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행복해지려고 해요”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마을지원활동가가 5년차인데,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앞에 3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하면서 욕심껏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하반기 때 갑자기 개인적으로 다른 할 일이 생겨서 잠시 빠져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었어요. 저는 작년만 그렇고 올해는 잘 할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길어져서 2019년 상반기에 그 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기 계시는 다른 마을지원활동가나 다른 모임 분들에게도 “6월까지만 집나간 걸로 해주면 재정비 잘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전에 발만 담구고 빠졌을 때는 좋긴 하나 뭔가 부족한, 즐겁긴 한데 뭔가 구멍 난 거 같은, 구멍 난 풍선처럼 바람이 살살 빠지고는 있지만 풍선 사이즈는 그대로 같아 보이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마음다짐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하고 다시 돌아가 보자 ‘앞에 3년 동안 했던 열정을 다시 느껴보자’ 해서 다시 돌아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거 도울 수 있어서 다시 즐겁고 행복해 지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나와 주변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저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하니까 좋아요. 제가 잠깐 발을 뺐었던 상황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었다면, 지금 와서 다시 하려고 사람들과 만나고 연락하고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이야기하며, 마치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맞이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즐거워요. 주변의 변화로는 그들이 저를 계속 걱정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직 신경 쓰고 있지 못한 내 아이를 그들이 같이 신경 써 주고 있는 것, 그런 게 감사하죠. 변화로는 일단은 몸에 와 닿는 변화가 제일 커요. 돌아왔을 때 내가 못 올 곳 온 거 아닌가, 그런 느낌보다는 집에 돌아온 거 같은 기분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제가 못할 거 같은 일을 끔뎌대면서 하느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시 왔을 때 너 지금까지 쉬었으니 니가 좀 더 해. 말 그대로 잡(job)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의 소(小)일거리다 보니 그냥 당연하게 내가 부족하면 그가 채워주고 그가 힘들다면 내가 할 수 있고 서로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특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갑자기 생긴 지병 때문에 동네 곳곳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쓰러졌을 때 저를 아는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었다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시흥 한복판에서 쓰러졌어요. 누군가 사람이 쓰러지면 응성응성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저를 아는 누군가 헤집고 들어와서 케어를 해주고, 내가 만약에 시청 한복판에서 쓰러졌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말 그대로 119에 신고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응급실까지 보호자로 따라 와주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금천구 안에서 제가 몇 번 쓰러졌을 때 금천구에서는 저를 발견하고 쓰러진 걸 처리했던 그 사람이 병원까지 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살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봉사나 누군가와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노는 거거든요. 노는 일을 하는 와중에 상대가 되게 즐거워 해주는 것들, 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독거노인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나중이라도 저를 기억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나요?

제가 마을지원활동가를 처음 시작할 땐 서당개 3년까지만이었어요. '3년 정도만 하면 풍월을 읊는다'라고 나도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많은 걸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누군가랑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나 어디가서 이력서라는 걸 작성할 때 경력란을 보면, 마을활동과 관련된 일을 5년이상하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3년을 끝내고 4년을 시작할 때 '그래 나 이거 5년까지는 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이제 5년차가 되잖아요. 2020년도 1월이 되면 마을지원활동가나 마을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 같아서 누가 알아주는 않지만 타이틀 하나는 내가 스스로 칭찬하며 달 수 있을 거 같아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고 그게 금천구 안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배울 때 모토가 '배워서 남 주자'거든요. 그래서 배워서 남 주는걸 계속 이어갈 거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공간에서든 일단 꾸준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이외에 특별히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을이해교육이나, 마을을 이야기 할 때 마을에 대한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저는 항상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생각하시는 마을은 무엇이냐고?' 마을을 이야기 할 때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첫 번째로 있는 게 지명이나 계획되어 있는 그 안에 바운더리를 말해요. 두 번째를 보면 형용사적인 의미로 '이웃에 놀러가는 의미'로 말해요. 저는 두 번째에 있는 거에 의미를 두고 이웃이라고 해서 꼭 옆집이나 앞집 뒷집 가까운 행정동 상의 옆 동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제 눈길이 가고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고 마음길이 닿으면 그곳이 마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 어느 한구석에 그냥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정보를 꼭 찍어 온다거나 제가 꼭 뭘가를 알려 주고 싶은데 가

서 특 던지는 오지랖을 떠다거나, 그런 식으로 즐거운 마음이라면 저는 그게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마을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같이 행복한 게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행복하다'고 '스스로 오늘 잘했지' 라고 저녁에 스스로 토닥여줄 수 있는 정도로 하루하루 마을에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독산동
서경철

주민자치회장 2017~2019

남들보다 많이 자면 늦어요.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왜 남들보다 돈을 못 벌지?
그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 보다 한발 짝 앞으로 더 진진한다면
힘들게 없어요.
못할게 없어요.
괜히 가만히 앉아서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보자! 부지런해 보자라고 다짐하며
서로 이해하며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반장으로 출발해서 새마을지도자, 통장으로 동네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을봉사가 된 것 같고 90년대 대의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달라졌으면 하는 것은?

2017년부터 전환한 주민자치회 2년 마무리이자 성숙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고 관 위주에서 주민 위주로 변화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주민자치회를 잘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뭘 해야 하는지 나부터 봉사해서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면서 나를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민자치회 자체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활동 하시면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힘들다는 것 보다는 몸에 배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빠지면 서운해요. 몸, 정신은 힘들지 모르지만 당연히 거쳐 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함, 제가 새벽4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바로 운동을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6시부터 텃밭에 물주고 주변정리를 하고 씻고 가게에 나갑니다. 오전에는 항상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회의와 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모임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집에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면 12시쯤 잠을 청합니다. 이런 생활을 평생 해 온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습니다.(웃음) 키는 작아도요. 남들보다 많이 자면 늦어요.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왜? 남들보다 돈을 못 벌지? 그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 보다 한발 짝 앞으로 더 전진한다면 힘들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괜히 가만히 앉아서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삽시다.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2년동안 하시면서 리더의 입장에서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있었는지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나면 배 아파한다고 하잖아요.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많지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날은 그냥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고 다음 날 만나면 그분도 저도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동네일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며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산동
소현자

동자치지원관 2018~2019
마을지원활동가 2016~2017, 2020

마을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마을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지금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초반에 2012년, 13년도에 이걸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그러면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
그걸 정말 정말 정말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희망돌봄이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게...필요해요
8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거다.
그 지나왔던 동안 함께 했던
주민들, 공동체, 희망 돌봄이, 희망지기들한테
정말 정말 고맙고, 고생했고, 정말 자랑스럽고,
같이 고생했던 이분들은 진짜 서울시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제 몫을 다 할 인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더 넓게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2012년 우연히 마을공동체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마을일을 하게 됐어요. 한 달에 겨우 몇 명 사용하는 헬스장을 사랑방으로 바꾸고, 거기서 아이들 돌봄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더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여성보육과에 공동육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2년도 9월부터 돌봄사업을 했어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멀쩡한 공간을 뜯어 고친다며 반대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반상회를 하고 의견을 모았어요. 바닥에 전기장판도 깔고 구립도서관 리모델링 하면서 안 쓰는 책장을 기증받아 서가를 꾸몄어요. 기증은 받았어도 책장 옮기는 게 문제였는데, 독산1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책꽂이를 여기까지 운반해 주셨어요. 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엄마들, 희망돌보미 17명과 그 가족들이 다 올린 거예요. 3천 권이 넘는 책을 다 옮기고 정리했어요.

희망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3~2014년 서울시와 구청지원사업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까지 하느라 사랑방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갔어요.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힘든지 모르고 일했던 거 같아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운영진이라고 기본 활동비도 없었어요. 예산이 많다 보니 서류작업 할 것도 많았어요. 애들 다 재우고 쓸데없는 일 한다고 시어머니 뭐라 하실까봐 어머니 주무시면 몰래 불 켜 놓고 새벽 2~3시까지 서류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런 활동을 기반으로 그 열정으로 동자치지원관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서 마을사업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잘 되든 못 되든 8년을 이어온 마을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2013~2014년 저희와 같이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남아있는 공동체가 두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점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사랑방이라는 거점이 있다는 것. 둘째는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17명이 모이는 희망돌보미 소통밴드가 있고, 입주민들과 수강생들이 함께하는 100명이 넘는 희망지기 소통밴드가 따로 있어요. 그 밴드 안에 뭘 올리면 금방 전달이 되니까 정보전달이 좋아요. 사업에 대한 결정, 사람 모으기, 실행이 바로바로 이어지죠. 요즘 엄마들은 SNS에 빠르니까요.

돌봄활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나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크고 예전과 같은 활동은 많이 없어졌어요. 새로 입주한 분들도 많다 보니 사랑방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아요. 사랑방이 공동육아 공간이란 개념이 많이 없어졌고요. '뭐 하는데 맨날 밤에 불 켜져 있어? 공영 관리비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괜히 제가 욕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 애정을 못 놓고 있죠.

대표가 저로 되어 있어요. 제가 동자치지원관을 하면서도 3개월에 한 번씩은 협의회를 했어요. 저녁에 9시나 9시 30분쯤에.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계속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세대교체를 해야죠. 주도적 누군가 나서주면 좋겠는데, 다들 그냥 '시키면 할게요. 시키는 거 하는데, 맡아서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한 발 걸쳐 있는 상황이죠.

마을활동을 하면서 자신이나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제일 많이 변한 건 저예요.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캠프도 하고 저도 사랑방만 오면 웃음이 나고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엄청 소심한 사람인데 이 일을 하면서 변죽도 좋아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많이 달라졌어요.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엔 반대했던 경로당 어르신들도 많이 변하셨어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욕을 먹어서 어르신들만 보이면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가 상도 받고 마스크에 알려지고 그러니까 동네가 이렇게 활기찬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웃음)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마을일을 하고 동자치지원관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밀접한데 지금 약간 분리된 것 같아요. 저는 주민자치를 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힘이 강해지면 주민자치도 저절로 잘 되리라 생각해요. 근데 마을공동체들이 서로 세 겨루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약간 뿔뿔이 흩어져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과 주민과 아직 신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면 좋겠어요. 제가 주민자치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행정의 산하기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틀 안에 지시하는 것들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다시 나가서 마을을 강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마을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거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마을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느슨한 소속감, 기본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대표, 임원 이런 걸 떠나서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의무감 같은 게 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예전에 우린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걸 다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8년째 마을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지나온 시간 함께 했던 주민들, 공동체, 희망돌보미, 희망지기들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고 모두가 자랑스러워요.

함께여서 고마운 마음 전해요.



독산동
유영선

금천마을지기 1기

저는 마을공동체가 참 좋거든요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냥 마을사업에 중점이 되기보다는
저는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민단체가
우리 금천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재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재능에 상관없이 그 학습에 재능 있는
3%의 아이들에 휩쓸려서
100%가 다 학습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고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재능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엄마들이 한마음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일 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3년도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게 됐어요. 같은 1학년 학부모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동네 아이들을 풀어보자 그랬는데 금천구 학부모 리더십 교육을 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어요. 40시간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받으면 재능기부도 40시간 해야 한대요. 어쨌든 저는 신청을 했어요.

당시 금천구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한 30명이 같이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학부모 리더십이니까 금천에 아이들도 같이 풀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켜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리더십 교육을 받은 이후 어떤 활동을 했나요?

교육을 받고 '함성소리'라는 학부모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2013년에 마을교사 시험도 있었어요. 금천구에서 심사도 보고, 2014년에 '함성소리' 공동체활동하면서 독산1동 금하마을 마을지원사업을 진행했어요. 월2회 정기 모임을 하며 지금까지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을활동을 하면서 자신이나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육아만 하면서 나만 도태된 것 같았는데, 동아리분들과 교육도 받고 활동하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정생활, 종교활동, 마을활동을 다양하게 하다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남편과 다툼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생끝에 성장이라는 것도 맛보았고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금천구 50+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50이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일해 보려고 해요. 저도 그 안에 포함되는 한 사람이고 금천구를 위해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공동체가 참 좋거든요. 공동체가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을사업의 중점이 되기보다는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민단체가 우리 금천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적인 문제가 사실 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재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재능에 상관없이 그 학습에 재능 있는 3%의 아이들에 휩쓸려서 100%가 다 학습 위주에 어떤 교육에 치우치고 이걸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부로 성공하는 3%의 아이들 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지닌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을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엄마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독산동
이인식

마을공동체위원회 2015~2017

주민에 대한 역할을 강조를 하는 협치(governance)는 주민에게 참여의 권한을 주면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데, 협치가 잘 이루어지면 지방의회제도를 많이 보완해 주어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마을주민들에게 봉사자의 마음으로 마을구성원들에게 배려와 격려에서 시작됩니다. 잘 사는 마을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 만족감과 마을문화, 교육 환경이 잘 유지되어야만 성장하고 좋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마을을 사랑하는 금천마을을 위해서는 마을의 단위 단위를 잘 엮어주는 이음매 역할이 꼭 필요하고 마을공동체에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천마을과 공동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학과와 행정학을 전공하고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관련 학과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마을일에 관심이 있어요. 독산1동 자원봉사캠프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한 20년쯤 되네요.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총회 회원입니다. 각 구에 2명 정도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십몇년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무도 하고 위원장도 하고, 서울시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도 조금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협치가 대두되었죠. 협치는 사실 주민에게 권한을 주면서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데, 그게 정립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 의회제도를 보완해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마을구성원들이 마을에서 역할을 할 때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마을도 더 잘살게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해요. 독산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했어요. 마을공동체센터는 마을을 단위 단위를 잘 엮어주는 이음매 역할을 해주어야겠지요.

지금까지 하신 자원봉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10년도 더 된 일인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 '가로수는 내 친구'라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주민이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가로수를 보호하는 활동이에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돌보는 사람을 정해, 그 나무를 관리하게 하는 거죠. 당시 사업비로 1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많은 분이 참여해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후배님들이 그 일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정말 보람이 있죠.

마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마을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50명 정도가 되고요. 통통나래단, 통장님들과 동북지협의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모두 합치면 마을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을에 관한 의견을 모을 때, 서로 좀 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모을 때, 총회 기간에만 모으는 것

보다 평소에 관심가지고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나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요. 책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대학원에서 지역사회복지론 강의를 오래 했어요. 강의교재가 있기도 하지만 마을에 대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고도 쓰고 패널로 참석도 하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옛날 생각은 뛰어넘어야겠지요. 지금까지는 남의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제 생각과 힘으로 봉사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활동이 주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을사업은 그 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그게 마을사업이죠. 제가 지금 독산동 우시장에 도시재생센터에 주민대표를 맡고 있어요. 몇 년간 상당히 활성화되어 실제적으로는 내년부터 변화가 많이 올 거 같아요.

그 사업을 하려고 주민들이 4년 전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에 주민대표로 가보면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엉켜있는 거 같아요. 회의에 참석하고 오면 편안해야 하는데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좀 더 마음을 열어주면 좋겠고 관에서도 사업에 대한 홍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마을사업이 더 잘 될 거라 봅니다.



독산동
이인영

금천마을지기 4기

변화한 거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활동하면서 돌아다니고 하다보니까
성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얼굴 표정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다보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먼저 열어야,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봐야
좋게 보이기 때문에.
봉사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을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을활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가 하자고 해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동네에 뭐가 있는지 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현장 스케치하고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해요. 금천문화원에 문화원 봉사단이 있어요.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보조로 참여해서 행사 진행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천구 자연보호협회, 우쿨렐레 봉사단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봉사활동들을 하면서 변화된 것들이 있나요?

제가 좀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활동하다 보니 성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표정도 좋아진 것 같고요.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봉사하며 사람들 만나다 보니 내가 마음을 먼저 열어야 상대방도 연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먼저 좋게 봐야 저를 좋게 받아들여 주고요. 먼저 마음을 열려고 하다 보니 옛날 같지는 않은 거 같아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 또는 목표가 있나요?

꿈이나 목표 같은 건 특별히 없어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그냥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쉬다가 봉사를 하게 됐어요. 시간적인 여유 있으니까 봉사를 하게 됐는데 전 지금 이대호가 좋은 거 같아요.

요즘 색소폰을 시작했어요. 접한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배우고 싶었던 악기예요.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배우는 게 재밌어요. 내가 즐거운 일도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연보호 활동을 할 때 보면 너무 많은 학생이 와요. 자연보호 활동을 하러 온 건지 봉사시간을 채우려고 온 건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적은 인원이어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독산2동
고경미

금천마을지기 1기

내 아이만 행복해서는 행복할 수 없고,
마을아이들도 함께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공동육아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보장 해 주고 지원해 줌으로써
엄마들과 아이들도 더불어 함께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내가 사는 우리마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참 기쁘고 바로 이런 변화들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살고 싶은 마을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가 4살때 아이만 키우고 있던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래 아이들과 숲에서 놀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무조건 검색을 하다가 ‘금천생태포럼’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금천에서 유명한 단체더라고요. 그곳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게 마을 활동의 시작이었어요. 2014년도에 금천마을지기와 부모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마을자원을 조사하다가 ‘자발이네 사랑방’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 또래가 비슷해서 공동육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2015년에는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팀을 합치면서 ‘자발이네 사랑방’ 대표를 2년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해 시작하게 되었어요. 활동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크게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점점 활동반경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을활동이 재미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하신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동육아를 하면서 마을과 연계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아이들과 마을지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현재의 마을지도’, ‘상상하는 마을지도’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른들은 뜨개질로 ‘1995년 마을지도’를 만들기도 하면서 마을 전체가 함께 어우러졌어요. 독산4동 주민센터에 전시도 했었는데 하면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또 2015년 초반에 ‘SBS생활경제’에서 우리동네 골목맛집인가 하는 코너에 딸과 같이 나와서 소개하는 방송을 찍게 되었어요.(웃음) 마을에 오래 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찍는 게 어떨까 했는데 제가 마을에서 다섯 살 때부터 살고 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부뚜막 청국장집’, 마을의 명소들, 추억이 담긴 골목, 가 볼 만한 곳들을 소개하는 방송이 15분이나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웃음)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네요. 이러한 활동들이 선생님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공동육아를 하면서 내 아이만 행복해서는

행복할 수 없고, 마을 아이들도 함께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배달도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할머니·할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자라는 게 뿌듯했고, 마을일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니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가고 이사 가기도 싫어졌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구에 꼭 있었으면 하는 것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활동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 공간이에요. 공동육아 할 때 어떤 분의 도움으로 주택 반지하에서 아이들과 활동했는데 주변 분들의 민원으로 그 공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도서관, 공원, 심지어는 각자 집들을 돌아다니며 모이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을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청소년 공간, 아이들의 공유공간, 뛰어놀 수 있는 마을공간들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마을에 있는 공간들의 문턱이 좀 낮아져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독산2동
문세이

금천마을지기 1기
마을지원활동가 2015~2017

마을일은 결혼과 비슷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뭐지
가야 할 방향을 모를 때도 있고,
되게 지칠 때도 있고,
사람이 좋아서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잠시 쉬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요.
마을은 내가 싫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향기 작은도서관에서 관장님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마을활동을 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을 안에서 도서관도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성장한 거예요. 마을을 알게 되고 마을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마을지기였지요. 제가 마을지기를 하면서 마을 안에서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성장이지요. 그러면서 마을지기를 끝내고 마을지원활동가, 그다음에 제가 봉사했었던 도서관 봉사자에서 지금은 운영자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을 찾고 제가 경험했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작은 안내자로 마을안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마을활동의 단계를 잘 거쳐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마을에서 잘 어울려 계속 가려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하는 생각을 '왜 저럴 수 밖에 없을까'라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 90% 이상은 '아~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있어요. 서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는 그런 여유보다는 앞만 보고 막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정이 없는 거예요. 늘 결과만을 주장하잖아요. 그 결과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성공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판단이 되다 보니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부딪치려고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물러나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역지사지의 마음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앞으로 마을활동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 또는 현재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마을에 오신 거, 관심을 가지신 거 그리고 입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선배로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시작하기까지는 좀 어려운데 시작을 하셨으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는 정말 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마을일은 결혼과 비슷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뭐지? 가야 할 방향을 모를 때도 있고, 사람이 좋아서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잠깐 쉬시면 돼요. 일을 하다보면 상처받을 일도 있겠지만 굳이 마음에 두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 자리에 계시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성장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날을 보시게 될 거예요.



독산2동
박미현

금천마을지기 3기

저는 단순한게 참 좋아요
마을지원센터에서 인터뷰하니 옛날 생각들이 나서 반갑고
마을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참 반갑고
인사하는게 좋으네요
저는 자연스런 단순함이 좋아요
갑자기 내리는 비도 좋고, 검은 먹구름도 좋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듯 단순한게 좋아요.

현재 하고 있는 마을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사서로 시흥5동에 있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금천마을교사(금마쌤)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도서관에 있는 책 가져다 읽어주고, 같이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또 독산4동 쪽에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캠프에서 아로마 마사지로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을 사서나 아이들 가르치는 건 아이들을 만나니까 기쁘고 마음에 애착이 가고, 어르신들 만나 손 마사지해드리면 손 내미시는 걸 대개 부끄러워하고 ‘내 손이 못생겼다’ ‘내 손이 투박한데 우리한테 기 빨려서 어떡하냐’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어쩌면 그렇게 순수하신지요. 그래서 그게 또 좋고 그런 거 보면 아이들 만났다 어른들 만났다 하는 것도 전부 만남이 있어서 좋아요.

아주 기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마을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시려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아버님이 병원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집에서 할 게 없었어요. 아이는 유치원생이라 아직 어리고 그래서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까 찾다가 지혜의 숲이라고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도 따고 점점 배움의 길로 들어가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배우고, 마을사서 일도 하게 되고, 금마쌤이란 것도 시험 봐서 또 하게 되었죠.(웃음)

마을에서 배움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셨네요. 그럼 마을 활동을 하시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을지기를 할 때 독산2동을 제가 담당했는데, 저는 독산2동에 살면서도 제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마을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활동하는 중에 각 동 사진 찍고, 동네 개선점 이런 걸 찾는 게 있었어요. 내가 무심코 애들과 함께 다니던 길에 도로가 움푹 파여 있어서 누가 다리를 접지르고, 발목 다치고 이러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개선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미처 못하던 부분을 내가 대신해주고 이럴 때 공지를 좀 가졌지요. 또 엄마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다니지 않고 ‘엄마 저기 뭐가 이상해, 저기 쓰레기들 너무 많이 놓고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골목에 관심을 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산2동, 독산4동 쪽 쓰레기 많이 놓고 가는 곳에 화분들 갖다 놓고 그런 걸 했었던 거예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되니까 좋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왔다 갔다 그냥 잠만 자는 동네가 아니라 같이 생활하고 숨 쉬는 우리 동네가 되더라고요.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는 데 공지를 가지고 참여하셨네요. 그럼 선생님에게 마을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마을은 새벽? 어두운 거 같으면서도 밝고 약간 양면성이 있는 좋은 거 같으면서도 부족한 거 같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을은 새벽 같아요.



독산2동
백재원

금천마을지기 5기

마을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서로 의견이 다양하고 안 맞다 보니까
약간 서로 서운한 것도 있고,
약간 투덜거리는 것이 있었고,
엄마들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다 보니
편한 것도 있어서 의견을 서로 배려하지 않고
막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상처 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부터는 조율을 하고
그 사람의 말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의견도 좋아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서로 합쳐져서
더 좋은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경험과 교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면서 서로 대화로 풀어가고 배려하고
그런 게 제게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마을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은 ‘아이리브룩’이고요, 이게 시초가 돼서 독산2동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게 됐고, 독산4동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이리브룩’이 가장 의미가 있고, 현재도 그것을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아이리브룩’은 5년 전쯤 아이들이 6살 7살 정도인 엄마들이 도서관에 모여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다 보니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것 말고도 애들을 데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음식을 편식하는 게 떠올라 음식을 주제로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를 해보자 해서 몇몇 마음이 맞는 엄마들이 독산4동 마을활력소 ‘너나들방’ 장소를 빌려서 활동 한 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4-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리에 흥미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요리의 한계가 있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아이들에게 맞게끔 과학 수업도 했다가 지금은 놀이 역사 수업을 하자 해서 재능 있으신 엄마가 역사 선생님을 하시고, ‘엄마들과 함께 하는 역사 수업’ 등으로 아이들 성장에 맞추어 엄마들도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하고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활동을 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서로 의견이 다양하고 안 맞다 보니까 약간 서로 서운한 것도 있고, 저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해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들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다 보니 편한 것도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배려하지 않고 막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상처 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부터는 조율을 하고 그 사람의 말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의견도 좋아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서로 합쳐져서 더 좋은 생각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지고 하니까 여기서 수업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최대로 많을 때는 아이가 30명까지도 와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활동하면서 경험과 교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면서 서로 대화로 풀어가고 배려하고 그런 게 제게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면서 하셨네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니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네요.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일단 아이들이죠. 아이들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거고 현재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주민자치회 회의든지 어디든지 아이를 항상 데리고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없으면 저는 이걸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저의 원동력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엄마들의 원동력은 아이들이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본인 또는 주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만 키우고 집에만 있었을 때는 정말 저밖에 몰랐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주민들이 다 좋으신 분 같이 보이고, 자치회를 한 2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사는지까지 이제 다 알아요. 이런 활동을 안 했을 때 같았으면 저한테 조금 누가 서운한 말을 하면 기분 나빠서 막 따지던지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고 여기 마을주민들이 다 아는 분들이니까 행동도 조심해야 겠다.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긍정적으로 변해서 좋은 거 같아요.



독산2동
위성요

금천마을지기 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2017~현재

제 변화는 내가 참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똑 부러지게 말했던 것들을
지금은 유하게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 다름에 대해서
그저를 막 이야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도 있고
또 저의 생각은 이래요, 라고 하는
그걸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것
저는 다르면 이게 분명히 다른데
왜 이걸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다를 수도 있겠다
이게 조금은 성숙한 것 같아요.

마을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2013년 구청에서 진행한 ‘금천 마을리더 아카데미 1기’예요. 1기를 끝내고 나서 부터 자그마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으로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때부터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 전부터 사실은 마을에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마을의 공동체가 아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을리더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갔는데 배워가면서 우리도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모여서 사업도 내고 실행을 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건전하게 즐기면서 활동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마을활동을 시작했죠.

내가 즐겁지 않으면 퇴색이 되는 건 맞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는 것에 현재는 더 많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했지만, 이 사업을 딱 목표를 두고 여기 한번 해보자 라고 이런 퇴색된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2013년도에 마을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금천구에 활동하는 분들이 군데군데 요소에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느낀점이나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활동을 하면서 기대됐던 거는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고, 점점 더 갈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역량이 확장 되서 공동체가 좀 더 넓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바램이있어요. 잘 안되고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고, 기대하는 건 그거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기회로 삼아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는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이 쪽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향을 잘 살려내서 필요한 곳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마을에 대한 방향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현재 하시는 일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관이나 중간조직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발굴했으면 역량을 강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필드에서 뭘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줘야해요, 그래서 충분

하게 그 자리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으로 사례관리가 끝까지 가야돼요. 그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발굴해서 단기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제가 없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보내고 스스로들 자기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실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을은 사실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포괄적으로 마을은 한 사람 외에 두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건 마을이다. 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마을이다. 공동체다. 그럼 그 공동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들어가 줘야되는 게 그 역할이고 발굴도 중요하고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전의 필드를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하신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일단은 사춘기 부모들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소통 해 볼까. 하는 그것이 첫 사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하고 뭔가를 맞춰 볼까. 점점 아이들은 말문을 닫고 엄마들과 소통을 잘 안 하고 말을 안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하고 원활하게 풀어볼까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자부활’이라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활동이었어요. 그때 자녀들과 같이 난타를 배우면서 엄마가 좀 틀리면 집에 와서도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도 방송켜두고 ‘엄마 음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맞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대화가 생기고, 친근감 있고 친밀해지고 입을 열면서 자기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자연스럽게 지시어나 명령어가 아닌 대화 그야말로 대화라는 것들을 그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의 그 부모님들도 정말 요소요소에서 멋지게 활동들 하고 계세요. 사춘기 자녀들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인연들이 끝까지 가는 거고 그 때 배웠던 난타 선생님하고도 여태껏 같이 연락하면서 연계하게 되거나 재능기부 부탁드려요, 그러면 두말없이 오셔서 재능기부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상황이라 공동체는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대부분 시기 질투도 상당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거구요.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래서 갈등을 갈등으로 빚어질게 아니라, 우리 같이 뭔가를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자기만족이죠. 무엇을 하나 하고 나서의 자기만족이 없으면, 자기 흥이 없으면 못합니다.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나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안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나의 흥 인거예요. 나의 만족 그래서 여러 공동체들이 단기간에 사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동체 보다는 자기만족을 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도 본인들끼리의 견어서라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 라는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나와 내 주변의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제 변화는 해가 가면 갈수록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계 또 내가 참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똑 부러지게 말했던 것들을 지금은 유하게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 다름에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아 다를 수도 있겠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틀리다보다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성숙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해야 돼’ ‘남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야 해’ ‘희생을 해야 해’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생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두고 조건이라는게 달려요. 활동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건강한 소통을 하려면 내 의견도 충분히 왔다 갔다 잘 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원활하게 소통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올리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런 말을 하네 라고 이미지가 상할까봐 말을 안 하거나 참아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제는 주변 분들도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하는 일에 아무런 보수가 없어도, 나에게 얻어지는 게 없어도 주민들과 관계 형성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그게 행복해서 하는 거죠. 마을 활동 한다고 해서 돈을벌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을에 애정이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애정이 갖고 있는 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웃음)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교육도 하고, 금천구에서 하는 협치도 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후배 발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발굴된 후배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 역할 정도 하고 내 집 단속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 활동을 하다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 일이 굉장히 늘어요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을 정도로 느끼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내 가정 내 자녀도 좀 챙기고 어느 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좀 더 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산2동
이근수

주민자치회장 2017~현재

저도 뭐 정신없이 앞만 보며 일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세대 변화도 많고 흐름도 빠르지만
자기주의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려심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둘러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그것두 맘 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하니깐
여유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 할 수 있고
피부에 닿는 이웃 간에 정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을사업들을 해보고 싶어요.

마을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웃과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 도시생활에서 이웃과 소통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번에 기회가 되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봉사를 한 건 없지만 어찌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뽑아주셔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50+라고 하셨는데 이제 뒤 돌아 보니 후반기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일을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는 정말 복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그러니깐 빈둥빈둥 노는 것 보다 무슨 일이든 이 카페 일이라도 하니깐 너무 보람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장 활동이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바빠요. 짬짬이 또 뒷산에도 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웃음)

특히 독산2동에서 자주 가시는 곳이나 동네로 오시는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디나 뭐 개발을 하고 잘되어 있다는 데를 가보고 견학도 가서 보면 벽화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독산2동은 특별히 볼 것이 없는데 또 자세히 보면 또 볼 것이 많더라고요 '스토리가 많은 동네가 독산2동 이더라구요' 한 40년 가까이 살아온 저도 몰랐던 이야기가 마을지도 만들기로 탐방을 하다 보니 동네에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다니면서 보여주고 싶은 곳도 있어요. 저 밑에 도자기 공방이 있는데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깐 겉에서 보는것과 다르게 잘 해놓으셨구 또 여기는 산으로 가는 길, 골목과 골목길 등을 개발하고 찾아내고 하면 충분히 이야기가 많은 독산8경을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주가는 곳은 금천체육공원으로 운동하러 가고, 독산2동 주민센터에 매일 매일 가고 있어요.

마을활동으로 인한 나의 변화나 주변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 나름대로 변화라고 한다면 시야가 넓어졌고 또 여기 살면서 몰랐던 주민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 주민들의 살아가는 것에 관심 갖게 되었다는 것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관계하며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깐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라든가 이런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조율을 잘 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있죠. 저는 갈등이 생길 때는 무조건 상대의 얘기를 그분이 주장하는 거를 일단은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일단은 들어주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맞추어 천천히 해결하다 보니깐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거기서 부터 시작을 하는거지 내가 저 사람을 저 양반을 고치겠다 뭐 이런건 힘들어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저를 다 스리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걸 존중하면서 끌고 나가니깐 제가 회의를 2년 넘게 해오면서 그다지 충돌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웃음)

앞으로의 새로운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 회장을 맡아서 이끌어 나가면서 아쉬웠던게 뭐냐면 주민자치 그러니깐 이웃과 이웃이 어린이와 젊은이 어르신 간에 소통이라든가 이웃간에 소통 이런것을 분석 해 볼 때 지금 젊은 분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 했지만 젊은 분들이 마을일에 관심을 갖게 해서 앞으로 독산2동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분들이 너무나 바쁘고, 또 관심 있는 일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에서 하는 자체가 관심 밖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 했던거는 젊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갖게 하고 또 그 반면에 소외계층이라든가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것들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을 위해야 활동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도 보호해 줘야 되고 어르신들, 소외계층, 장애인 다양한 마을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릴수 있는 그런~그런~ 주민자치를 사실 끌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 가지고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어요

애초에는 구상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정말 친절해라

말씀을 해도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길 자주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회장을 맡다 보니깐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독산2동이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말하는거 보면은 못 사는 동네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냥 소통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배려하면은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그만 가게라도 조그만 김밥집이라도 제가 왜 회의 하면서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김밥도 사다 먹고 햄버거도 사다 먹으며 식사비도 줄이면서 주민자치에서 할일은 동네에서 소비하고 동네경제를 함께 살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마을 일의 새내기에게도 한 말씀해주세요)

저도 뭐 정신없이 앞만 보며 일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세대 변화도 많고 흐름도 그렇지만 개인주의로 너무나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려심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만나면 서로 인사해 가면서 자연스레 보여주며 커 나가는 아기들도 배우고 인성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역봉사를 하든 마을사업을 하든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골고루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특정인들 몇 사람만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것 보다 전체 주민이 그래도 무슨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서로 알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가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지금은 초보 단계라고는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니깐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전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자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들여다보고 해야지. 청소년들 문학 쪽으로도 가끔 영화도 보구 그런 꿈을 꿴었어요

사실 처음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 나오면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깐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무슨 효과를 생각했다면 다양한 분들이 젊은 분들도 소통이 되고 또 참여 의식도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또 자치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제 2년 임기가 다 돼 가요. 12월까지

끝나는데 앞으로는 차차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할 수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마을사업을 하고 싶어요.

정을 느낄수 있는 이웃 간에 따스한 분위기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산2동
진미영

금천마을지기 3기

제가 지금 도서관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더 많은 역량으로 내가 속한 도서관을
더 에너지 넘치게 바꿀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전반적인 공부를 해 보고 싶고
그걸 활용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고 싶어요
어~~여기 이용자 분들이 그러세요
목소리가 괜찮다고
그래서 성우 공부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면서
자꾸 자극이 되는 거죠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계획은 그런게 생길 때마다 노트에 적어서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요
얼굴은 안되니 라디오나 성우 그런 쪽으로
해보고 싶어요^^(웃음)

어떻게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 두 아이를 키우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심심해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방문 하였습니다. 아이의 친구 엄마를 보게 된 거죠. 거기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쿵 여기서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물어봤더니 ‘관장님~여기 봉사자 생겼어요’ 하면서 저를 확~잡으신거죠.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도서관 봉사를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도서관을 간 거였지만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도서관 엄마들과 함께 마을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행사 운영도 해보고 하면서 살아 있구나 이런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쪽 재능도 있구나 라는걸 느끼면서 점점 이제 마을을 자꾸 알아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지인의 추천으로 마을지기라는 것도 해보고 도서관 일도 계속 병행하면서 활동하다가 또 우연찮은 기회에 다른 도서관에서 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의도 받고 해서 마을로 나오게 된 거죠. 정말 우연찮은 기회가 자꾸 생겼던 것 같아요.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독산역 근처에 있는 책이든거리작은도서관이라고 공립작은도서관이에요. 원래 봉사는 사립도서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공립작은도서관을 사립 도서관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공립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오롯이 도서관 운영 전반적인 책 관리 여러가지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공무원은 아닌데 출근 시간은 도서관 오픈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니까 11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말에는 문을 닫아요. 왜냐면 이곳 특성상 직장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늦게 열어서 늦게 닫고 이게 지역 특징인거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쉬는 주말에는 저희는 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로 인한 나의 변화라든가 내 주변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에 대한 변화는 경력유보라고 하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과연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직장을 다니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너 참 일 잘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특정 시간이 되면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고 저도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변에 알게 되는 모든 지인분들이 제가 생각할때는 인생을 살면서 저에 대한 그게 큰 선물이라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기쁨’ 그리고 ‘삶에 숨 쉬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큰 변화였던 것 같고 제 주변은 엄마가 항상 집에만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나니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한테 풀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풀고 있었더라고요 (하하하) 근데 막상 제가 처음에 출근할 때는 아이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니깐 이상해요 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 엄마들은 자기를 데리러 오는데 왜 엄마는 안 데리러 와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했는데 지나고 나니 에너지를 다른 곳에도 쏟고 집에 와서 짜증을 덜 내니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깐 좋아해요. 작지만 제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것 같아요.

향후에 하고 싶으신 일이나 개인적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도서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서관 쪽 업무에 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큰 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도 내가 더 많은 역량으로 내가 속한 도서관을 더 에너지 넘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공부도 해보고 싶고 활용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싶고 또 제가 가진 역량을 더 펼쳐보고 여기 이용자분들이 그러세요. ‘목소리가 괜찮다’ 그래서 성우 공부도 좀 하고 싶다는 자극이 되는 거죠.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계획은 그런 게 생길 때 마다 노트에 적어서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요. 얼굴은 안되니 라디오나 성우 그런쪽으로 해보고 싶어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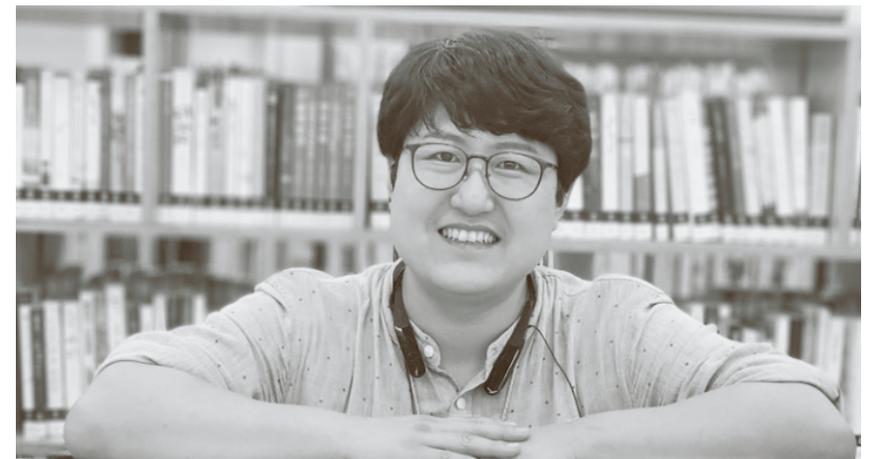
마을 안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중 인터뷰 대상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독산2동에 '노시영' 선생님도 묵묵히 하시는데 마을지기를 하시다 중단하셨지만, 그동안에 알음알음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을일은 애정이 없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열정만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죠. 근데 주변을 보면 열정으로 막 뛰어 들어서서 초반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신 분들은 중간에 지치셔서 중도 하차를 하는 분들을 여럿 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열정적으로 보이진 않을지언정 그런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오래도록 마을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 바쁘게 내 모든 것들을 마을일에 할애하지 않으시고 마을일은 몇 프로 나의 생활은 몇 프로 이렇게 잘 분배를 하셔서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오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마을활동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회의감이 들고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깐 저희 아이는 배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아이를 잘 키워 보고자 아이를 위해서 나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같이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할까 하면서 으싸으싸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정작 제 아이는 뒤로 빼놓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너 집에 가서 김밥 먹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왜 여기와서 이걸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엄마를 찾고 있는데 난 왜 여길 와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고민이 되면서 그만 뒤야 되나하는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런 슬럼프가 잠깐 있었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저희 아이가 마냥 어린 4세, 5세, 6세 이정도 였으면 아마 전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그 시기가 지나고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엄마에 대한 '엄마 갔다 오셔도 돼요' 이런 게 생겼으니깐 지금까지 쪽 이어질 수 있었지 만약 제가 나이 어린 자녀의 엄마였으면 아마 여기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비가 좀 있었어요. 내가 마을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시간을 내기도 좀 수월할 것이고 하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그냥 지쳐서 내가

막 다급해서 봐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씩 살기 좋은 마을이구나 이렇게 봐지지 않을까 싶어요.





독산3동
김순식

주민자치회장 2017~2019

전에는 주민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이 기쁩니다.
서서히 눈에 보이는 변화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독산3동이 살기 좋은 마을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산3동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독산3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모여서 대표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38명이 4개의 분과로 자치·교육분과, 마을·환경분과, 복지·다문화분과, 문화·체육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분과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동특성화사업과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 공익감시단활동과 모니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시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배심법정이고 독산3동 적십자활동도 하고 있어요.

독산3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재 시흥쪽에는 복지관이 여러 개 있고, 가산동에는 누리복지관이 있는데 독산 3동에는 복지관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관 건립을 했으면 해요. 독산권에는 복지관이 거의 없어서 주민들이 가깝게 못 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복지관 건립해서 어르신이나, 젊은이들 다양한 세대가 모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합니다.

요즘 자주 가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을의 모든 일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날의 행사, 모임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한바퀴하며 경로당도 가끔 갑니다.

우리 동네를 여행 하신다면 추천하고 싶은 곳? 독산3동만의 특별한곳있나요?

독산3동은 주거지역이라 특색 있는 곳 한군데 꼽으라 하면 서울시평생교육배움터 ‘모두의학교’ 를 추천합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변한 게 있다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을 통해서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이 기쁩니다. 서서히 눈에 보이는 가시

적인 효과가 있어서 독산3동이 조금씩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동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업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활동가분들이 중간에서 리드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역량있고 열심히 하는 주민들이 나와서 서로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하고 리더 역할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변화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산3동
박양희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복지가 어르신에게 편성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유아, 아동, 청소년 쪽에 고르게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생산 능력이 있어야만
이 사회도 움직여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잘 움직이고 성장해 나가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하거나 한다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든지는 오래됐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것도 오히려
일본보다 빠를 것이라 해요
활동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저는 일단은 인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이 아동과 청소년에
좀 더 중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밥집은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따뜻한 밥집’은 1997년에 시작했고, 저는 2007년도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을 때 부터 함께 해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밥집’은 시흥동에서 십년 가까이 하다가 독산3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흥동에는 어르신들에게 밥을 해주는 곳이 11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밥을 해드렸는데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수첩에 요일별로 기관을 메모해서 식사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독산동에서 밥집을 운영해보자고 살구여성회 김주숙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2009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독산3동으로 위치를 옮기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생긴다면 일주일에 몇 번, 어떤 형태로 제공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던 중 만났던 한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만하고 진행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호통을 치셨는데 저희는 조사를 끝내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마친 후에 주민센터에 무료급식이 꼭 필요한 40-50분의 명단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단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파지 좁는 분 어렵게 보이시는 분들께 ‘식사하러 오세요’하고 초대를 하셔서 10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오시는 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독산동의 처음 시작은 남문시장 근처였습니다. 거기서 아동센터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따뜻한 밥집에 오신 어르신들께 식사를 드리다보니 놀이터에서 밥 때도 놓친 채 놀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끝내시면 그 후에 아이들을 불러 밥을 먹이면서 ‘살구지역아동센터’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따뜻한 밥집’은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에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정말 놀랍습니다.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비용들은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으려고 마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던 ‘소망교회’와 ‘하늘교회’에 교수님과 함께 방문을 해서 저희 어르신

들 식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교회 모두에게 거절을 당했고 교수님께서 ‘보조금을 받지 않을 때도 했던 것을 보조금을 받으면서 못한다. 이걸 말이 안된다’ 말씀을 하셔서 닫으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없다가 지금 장소로 이전을 하면서 월세 부담까지 생겼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부담이 생기면서 3개월 버티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5년째 이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집’의 어르신들께 식사 한끼는 단순한 밥 한끼가 아닙니다.

메뉴 선정은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영양사를 둘 형편은 아니고 영양사가 짠 식단처럼 5대 영양소를 아주 짜임새 있게 짤 수가 없어서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해서 그곳 식단을 참고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잘 짜여진 식단이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고 있는데 정성들여 만든 육수를 기본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의 특별한 행사 있을 때 떡이나 잡채 등의 음식을 해 와서 따뜻한 밥집 어르신들께 드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봉사자 박성숙씨 아들 돌잔치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2007년에 돌잔치를 해서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단순하게 몇 가지 반찬을 나눈 것이 아니고 ‘따뜻한 밥집’에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를 하면서 어르신들 앞에서 다짐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3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권의 책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칭찬을 하루에 한 개씩 해주겠습니다.’ 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잘 지키고 있으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젊은 엄마가 참 멋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밥집’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과 목요일에 3일치의 식사를 포장해서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찬과 핫반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밥까지 포장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밥을 포장해 드리기 위해서 밥통을 한 개씩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분도 빠지지 않고 도시락을 준비해 오셔서 깜작 놀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프신 분 없이 식사를 챙겨 가셔서 감사합니다.

살구여성회 활동하시면서 보람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나요?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버티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겠어. 도와 달라고 할까봐’ 하고 말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웃음) 후원하던 분이 사정상 후원을 못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자리가 또 채워지고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 그분은 자신이 알려지면 그날로 후원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공개는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행복한 남자로 저장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따뜻한 밥집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따뜻한 밥집에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 중에 따뜻한 밥집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간혹 만원을 주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만원이 작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값진 후원의 하나입니다.

따뜻한 밥집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정에서 엄마이자 아내이자 세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법에 엄마는 밥을 꼭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한다고 하는 항목은 없으나 저는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늘 합니다.

‘따뜻한 밥집’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누군가 ‘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독산3동 안옥자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대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 멘토로
저희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들이 뿌듯해요.
어린 아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 하면서
청소년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된 그 아이들이
부메랑 같이 돌아와서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육아도 할 수 있고
엄마들 모임, 자조모임 이런 걸 가지면서
많은 이웃을 만나고
서로 아이들 육아하는 것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좋은 이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독산3동의 마을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잠깐 들렀다가 외부로
아이들 공부 시키러 가는 곳이 아니고
제가 35년을 살았듯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으니
이 마을을 아끼고 마을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지키면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을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독산3동에서 35년째 살고 있어요.

마을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 지인 소개로 새마을문고에서 봉사를 시작했었고 그 후 문화마을만들기 의회에서 간사로 활동했어요. 2012년 1월부터는 독산3동 청개구리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들이랑 함께 프로그램 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곳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8년동안 함께했던 주민 중 한 분이 명절과 스승의 날 이렇게 1년에 두 번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매번 잊지 않고 감동 있는 글을 보내주시고 스승으로까지 생각한다고 정말 감개무량 하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오면 친정같이 편해서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을활동을 통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를 많이 느껴요. 독산3동에는 고등학교 1개, 중학교가 2개가 있어요. 동의 특성상 타 지역 보다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많이 와요.

청개구리작은도서관에는 청소년 동아리가 6~7개 정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축제>를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UN모의 시연하면서 난민 문제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내용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고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고 감동 받았습시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로 도서관에서 봉사하던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고등학생 멘토로 저희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뿌듯해요.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면서 청소년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된 그 아이들이 부메랑이 되어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로 마을여행을 온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 이유는요?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시범마을에 독산3동이 선정되

어 주민과 행정, 연구진이 함께 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에 제가 간사로 일을 하면서 통학로 정비, 쌈지공원, 벽화 조성, 녹지를 조성해서 민등산 가꾸기,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했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을에는 문화마을협의회에서 곳곳에 물리적인 사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문화마을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어서 안내할 수 있으니 그곳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기슭 길을 자주 다니는데 혹시 그 길도 그때 조성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산기슭 길에 한쪽은 벽화 타일이 있고 한쪽은 아름다운 고서 전이라고 해서 액자가 걸려 있는데 원래는 아름다운 물건전이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물건전에 전시해 놓은 게 오래 돼서 2008년도에 보수 할 때 독산3동 문화마을만들기 협의회에서 회장님으로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 소장하고 계신 고서와 60년이 넘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런 여러 가지 고서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해 놓은 거예요.

힘들고 지친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 소개 해 주세요.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전안나 지음)>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하면서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도서관에서 책만 읽고도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엄마들의 자기 발전도 될 것 같아요. 육아에 지친 분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 와서 엄마들 자조모임을 하면서 많은 이웃을 만나고 또 아이들 육아 하는 것도 서로 같이 의논해 가면 좋은 이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독산3동의 마을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타 구로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많이 이사 가더라고요. 잠깐 들렀다가 외부로 아이들 공부시키러 가는 곳이 아니고 제가 35년을 살았듯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이 마을을 아끼고 마을에 대해 열정을 갖고 지키면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독산3동
양재호

주민자치회장 2020~현재

마을활동은 서로 거리두지 말고
니꺼 내꺼 따지기 전에 같이 협력해서
각자의 입장을 생각 해보며 활동하면 좋겠어요.

요즘은 여기 독산3동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주 이사다니며 살다 보니까 살기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네일에 함께 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동은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나 축제 등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나요?

2018년도에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회에 와서 활동을 같이 하자고해서 사실 그때는 이 주민자치회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또 뭘 하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주민자치회에 오면서 교육분과를 처음에 맡았었어요. 분과장으로 교육분과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동장님이나 제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13일 제가 이걸 끝나면서 2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활동을 못하게되고 여러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또 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제제가 있다 보니까 일을 추진도 못하고 해서 힘이 많이 드네요.

교육분과장으로 활동하실 때 기억에 남는 일이나 자랑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교육분과 일을 하면서 18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지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5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사업이라고 할까요. 길 거리에 의자라든가 또는 꽃 심는 미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옥상 같은데 빈 곳만 있으면 가서 꽃도 심고, 화단 만들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야채 같은 것도 내가 심어서 같이 주민들하고 동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오셔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하던 것이 마음에 좀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회 활동도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고계시나요?

주민자치회 월례회의를 대면회의로 못 하고 서면회의로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서류로 만들어 놓고 개개인 한 사람씩 와서 보고 서명하고 이렇게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마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때에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신 분이 이권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여기서 회의 끝나고 나면 식사하러 갈 수 있는 건지 자기 집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 또는 어떤 가게를 가지고 있으셔서 자기 물건이 유통되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런 이권 관계가 많이 개입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오면서 그런 것은 많이 배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주민자치회의에서 일단 모든 것을 움직이니까 그곳에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도 여기 주민자치회에 오는 분들도 가끔 그런 이권개입 때문에 오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라는게 뭘지 잘 몰라 저 역시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꼭 착용합시다'라는 스티커를 만들어 가게라든가 이런 곳에 다 붙여주고 조금 모자라서 오늘도 또 만들었어요.(웃음) 우리 이따가 같이 가서 붙여 주려고해요 그런 식으로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알게 되시죠.

그리고 또 길거리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산기슭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드레일 같은 것을 만들어 동네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필요에 의해 만들고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걸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체적인 걸 다 알고 호응하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반상회 같이 작은 골목 단위로 주민들을 모아서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빌라면 빌라 앞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려운 일이라던가 주민들이 합의한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반상회로 주민들이 제안한 논의안건을 주민총회 등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회장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게으르게 없어졌어요. 제가 80이 다 되다 보니까 여기서 운동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있다 보니 게을렀던 생활을 하다가 마을활동을 하다 보니 여기도 나오는 것도 여기지만 주민들 만나 이런 저런 얘기하고 요번에 그 동네에 냄새난다고 해서 찾아가서 수리도 해 주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서로 관계하며 돕고 돕는 사이로 활동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요망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장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주민자치회장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주민자치회 쪽에 재산관리라든가 모든 관리를 주민자치에서 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는 주민등록을 하는 일반행정하는 것으로 완전히 셋업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하더라도 다음 후배들에게 잘 얘기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잘 추진해서 셋업 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독산3동에 가지고 계신 기대같은 게 있으신가요?

다른동 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남문시장도 그렇고 저분들이 서로 이웃으로의 대화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저희도 같이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들은 이방인이고 여기 사람들이 텃새 한다고 얘기를 하고 말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직 문을 다 열어놓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회 분과원으로 초대했는데 지금은 잘 나오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만나는데 앞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그분들하고의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넓혀 같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어려웠거나 보람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허투루 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될 거 같구요. 보람된 일이라고 한다면 일부겠지만 같이 협조하면서 여러 가지 마을사업이라던가 같이 활동하면서 청소나, 재활용 등 주변환경 개선을 하며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반짝였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반짝였던 것은 직장생활인데요, 제가 1968년도부터 1989년도까지가 제 전성기였던 거 같아요.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요직에 있었거든요. 제가 중동까지 갔다 와서 현지법인 만들어서 결산도 하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웃음)

마지막으로 마을일을 하시는 분이라 던지 주변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서로 거리두지 말고 니꺼 내꺼 따지기 전에 같이 협력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잘 들어주고 한 번 할 수 있을지 생각했으면 좋겠고,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축제라던가 뭘 만들어서 같이 좀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산3동
오애리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2020~현재

누군가 새로운 활동가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너무 재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에 많은 일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며 함께해주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말도 듣게 되지만
보람되는 일들도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
역시 전하고 싶습니다.

마을일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학교 학부모 활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마을 활동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큰아이 친구 엄마가 활동하고 있던 금천학부모 모임을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 교육뿐 아니라 지역 아이들의 교육, 환경 등에 대해 두루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 대해 더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마을에 대해 더 큰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오해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더욱 집중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활동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해서 어려움이 생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 그래서인지 마을활동을 통해 만난 분들과 지금까지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긴 인연들의 시작을 생각해보니 그곳에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보니 항상 가족과 교회 생활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더 확장되어 마을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건강생태계 사업하면서 새로운 지역 주민을 만나 관계 맺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막내가 고등학생이어서 학부모 활동도 하고 지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학교 엄마들을 마을로 연계하려고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 지원사업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눔 봉사 활동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을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활동들을 공유하면서 참여하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활동하는 것 역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발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과 새롭게 합류한 분들이 잘 화합하여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 결정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택인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하다 보니, 놓치기 아쉬운 의견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다시 보고 반영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더불어 함께가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마을 활동 10년 중 건강생태계사업을 4년동안 쉬 없이 하다보니 이제는 한발 물러나 다시 돌아보는 시간 역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이고,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이 길의 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보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을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마을일을 해 오신 경험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려면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도 걸립니다. 누군가 새로운 활동가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너무 재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에 많은 일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며 함께해주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하다보면 내가 원치 않는 말도 듣게 되지만 보람되는 일들도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 역시 전하고 싶습니다. “내 돈 쓰고 내 시간 낭비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주민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돈 받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주변에서 낯선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너무 오래 아프지 말고 소신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빛나는 사람은 말을 해 주지 않아도 그 자체에서 빛이 납니다. 지금 당신처럼.



독산4동
강신환

주민자치회장 2017~현재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자리잡으려면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꼭 필요하고
마을활동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을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마을활동가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일을 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오래 살았어요. 통장 14년, 자원봉사캠프장 6년 정도 했어요. 통장 임기 끝나고 주민자치위원을 해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위원장을 마다하고 부위원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2013년 쯤 마을공동체가 생겼어요.

2015년 마을계획단으로 우리동이 시범동이었어요. 희망동이란 것을 신청해서 통장, 자치위원들 3일 동안 교육받고 쪽 마을 일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혈통은 사람도 있고, 짜증도 나고, 힘도 드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동네가 다른 곳 보다 잘했다는 만족감이 있죠. 더군다나 같이 해주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마을사업을 하죠.

마을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작은 일부터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의견도 많고 부딪치고 문제가 돼요. 처음에 뜻있는 동호회끼리 마음 맞는 학부모끼리 모여서 시작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일할 때 본인들도 무언가 느낄 수 있고 또 보는 사람들도 ‘어, 하나까 되네’ 하며 동참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을 점점 키워 사업을 해야지 처음부터 크게 출발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힘들고 지쳐요.

대한민국 어느 마을이든 20~30명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은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20~30명이 없어요. 진심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있다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지요. 마을활동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어요.

마을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힘이 닿는 데까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을사업은 봉사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해요. 행안부와 서울시에 전부는 못 쥐도 일부 상응하는 봉사료를 마을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자고 건의하는데 법에 어긋나서 안 된대요.

행정의 이런 사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해서 행정과 주민이 신뢰하는 가운데 마을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주민자치회가 마을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마을사업을 좀 알아야지 자치위원장도 하지요.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도 지원해주면 좋겠고요.

개선점 외에 행정에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마을활동가라는 말은 좋은데 참 외로운 길이라고 봐야 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너도나도 동참해서 같이 하다 보면 주민들도 알아주겠지요.

그런데 다들 관심이 없으니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안 나요. 마을사업을 할 때 전 광관 사인도 설치해서 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지역방송이나 국영방송에서도 홍보 좀 하고. 매스컴의 영향이 얼마나 커요. 홍보가 잘 되면 주민들이 참여는 안 해도 적어도 우리 동네 어떤 마을사업을 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알 정도가 돼야지 활동가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지요.

마을일을 하려면 동네에 애착이 있어야 해요. 그 애착을 만드는 게 마을활동이에요. 마을사업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해서 동네에 애착을 갖고 오래 살면 좋겠어요.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자리 잡으려면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60% 이상인 사람들이 마을활동가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산4동
김민정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주민자치회 간사

처음에 육아공동체인 아이러브쿵 엄마들이
다 전업주부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두 명씩 조를 짜서 그 주에 수업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든지 상관 없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경험이
각각 분야에서 잘하는 엄마들이
소소하게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했던 활동이 조금이라도
바탕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 모아놓고 해봤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왔을 때도
크게 힘들지 않게끔 그래서 마을활동이 엄마들 역량강화도
되는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마을일이 자연스럽게 연결 된거니깐
그게 보람된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마을활동을 하시게 됐나요?

2016년부터 토요일에 육아공동체 아이리브룩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요리하는 놀이죠. 조물조물 수제비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어보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 커서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들기라든지 놀이학습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활동하다 책모임 ‘민들레’ 도 하고 주민자치활동도 하게 됐어요.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은?

아이가 조금 폭넓게 사람들과 접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을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과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아이도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다양한 체험학습도 다녀오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산타가 되어 선물 주는 행사도 하고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뭘 한 가지만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가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서 다 좋았어요.

마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을에서 이웃들과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조금 힘들고 뭐하고 해도 또 같이해요. 같이 뭔가를 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에너지가 있어요. 해가 갈수록 몸이 피곤해지니까 조금 간소화되는 것도 있긴 한데 같이 하면서 시너지가 커지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인 일도 있고 아이를 보살피는 일이 쉽지 않고 해서 지금 힘든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도 일을 맡으면 어디서 또 힘이 나는 건지 생기는 건지 또 하고 있어요.(웃음)

나에게 마을이란 어떤 곳인가요?

공동육아. 아이들 같이 키우는 공간이요. 엄마들이 바빠서 함께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서로 살피주며 같이 진행해요. 공동육아 이런 느낌. 같이 성장해가는 공동체 이런 느낌이에요.

마을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준비했던 행사가 잘 마무리됐을 때 가장 기뻐요. 아이는 엄마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길러지고 양보하는 배려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를 봤을 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을활동들로 인해서 나와 주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리브룩 활동을 하는 엄마들이 전업주부인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두 명씩조를 짜서 그 주에 수업을 맡아서 했어요. 경험이 각각 분야에서 잘하는 엄마들이 소소하게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과 여러 활동을 해보아서 동네 아이들이 왔을 때도 힘들지 않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들도 많이 성장한 거 같아요. 도서관에서 활동하시게 된 분도 있고요. 마을일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니까 그게 보람된 거 같아요.

마을활동에 대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 건 몸이든 정신적으로든 애써야 하니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크게 보고 멀리 보면 손해가 아니거든요. 요즘엔 바쁘고 사람들이 각각의 바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바로바로 이득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당장은 너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은 일이지만 하다보면 성장해요. 아이리브룩 엄마들 보면 그래요.

꾸준히 참여를 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다보면 결과물도 생기고 직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독산4동
박현주

마을공동체위원회 2013~2015
동자치지원관(시흥5동)

주민분들을 만나면 다들 너무 겸손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시는데 만나보면 그분들만큼
훌륭한 자원이 없어요. 그 누구와도 중복되지 않는
독특함과 재능이 모두 있어요.
주민분들이 너무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보석 같은 재능들을 보여주면 마을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 재능들이 쓰이는 것도 보여주는 사람의 몫이에요.
마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발짝 내가 스스로 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활동가들은 그 사람의 등장을 알아차려 주어야 하고요.

요즘은 너무 자기 살기 바쁜 시대라고는 하지만
나도 이 마을에 살고 있고, 내 아이도 여기서 커 가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늙어갈 것이고 내 아이도 이 마을에서
또 뭔가에 책임을 갖게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겠죠.
그때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소박한 이유로 모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뭔가 멋진 꿈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둘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담임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그러시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일까? 아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에서 아이들 생활반경에 맞춰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마을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의 담임선생님과 오해가 풀려 존경받는 선생님과 사랑받는 아이로 관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학부모 활동부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배우면서 맡은 일을 하라며 주변에서 부모교육을 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교육을 받게 되었고 참여했던 분들이 함께 ‘금천학부모모임’을 만들게 됐죠. ‘마을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목표로 마을활동을 같이 해보자고 단체를 만들었는데 저도 원년 멤버예요.

제가 워낙 시골 태생이라서 그런지 마을이 저를 키워줬다는 마음이 있어요. 시골은 산이며 들이며 어디든지 놀이터가 될 수 있고, 마주치는 누구나 다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아이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고 나 역시 마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을에 초록 발자국을 남기며 탐구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처음엔 교육을 통한 채움으로 시작했어요. 새로운 배움은 항상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기 때문에 잘 몰라도 배우는 거죠. 구청에 평생학습관이 생겨서 구민기자교실을 수강하고 구민기자단이 되어보기도 하고, 기후변화 강사양성교육을 듣고 환경강사로서 초등학교에서 수업도 했어요. 여러가지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독산4동 꿈씨어린이작은도서관 관장을 하기도 했는데, 주민센터에 서류 발급 받으러 갔다가 봉사자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작은도서관 운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거죠. 그 당시에는 새마을문고

였는데, 자기 스스로 단체에 들어간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각 동의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을공동체활동을 이미 문고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봉사하고 있던 주민들의 수고가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죠. 가령 ‘이 공간은 이용자가 없으니 패쇄하겠습니다’ 하면서 왜 이용자가 없는 상황인지 어떻게 하면 이용자가 많이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행정은 궁금해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곳은 지켜져야 한다. 공간이 작고 이용자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책을 빌려 가지 않고 보고 가는 이용자도 많다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실제 일하는 엄마와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는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숨은 사연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민으로서 그 공간을 지키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다 동자치지원관으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못난 소나무가 마을을 지킨다’ 말이 있죠. 예전엔 제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 했는데, 봉사하면서 깊어진 마을에 대한 애정만큼 제가 꿈씨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는 감사한 기회가 있었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을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봐 주고, 그 아이들이 또 언젠가는 큰 바다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마을에 오겠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을 기억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 주면 참 좋지 않을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교감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 다 큰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과 옛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라는 어떤 큰 명제를 가지고 제가 동자치지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자리를 옮겨 오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도 무척 소중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터전도 있어야 한다는 걸 느낀 거죠. 마을에서 활동하는 범위를 좀 확장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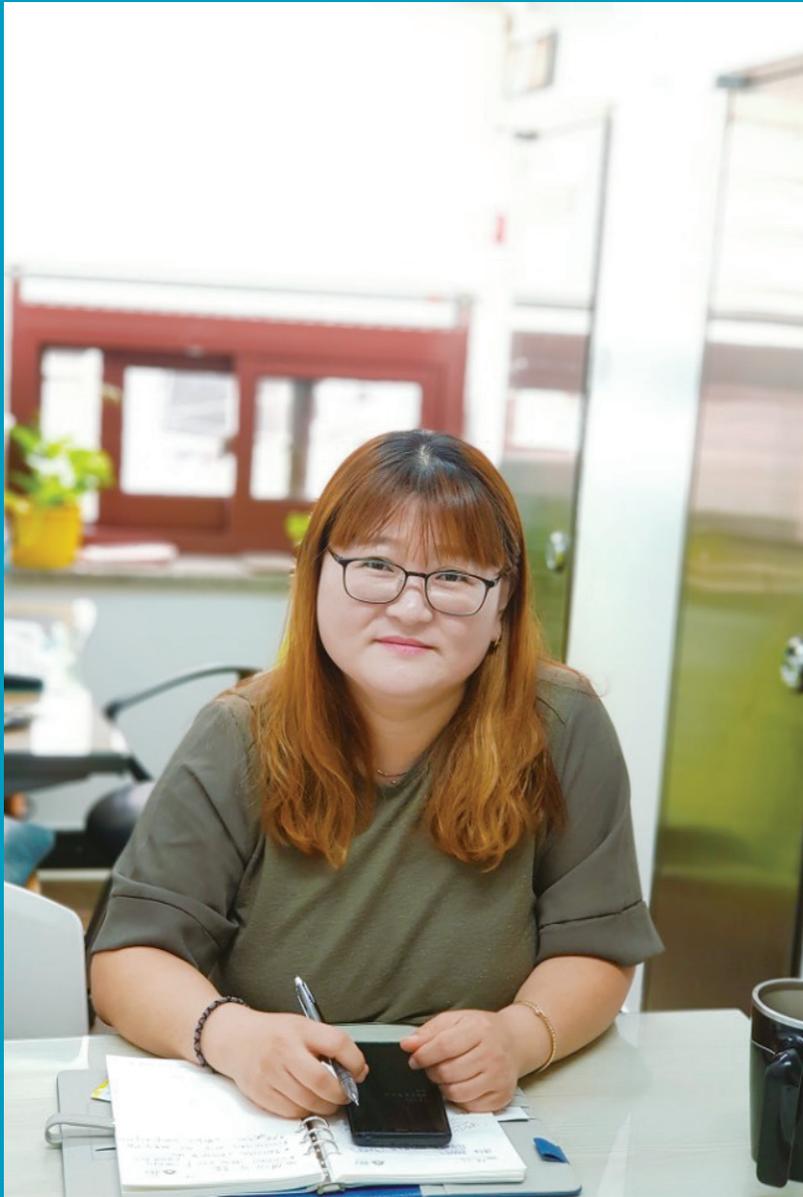
주민분들을 만나면 다들 너무 겸손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시는데 만나보면 그런 분들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누구와도 중복되지 않는 독

특함과 재능이 모두 있어요. 주민분들이 너무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 보석 같은 재능들을 보여주면 마을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 재능들이 쓰이는 것도 조금씩 보여주는 사람의 몫이에요. 마을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발짝 내가 스스로 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활동가들은 그 사람의 등장을 알아차려 주어야 하구요.

요즘은 너무 자기 살기 바쁜 시대라고는 하지만 나도 이 마을에 살고 있고, 내 아이도 여기서 커 가고 있어요. 또 나는 여기서 늙어갈 것이고 내 아이가 결국에는 이 마을에서 또 뭔가에 책임을 갖게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겠죠. 그때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보자 뭐 그런 소박한 이유로 모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뭔가 멋진 꿈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독산4동
신용란

금천마을지기 3기

잘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마을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싶은 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고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가지 말고 강 약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가다 보면
그러면 재밌게 마을 일을 하면서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집,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이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학교에 가게 되니까 집에서 동네에서 학교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사회라는 걸 배우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는 골목을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보다 마을을 더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독산동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너무 마을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시는 활동가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마을을 모르지만 마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마을을 알아가는 활동이 있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마을탐방을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무지한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큰 동기는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마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현재는 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하는 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을일도 하고 있고 독산4동 자원봉사캠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장은 마을 일을 하면서 마을에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인적 자원을 연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 발로 뛰는 곳이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봉사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마을정화활동도 하고 가족봉사단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마을활동가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로 인해 나의 변화라든지 내 주변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에 대한 변화라고 하면 시야가 조금은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재밌고, 힘은 들지만 나누는 것도 재밌어요. 또 제 아이의 변화라면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재밌다는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조금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봉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몸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관계망이 좀 넓

어지고 인적 자원이 생긴 것 같아요. 테두리가 좀 넓어지고 확장이 된 게 저한테는 큰 변화이지 않나 싶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람’을 얻은 거죠.

마을활동 선배로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마을에 들어오신 분들은 뭔가를 굉장히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지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을에 발을 들이시는 분이나 봉사자 선생님한테도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천천히 가면 지치지 않고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 천천히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강 약 조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모든 활동에는 분명 강약조절이 필요하지요.

동에 오면 같이 활동하시는분들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더불어 사는 거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좀 바뀐 게 있고 항상 지금도 내면적으로 고민하고 힘들기도 하고 혼자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여기에 오면 재밌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어요.





독산4동
조연주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마을일을 하다 보면
내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일을 한다 라는 거는
'마을' 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커요
큰데 그 안에 사람도 되게 커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마을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건지
내가 정말 뭘 하자고 이렇게 마을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되돌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는게
역사로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듯이 남게 되요
그러니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거
그게 그냥 마을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마을이고
그러니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시작이니 만큼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을에 관심을 갖고 마을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공동육아공동체 ‘자발이네사랑방’을 2014년도에 대표를 맡았어요. ‘자발이네사랑방’을 하면서 2015년부터 마을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자발이네사랑방’을 하게 된 동기는 마을 안에서 뜻이 맞는 엄마들끼리 아이들을 함께 돌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자발이네사랑방’을 운영하면서 민원 발생이 있었고 그 민원 안에서 내가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자식이 나중에 이 지역에서 마을 안에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처럼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편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마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럴려면 일단 ‘자발이네사랑방’이라는 공동체를 좀 알려야겠구나. 마을에 아무도 우리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산4동 주민인 나조차도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공동체를 마을에 알려야 겠구나 마을에서 활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됐어요.

요즘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독산4동에 공유공간 마을활력소가 있어요 그 공유공간에 ‘동동활력단’이라는 공간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자발이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문교 초등학교 학부모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에 지구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활동이 선생님 주변이나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달라진 점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마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이 흐르는 데로 살았다 라고 하면 마을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앞으로 나아 가야 될 삶이 뭘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표 4년 차를 거치면서 회원들과 함께 마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에 대한 인식들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공동체 삶을 함께 하면서 회원들 삶의 가치관도 조금씩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멀리 사셨던 분들도 이사를 오기도 하고 원래는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됐어야 되는 분들이 이젠 같은 학교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더 나아 가서는 같은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모이고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학을 많이 가고 이사를 많이 가는 데, 저희는 꺼꾸로 삶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를 많이 논의를 해요. 많은 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문교초등학교 학부모로서 함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나 새로운 계획(목표) 또는 다른 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8년도까지 마을활동이 학부모 활동, 한살림지구 운영위원 등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안식년을 가지려고 해요. ‘자발이네 사랑방’은 비전을 위해 비영리단체를 등록해 놓은 상태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개개인 시간들이 조금 더 여유 있을땐 엄마들의 동아리 모임, 소모임을 다양한 모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외에도 회원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돌봄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마을일을 하다보면 내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마을 일을 한다 라는 거는 마을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커요 그 안에 사람도 되게 커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의견 조율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거고 마을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나를 위한 건지 내가 정말 뭘 하자구 이렇게 마을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되돌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는게 역사로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듯이 남게 돼요. 그러니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 들을 하고 있고 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거 그게 마을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게 마을이고 그 사람들과 굳이 내가 맞춰야지 혹은 뭐 속상하든 기쁘든 자연스러운게 마을이다 라는거 그러니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시작하는 만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정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하는 열정이 다 식으면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
거든요.

어느일을 하든 학 일도 그렇고 마을일도 그렇고 내 주변에 친한 엄마들 사이에
서도 친하다고 갈등이 없진 않거든요.

친하면 더 있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갈등을 조율하고 누구 하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마을일을 하길 바랍니다.



독산4동
최지수

금천마을지기 4기

마을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마을이 친근하고 안전하다는 것들을
알려 주고 싶고 아무래도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그냥 쳐다만 보지 않게 되고
모두 내 가족 같고 마을을 보는 시야가
많이 확장된 느낌이에요.
마을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
하다 보면 와해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감정만 앞세울 게 아니라
뭔가 목표와 신념이 정확하다면
감정을 앞세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흥2동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특구추진단에서 청소년코디네이터로 ‘학교에 사회적 경제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에서 사회적경제교육을 하고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기제 수업이나 대안 교실, 먹거리 사업, 조식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있고, 자활하고 연계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다양한 일 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수요일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층 주방에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 심야 식당을 열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애들이 까칠하고 말도 안 듣고 이랬는데 요즘은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사하고 장난도 치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부모님이 고맙다고 복숭아 한 박스를 사 오셔서 함께 즐겁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굉장히 감동 받았어요.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활동에 아쉬운 점은 없나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2층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 곳이 있어서 고맙다고 올 때 음료수도 사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뿌듯하고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이런 곳이 많이 생겨야 될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경제특구사업이 3년 지원이라 올해 끝나서 너무 안타까워요.

앞으로 다른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화요일, 목요일마다 한울중학교 대안교실 수업도 들어가고 학생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깐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 상담 그런 쪽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쪽으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변화된 점이 있나요?

마을일을 하면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들을 아이들한테 알려 주고 싶고 마을이 친근하고 안전하다는 것들을 알려 주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마을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나가는 아이도 그냥 쳐다보지 않게 되고 시야가 많이 확장된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을일을 하다 보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와해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마을활동할 때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목표와 신념을 갖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흥1동
김미선

마을자원활동가 2015

좋아서 마을일을 시작했고
마을일을 하다가 지쳐서 나가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물론 그러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활동하다 보니
사업이 주가 되고 그 안에서 회원들끼리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다 보면
사업이 결국 혼자서 활동하다가 끝나고 나면 사람은 안 남고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을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마다 다를 거예요
마을일을 하실 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들은
솔직하게 끊어 내시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조금씩 그런 활동을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하게 올인해서 지치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즐겁게
길게 마을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활동은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네요
개인의 결핍이 모여 공동체로 함께 채우면서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해요.

마을일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2014년도에 서울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지역 특성화 문화교육사업의 강사이면서 기획자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동네 재발견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그걸 다시 우리 동네 축제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을 1년간 했었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마을공간들, 공유공간, 공공시설의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쌓아가고 있던 와중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똑똑도서관이라는 사업에 대표자로 공모사업을 내게 되었거든요. 그때 처음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2014년도에 금천구에서 마을에 대한 자원조사를 하면서 마을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여러 활동으로 인한나의 변화나 주변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활동을 하면서 바뀐 거는 금천구에 사는 게 자부심이 생겼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천구라는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이 금천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실제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마을의 정보나 행사 등의 정보를 더 많이 더 널리 아실 수 있도록 홍보가 된다면 저처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는 마을활동을 하면서 금천구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고 금천구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많은 관심이 생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미를 계속 찾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처럼 쪽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게 우선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어요.

앞으로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곳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를 못 정하긴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관점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가까운 시일 내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활동해 보고 싶고요. 이것이 되기까지는 마을일이 될 수도 있고 지역문화 기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연계되는 지점도 많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마을일도 결국엔 마을에 공동체 문화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획해 나가는 거고 실천해 나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흥1동
박춘옥

금천마을지기 4기

살면서 겪었던 위기는 엄청 많았죠
공장하고 집하고 불났을 때도 있었고...
근데 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인생인 거 같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죽을 거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위기일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많이 도와줬던 거 같아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때는 그게 세상에 전부인 거 같은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잘 넘겨야겠지요
어떻게 넘기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또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나는 참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거 같아요

마을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

지인으로부터 마을지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추천받아서 한 거죠. 좋았던 것보다는 그냥 마을을 좀 안다는 게 괜찮았던 거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속속 보고 지나갔는데 마을 활동을 하면서부터 구석구석에 뭐가 있다 어디가 지저분하다.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죠.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

중점을 두고 하는 마을활동은 없고, 봉사 같은 거는 기회가 닿는대로 하죠. 금빛찬란 공동체 활동을 하고, 금빛찬란은 화단 물주기, 꽃 심기 뭐 이런 거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받고해요. 받아 보면 기존에 알던 거 보다 더 교육을 받았으니까 더 잘하겠죠. 주변에 알려주기도 하죠.

금천문화원과 연계된 봉사활동은 금빛찬란공동체가 거의 다 참여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은 ?

보람있는 활동은 금천문화원이죠. 아무래도 문화원 활동은 좀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 다르고 한정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니들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친밀감도 있고 단단한 끈적끈적한 정도 있어서 좋아요.

봉사활동하면서 ‘금천가디언’ 하면서 외진 부분에 조명 같은 것도 달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포스트를 만들어서 색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금연 지도도 하고 금연 포스터 벽화도 그리고 시흥3동에 우리 활동에 좌우명 적어둔 거 있어요. 뭐라고 적었는지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네요.(웃음)

요즘 생각하는 좌우명은 ?

요즘은 그냥 너무 ‘앞만 보지 말고 뒤도 좀 돌아보자’ 잘 먹고 잘 살자는 누구나 하는 건데 조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옛날에는 봉사면 봉사만 했는데 생각없이 지금은 봉사를 하더라도 내 자신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달라진 것 같아요. 나도 좀 놀래요. 이런 인터뷰 할 줄도 몰랐네 이거 비밀이었는데 나 혼자만의 나 자신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도 좀 하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나는 너무 문란하게 살았던 걸 이제

좀 정리한다고 해야되나 그런 게 조금 달라진 거 같아요.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철 들었다고 해야 하나 누가 철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봐도 철이 좀 든 거 같긴 해요.(웃음)

선생님의 활동으로 주변 변화가 있었나요?

주변에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옥이는 저런 사람이다.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인정해 주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참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은 일은 열심히 해 말은 일에는 성실하려고 노력하고요.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현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해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고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가야지 그나마 손이 닿고 그러는데 이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신문고 같은 거 설치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좀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주체적으로 실천할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다 신문고를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딱 몇 사람 이던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올려 놓으면 예를 들어 신고한 사람이 있다.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이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참 많이 발전이 될 거라 생각해요. 나는 시흥1동 해태놀이터도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민원도 넣고 했는데 별로 뭐 시정되는 사항이 없더라고 그래서 마을지기 하면서 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아쉬웠어요. 힘 있는 사람들만 자기실속 챙기는 거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부터도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천구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우쿠렐레를 몇 년 배웠으니깐. 그냥 가르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격증을 따 보려고 도전중입니다.

살면서 또는 마을활동 하면서 겪었던 위기는?

엄청 많았죠. 공장이랑 집하고 불났을 때도 있었고 근데 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죽을 거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

위기일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많이 도와줬던 거 같아요. 일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때는 그게 세상 전부인 거 같은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넘기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또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면 어쩔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참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거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철학은 ?

내가 좋은사람이면 남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철학은 아니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야되나. 좀 바보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좀 약지는 못한 거 같아요. 계산하고 그런 거 너무 피곤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싫어요.



시흥1동
이수영

주민자치회장(2019~현재)

주민자치일을 하면서 어려운 거요?

딱 하나예요

시흥1동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는 거
제가 진짜 동네 분들의 0.1% 라도 대변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큰 숙제인 거 같아요

주민자치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 동네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그럴 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자고 합니다. 시흥1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복지사업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업을 해나가는 게 우리 목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1동은 어떤 마을이에요? 자랑을 해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행복하고 포근해요. 우리동네 어디를 좀 알려주고 싶냐고 묻잖아요? 다예요. 그냥 다. 마음이 뛰하고 그럴 때 전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떠들다 보면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게 우리동네예요. 요즘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노령화 동네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상황이 와도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은 포용력 있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없나요?

시흥1동 가장 큰 문제가 노숙자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노숙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노숙자 관리와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고시텔이 좀 있어요. 사건이 많이 나오. 거기 사는 분들에게 ‘나오세요.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시고 좀 어울립시다’ 하는데 접근해서 뭘 같이 하는 게 어려워요. 많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 주셨지만 100% 열지는 않았어요. 그분들 생각을 바꾸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울림이 있었어요. 이웃집도 내 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약해졌지만 주택가 동네는 아직도 그런 면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골목 단위로 어울림이 좀 더 많아지고 이웃이 항상 남이 아닌 가족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나요?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동장님과 의논하죠. 동장님 하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구하고 협의하고요. 각종 복지단체와 연결도 하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우리 방식이 일방적일 수도 있으니 100% 만족한다고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들과의 소통이 참 어려워요. 항상 ‘내가 과연 우리 동네 주민 1%, 0.1%나 대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천 명이 있으면 천 명의 의견을 다 받기도 어렵고, ‘한 명의 의견이라도 제대로 그걸 내가 반영해 줄 수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일합니다.

주민자치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하나예요. 진짜 마음이 불편한 게 주민자치를 한다는 우리가 동네 분들의 의견을 0.1%라도 대변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큰 숙제인 거 같아요.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하려면 홍보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주택지역은 그게 쉽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홍보하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홈페이지 못 봐요. 어르신 대상 사업을 할 때 플랜카드 또는 전단지로 홍보하는데 그런 거로는 모집이나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생활보호사와 통장님들 통해 모집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실 때, 사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상하시나요?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틈만나면 서울시 예산 편성 사업이라든지 지방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봅니다. 올해 ‘우리동네 어르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방에서 시행하는것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TV를 보다 ‘그래, 저거야’ 했죠.

자치위원회장님으로서 시흥1동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저는 회원님들이 하는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회장을 떠나 나중이라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눔밥집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데 어떨 때 보람을 느끼세요?

사소한 거라도 제가 어떤 한 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을 때,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실 때 그거 이상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주머니에 사탕 하나 넣어 주실 때 그때 최고인 거 같아요.(웃음)



시흥동
이용곤

금천마을지기 1기
금천마을공동체위원회 2017~현재

마을활동을 통해
일단 저희가 성장했죠

영상을 잘 몰랐는데 국가 예산을 통해서
영상편집 및 과정도 많이 배웠으니까

국가 예산으로 배운 것을 나 몰라라 그만두는 일이 없고
조금이라도 마을에 보탬이 되고,
다음 사람이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

영상도 찍고, 시나리오도 짜고, 찍고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목회하시면서 마을활동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된다’ 는 목회철학이 있고 또 하나는 큰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활동 때문에 바쁘셔서 마을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교회가 작다 보니 시간이 좀 남잖아요. 남는 시간에 봉사할 장소를 알아보다가 평생학습관에서 기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기자 교육을 받고 마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마을 사람들이 좋은일을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구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마을지기도 해보고 현재는 마을공동체위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마을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구민기자 교육을 받아서 기자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구요. 그러다가 마을지기 1기를 했거든요, 마을지기 활동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처음 알게 되었고, 마을지기 1기를 마치고 마을에서 활동 안하면 그동안 배운 게 아깝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1기 중심으로 마을방송국이나 영상 쪽으로 라디로나 잡지 같은 건 마을에 있더라구요. 당시 영상 쪽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기록에 있어서 영상 쪽으로 접근해보자 해서 징검다리 마을방송국을 1기분들 주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서울시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3년정도 교육을 받았습시다. 촬영하는 방법, 마을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저희가 활동이 좀 미비해요.(웃음) 아무래도 영상 쪽이다 보니까 라디오는 장비가 몇 개 없어서 쭈욱 나가는데 저희는 영상 쪽이다 보니 편집하는 쪽이 좀 어렵거든요. 잘 배운 사람이 그만뒀버리면 또 배우고 키워야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서 한다는게 그 점이 좀 어렵더라고요.

마을활동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징검다리 마을방송인데 제가 맨 처음에 총무를 했다가 대표가 됐거든요.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예산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3년정도 배우기만 하고 활동을 안한다는 건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금으로 배운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해서 마을방송국으로서 자리매김해야겠다고, 마을에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해서 영상으로도 기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아요

징검다리마을방송에 애정이 많으신데, 활동 중 기억나는 일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징검다리마을방송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안양천에 가면 중간에 돌기 부분처럼 나온 게 있어요. 금천구 지도에 보시면 안양천 왼쪽에 쪽 가다가 구청 왼쪽에 돌기가 있어요. 거기가 금천구 땅이거든요, 금천구 땅인데 언뜻 보면 광명으로 보여요. 그곳을 저희가 촬영하고 과천종합청사도 가서 지적도도 보고, 금천구 땅인지 확인도 했는데 국가에서 하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금천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 캠핑장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덤비다가 (웃음) 구청에서 손대지 말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거기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잘못 건들이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의욕적으로 한 활동이 에피소드 같아요.

앞으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시는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징검다리마을방송을 키우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시흥동부터 시작해서 가산동까지 영상에 잘 담아서 마을에 대한 영상을 1년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마을공동체기록관에도 저희 영상이 전시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목사님 또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째는 저희의 성장이죠. 영상을 잘 몰랐잖아요. 그동안 예산을 통해서 프리미어 편집 등 비싼 역량강화교육도 많이 했으니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 몰라라 그만두는 일이 없고, 조금이라도 마을에 보탬이 되고, 다음 사람이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램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 영상도 찍고 시나리오를 짜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 한거죠.



시흥동
정순정

금천마을지기 5기

마을활동을 하면서 변화된 점은
마을에 무관심 하지 않는다는 것,
자원봉사 하면서 즐겁지 않은 것은
봉사가 아니고 강요된 봉사도 봉사가 아닌 것이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청소해 주는 것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즐겁지 않은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해야
진정한 봉사라 생각합니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 변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길도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남의일이라 여겨 모른척했던 문제들도 어떡하면 해결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죠 오지랖인가요.

마을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이 가게 되네요

시흥1동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전 봉사자예요 처음엔 친구따라 시작한 봉사가 이젠 시간이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일이 된거죠 가끔은 독거어르신을 찾아가 말벗도 되어 드리고 그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드리는 일도 하죠 캠프를 맡고 부턴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죠 저희 봉사로서 해결이 어려우면 지역사회나 행정에 연결해 드리려 노력하기도 해요

활동을 계속하게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격려 아닐까요? 길거리에서 언젠가 만났던 어르신들이 활짝 웃으면 다가올 때 힘들어 그만 돌아가 하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죠
지역사회 봉사에서 가장 큰 힘은 공감 같아요.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마음 조그만 베풀어도 활짝 웃을 수 있는 마음 사실 어르신들이나 우리들이나 외로운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할 때 기쁨을 누리며 봉사를 하게 되요

마을에서 자주가는 장소는 어디인지요, 또 자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봉사캠프 또 자원봉사센터예요
이유는요? 마을사람들과 정보도 듣고 친목도 다지고 위안도 얻게 되죠. 또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찾으려 가게 되네요

활동하면서 본인 또는 주변은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되는지요?

첫째, 나는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둘째, 가족들이 전부 봉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웃을 돌보는 일에 가족

들과 함께 참여하다보면 같은 취미가 생긴듯해서 행복해요.
셋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서 부자가 된 듯 하네요. 힘들때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답니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요리봉사를 하는데요 처음엔 1년정도 계획했던 봉사가 4년째 하고 있네요. 중도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불편한 손으로 열심히 따라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보람 있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요리를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열심히 챙겨 가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답니다

우리동네를 여행한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곳은 어디일까요?

첫째는 시장탐방이죠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 있다보면 활기가 넘치죠 어렵고 힘들 때 시장을 나가 보셔요,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힘들다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사치스런 생각이었는지 반성하게 된답니다
둘째는 한내천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계절 언제 나가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꽃과 식물들을 보면서 징검다리 가운데서 흐르는 물소리를 함께 해보시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 갈 겁니다

처음 마을을 배우는 봉사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활이 무료하고 힘들 때는 마을센터나 각동에 있는 자원봉사캠프로 찾아오셔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 줄겁니다.
그곳에서 함께 할 친구를 만나셔요



시흥1동
정은숙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마을활동을 하는 원동력은
저에 대한 나름의 자존감
그리고 저에 대한 발견
또는 어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배우는 것이 많아요.
처음에 단지 책이 좋고 도서관이 좋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조금 마을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더라고요.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뿌듯했고
도서관에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했을 때,
주민분들이 뭔가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보람을 느끼고
그게 바로 저의 원동력 같아요.

시흥1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관장이구요. 구청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도 하고 있지만 도서관과 시흥1동 그리고 마을이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꼭 책과 관련된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흥1동 동 특성화 사업 등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에 대한 나름의 자존감 그리고 저에 대한 발견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배우는 것이 많아요. 처음에 단지 책이 좋고 도서관이 좋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조금 마을활동을 하면서 재미있더라고요.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뿌듯했고 도서관에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했을 때 주민 분들이 뭔가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보람을 느껴요. 그게 바로 저의 원동력 같아요.

마을에서 자주 가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또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도서관 일이 직업이다 보니 집에서 도서관 그리고 구청 이것이 저의 동선이에요. 시흥1동에서 금빛공원은 동 특성화 사업으로 시흥1동분들이 꽃도 가꾸고 화단도 가꾸고 건강 둘레길도 가꾸셨어요. 가끔 금빛공원을 가면 힐링이 되죠 지금은 도서관이 예쁘게 바뀌다 보니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있어도 힐링이 되겠다고 하세요. 바쁜 업무에 지치다 보면 도서관 열람실에만 있게 되요. 저 밖 발코니에도 못 나가고 일이 있을 때만 나갔다가 일만 하고 들어와요. 책을 찾아오거나 식물을 심어봤기 때문에 가꾸러 나갔다 오는 것이 끝이에요. 가끔 비가 오는 날 이럴 때 안에서 밖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럴 때 가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찌 보면 제 직장이자 힐링 장소 같아요. 눈 내리는 날도 예쁘고 비 오는 날도 예쁘고 또 햇빛 비추는 날에는 그 나름대로 맑아서 예쁘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활동하시면서 본인 또는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 도서관 봉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도서관 봉사 말고 청담노인복지관이나 금천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아들하고 5학년 때부터 같이 봉사를 했거든요. 그분들의 인식이 조금 조금씩 변하세요. 대부분 기초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이신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조금도 자신에게 불이익을 용납 못하시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셔서 욕설과 폭력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매주 매달 매년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변하시더라고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실때 뿌듯해요. 제가 도서관에 오래 활동했던 이유가 초창기 분들과 지금의 분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도서관이 단지 책만 빌려주는 곳 책만 읽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도서관에서 활동도 하고 배워도 가고 여기에서 내 자존감을 찾아가고 또 여기서 봉사자로 일하셨던 분들이 마을지기나 마을사서 또는 저처럼 관장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볼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마을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나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보람이 있었던 일은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입니다. 2018년 이맘때 도서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기에 규칙을 지켜야 하죠.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도 저의 업무이죠. 그것이 기분이나빠서 외부에 다니시면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 때 제가 도서관에 있는 것이 도서관에 이득이 아니라 도서관에 해를 주는 건 아닐까? 고민을 한참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만난 유치원 가려고 하던 친구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줄 때 그 친구한테 별것 아니었을 수도 있고 저한테도 별것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많이 그랬었는지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저런 친구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힘을 많이 얻었어요. 거창하게 저에게 선물을 사다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동네를 여행한다고 한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요?

시흥1동의 자랑이죠. 현대시장, 대명시장이 예전에는 더 큰 곳이었어요. 제가 시

흥1동에서 52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만해도 현대시장은 개천이었구요. 대명시장이 워낙에 큰 시장이었어요. 북적북적하고 아이도 잘 잃어버리는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활기가 줄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현대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어 다행이라 생각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현대시장의 물건이 정말 다양하고 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고 해서 구경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시장'을 자랑거리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맑은누리 작은도서관도 꼭 추천 드리고 싶어요.(웃음)

마을을 배우는 활동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다보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나쁜 얘기도 있거든요. 듣기 싫은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듣기 좋은 얘기를 열 마디 들었다면 듣기 싫은 말은 한마디만 들어도 그 한마디가 비수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활동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주관을 갖고 단단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는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제 안에 저를 가두지 말고 내보이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 아닐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흥1동
탁경숙

금천마을지기 3기

마을일이라는 것은
일단은 봉사·헌신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헌신속에는 우리들의 관심과 배려도
또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도 하고
서로가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갖고 찾아올 수 있으면은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이
선글라스가 빨간색이면 빨간색만 보이고
그리고 노란색이면 노란색만 보이고
하늘색이면 하늘색만 보이잖아요
그 선글라스를 여름에만 쓰고
평소때 쓰는 안경을 가지고서
이 마을 속에 들어 올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서로 대화해야 되니깐요
그렇게 마을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는 것
그것을 당부하고 싶어요.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고 계시는 마을 활동은 무엇인가요?

안전이지요. 아이들의 안전과 우리 금천구를 보다 더 편하고 교육적인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들의 안전이에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일고등학교에서는 운영위원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마미캡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많죠. 안전을 위해 시민살핌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시민 참여예산 도시안전분과회장이기도 하고요. 마을공동체금빛찬란, 금천가디언, 징검다리 마을방송국 부대표, 마을강사로 활동 하고 있어요. 협치 추진단의 운영위원, 금천구 자원봉사센터 동아리 부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로 인한 나의 변화나 내 주변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나의 변화가 크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경찰서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면 경찰서의 표준 모델로 바뀌 지려고 나를 변화를 시키고 운영위원으로 가면 운영위원으로써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예전 같으면 그냥 덜렁 덜렁 다녔지만은 언행과 그리고 모든 태도에 있어서 많이 바뀌어지고 언행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14년동안 매일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만나게 되니 고개 숙이고 수고한다고 하고 또 횡단보도에서 신호 안 지키고 건너던 사람들도 이제는 없는 거 같아요. 꾸준히 교통 봉사를 하며 횡단보도에서 만나 나누었던 인사말들을 초등학교를 거쳐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하고 며칠 전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선물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꾸준히 봉사를 하니 이런 것들이 그 아이한테는 힘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겼어요.

앞으로의 목표라든가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일을 계속 해 왔는데, 제일 필요한 게 정체성 있는 신분이라구요. 그래서 최소한 명예경찰이라도 되어서 경찰신분으로 내가 죽

을 때까지 아이들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제 블로그에 저에 대한 기록들이 다 되어 있어서 편집해서 책도 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을일이라는 것은 일단은 희생이 따라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마을에서 일들을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선그라스가 빨강색이면 빨강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노랑색이면 노랑색으로, 하늘색 이면 하늘색만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을일을 하다보면 상처 받는 일이 있는데, 본인들이 기대하는 보상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겠지요. 그렇다고 마을일을 포기하게 하면 안 되니까 경험이 있는 마을선배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해 주고 좋은 사례가 무엇인지도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 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도요. 나를 비추어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도와줄 내 편이 없었다고 하면은 못 이겨요. 그런데 포기할 순간 누군가가 사소한 것 같지만 갖고 와서 나를 찾고 기억해 주는 게 그게 보람이더라고요.



시흥동
황영이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마을을 알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직장 다닐때는 학교 집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을을 알고 보니깐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젊은친구들하고 함께 뭔가 할 수 있어 정말 좋더라고요

마을은 옛날 어렸을 때에 사랑방이에요
지나가다가 들려서 안부도 전하고, 대화도 나누고
볼일도 보고 마을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금천구마을공동체센터가 사랑방이에요

노을이라는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석양이죠 그쵸?
석양은 넘어가면서 주변을 아름답게 비춰 주면서
노년을 지내고 있고 원칙대로 하지 않고
원칙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원리 원칙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을일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금천의 어느 학교에 교직 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금천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직장 생활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혜택을 받은 것이지요.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손주들에게 재미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동화구연을 배워 노인복지관에서 ‘아름다운실버’라는 동화구연 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올해까지 10년이에요 동아리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다가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인형극 의뢰가 들어왔어요. 동화구연을 배우면서 인형극을 한 경험이 있어 제게 동화구연을 배우고 계신 분들에게 인형극 할 의사를 타진했더니 호응도가 높아 인형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극단 이름은 ‘금빛노을인형극단’이에요. 제가 인덕이 많은 가봐요. 좋은 분들을 만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이 가장 황금기라고 말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는데 요양원,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더 재미있어하셨어요. 어린이집에서 부모랑 같이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엄마들이 더 재미있어 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인형극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 하는 아이들 모습에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 보다 오히려 내가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년을 잘 보내고 있다는 자심을 갖게 되었고 자식들은 물론 손녀 손자들도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었어요 나이들어서도 이렇게 활동하는 지금이 황금기랍니다(웃음)

현재 또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름다운이야기 할머니 활동입니다. 매주 감동적인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외워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이들의 초롱 초롱 빛나는 눈망울을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의 순수함에 빠져들곤 하지요 아이들이 이야기 후 칭찬하는 소리가 “할머니 예뻐요”라는 말을 들으면 입 꼬리가 올라가요. 수업 전 후로 품 안에 안기는 아이들에게서 행복감이 자동으로 충전 되요. 2019년에 금나래아트홀에서 작품 전시회도 했어요

동화구연 교구 전시회도 3번이나 했어요그리고 계속 새로운 인형극에 도전하고 싶어요. 금천구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인형극을 만들 계획입니다.

살다보면 힘든일도 더러는 있으실텐데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제가 좀 걱정을 안하는 스타일이에요 언젠간 다 지나가고 해결될 것이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다 보니 표정도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사실 교직 생활할 때는 학생들에게 좀 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 내가 애들한테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고 있지만 인생살이는 연습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을 알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직장 다닐 때는 학교, 집,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을을 알고 나니 공동체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젊은이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어 이런저런 것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마을 공동체란 옛날 어렸을 때 사랑방 같은 곳이지요. 지나가다가 들려 안부도 주고받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나이가 들고 보니 원리원칙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사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이 품은 색깔로 주변까지 아름답게 물들이기 때문이지요. 요란스럽지 않은 곱고 차분한 색깔로 물들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극단 이름을 금빛노을인형극단 이라 정했습니다. 금빛노을처럼 노년을 물들이고 싶습니다.



시흥1동
나미정

금천마을지기 2기

마을지기로 교육받으며 활동한 것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보람찼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뿐만이 아니고
금천구에 구석구석을 다니게 되었고,
정말 예쁘구 다른 지역에서 와서 물어보면
자랑할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알게 된 것들이 마을지기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같아요.

내 집 앞에 예쁜 꽃 화분 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좁은 골목에 예쁘게 한 집들이 많아요.
옆집 그 옆집 골목 전체를 진짜 화분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금천구가요

마을일을 어떤 동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 활동을 하다 보니깐 마을일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마을지기 2기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다음에는 특별하게 한 일은 없었지만, 마을지기 하면서 금빛찬란공동체 활동 시작하게 되게 지금까지 계속 금빛찬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에너지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가져 왔나요?

변화로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항상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가 크다 보니깐 관심을 조금 내려놓은 편이고 마을 활동도 제가 특별히 많이 하진 않지만 그냥 동네 우리 시흥1동에 살다 보니깐 시흥1동 쪽에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손만 그냥 얹고 있는 상황 그 상태입니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아 그런 쪽에 교육이 있으면 듣고 활동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것 같아요

금빛찬란 활동 자체도 환경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쓰레기라든지 공원 주변 정화라든지 하면서 아무래도 자연스레 흘러가는게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걸 기점으로해서 조금 더 나가서 환경 쪽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나 꿈, 또는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것들이 있으신가요?

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계획·꿈도 없어요.

제가 조금 미약하지만 보텔수 있다면 오늘도 주제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것, 우리 주민들 인식 개선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할 수 있으면 홍보 시안 같은 거 뭐가 나오면 그런 거 배포라든지 제가 아는 분들 만나면은 내 주위 지인들한테 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또 그 쪽으로 관심도 많고 중요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각 가정에서 전기

아끼고 에너지 아끼는 건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깐 아끼잖아요.

근데 버리는 것에 대해선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안하는것 같아요. 분리배출을 해야된다는 건 알고 있는 데 어느 정도까지 분리배출을 해야되는지 잘 몰라요. 뭐가 분리배출 대상인지도 잘 모르시고, 요즘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깐 아이들은 얼마든지 학교에서나 부모들한테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주부들이 너무 몰라요 하다 못해 비닐에 음식물이 묻었는데 그냥 분리배출로 버리고 우리 일회용 용기에 색깔이 본연에 색깔이 아니고 음식물 찌꺼기 라든지 음식물 색이 배었는데도 그냥 분리배출로 버리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재활용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있잖아요. 일본 쓰레기를 우리가 수입해 오잖아요 우리 쓰레기도 지금 못 처리하는 상황에 일본에서 쓰레기 수입해 온다는 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근데 일본은 음료수병 자체도 투명으로 하잖아요. 투명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색깔이 있고 하는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고 우리 기업들도 그런 인식 정말 중요해요. 소비자들도 요즘 일본 불매 운동 하듯이 이런 정말 재활용이 안 되는 음료수병이라든지, 그런 걸 기업에서 사용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안 되니까 배척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온실 가스도 천연 자동차로 바뀌고 어찌구 뭐 얘기도 나오지만 가장 기본이 안 되니까 생산을 해 놓으면 소비를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면은 그런게 많이 줄어들는데 안 되니까 문제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도 좋구요.

제가 마을지기로 활동하면서 가장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보람찼다 하는 건 제가 사실 시흥1동에서 살지만, 시흥5동에서도 활동하다 보니깐 제가 사실 다니는 코스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골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을지기를 하다 보니깐 골목골목 시흥1동 뿐 아니라 5동, 3동, 독산동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깐 정말 금천구에 알릴만한 너무나 예쁜 골목이 많아요.

정말 말로만 들었던 암탉이 우는 마을도 있고, 옛날 별장 가는 길 군데군데 맛집이라든지 독산동에 파스타 집이라든지 군데군데 정말 예쁜 집이 많더라고요. 정말 마을을 알게 된 것, 제가 인간관계는 만나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마을을 구석구석 알기는 내 두 발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시흥 1동에 힐스테이 건너편에 보면 징검다리가 있어요. 광명시 쪽으로 우리 시흥1동 땅이 불룩하게 있는데요. 내가 여기 시흥동에 80년도에 왔는데 그곳은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마을지기를 하면서 알게 됐고 두 발로 많이 뛰어다녀 마을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사는 동네뿐만이 아니라 금천구에 구석구석을 정말 예쁘고 다른 구랑 다른 지역에서 와서 물어보면 자랑할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알게 된 것들이 마을지기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죠.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라고 근데 막상 우리 살면서 그냥 듣는 말이지 실감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석구석 두 발로 다니다 보면 그런 걸 좀 느껴요. 내 집 앞에서 시작해서 예쁜 꽃 화분 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좁은 골목에 정말 예쁘게 한 집과 골목이 많아요. 옆집 그 옆집 골목 전체를 다 진짜 화분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겠다고 했더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그분이 자기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 얼굴은 못 찍고 골목 사진만 찍은 적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천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시흥2동
공석완

주민자치회장 2017~2019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서
주민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한층 더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하는 주민자치와 더불어
마을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마을의 변화를 꿈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살기 좋은 마을
시흥2동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위원이신데, 시흥2동 주민자치는 어떤가요?

시흥2동이 시범동이 되어서 주민자치 시대로 열어가는 첫 관문이 열고 있지요. 아직 약 10%에 가까운 성과 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2년 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지방자치제가 열릴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렵고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첫 단계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시흥2동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탈북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취업 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금천구에는 150여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탈북민이 5년 정도 정부지원을 받고 5년이 넘으면 지원이 끊겨 그 이후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아주 적은 지원금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모두 봉사하신지 오래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앞장서서 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힘이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로 마을여행을 온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길은 호암산 무장애 숲길로 둘레길이 조성된 곳이에요. 이곳은 잣나무 삼림욕장이 있고 노약자와 장애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도 될 만큼 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명상의 공간 등 숲 치유와 관련된 편의시설이 있어 많은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호암 늘솔길’을 추천합니다

마을활동을 통해 본인 또는 주변은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한층 더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의 단합에 힘입어 서울시에 사업공모로 산불방지 시스템을 신청을 했는데 약6억원이 드는 사업을 등록해 성공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후암산은 산불방지 예방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주민자치와 더불어 마을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마을의 변화를 꿈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살기 좋은 마을 시흥2동이 될 것입니다.



시흥2동
김태희

금천마을지기 4기

예전의 성공주의 보다는 지금 행복주의
현재를 살고 있는 거 같은
옛날은 미래를 보고 살았다면
지금은 현재를 보고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현재에 행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모은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 하면 사회주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기업들.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불평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저는 입사한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늘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2010년도까지 회사 다니다가, 우리 아이가 1학년 되는 해에 회사를 그만 두고 집에있으니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 예요. 그래서 학교 학부모회를 회사 다니는 것처럼 활동했어요. 학부모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을지기, 마을지원활동가가 되고.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 마을사업 경험이 생겨요.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반상근으로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해서 3개월 정도 일하다보니 지금은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놀지 않고 마을에서 계속 다양한 활동했던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좋았고 2017년도에 마을지기로 활동했을 때 제가 좀 놀랐어요. 저는 유럽에 갔을 때도 한국만큼 깨끗한 나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파트만 그랬던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살았구나.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2017년도 마을지기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학부모였잖아요. 우리에만 잘 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아이들이 같이 잘 커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한 거 같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또는 마을일을 하시는 중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은?

보람 있었던 일은 많았는데... 저는 마을에서 스마트폰 강사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배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도 엄마한테는 안 가르쳐 드리지만, 어르신들도 자녀분들이 안 가르쳐 줘서 저희한테 오시는데 휴대

폰 가르쳐 드리면 마지막 수업에 조그마한 초코파이정이라도 갖다 주시는 분들~ 이런 게 동네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서 본인 또는 주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회사 다닐 때도 앞만 보고 달려왔고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예전의 성공주의 보다는 지금 행복주의 현재를 살고 있는 거 같은 옛날은 미래를 보고 살았다면 지금은 현재를 보고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은?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도 새로운 게 나오면 계속 유튜브를 보고 그러는 편이에요. 지금 세대 아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새로운 문물 차이로 이야기한다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결의 연결 고리를 잡은 것도 새로운 것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은 평생학습시대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 순간 놓치면 뒤처지고 어르신들도 또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런 시대더라고요.

이외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마을에는 일할 사람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나와야지 제가 해 주세요 해서 나오면 그분들도 자신 스스로 나온 게 아니니까 제가 그분 뒷수습도 해야 되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일은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흥2동
박언경

금천마을지기 1기
마을지원활동가 2015~2017

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늘 가슴속에 품고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고

동료 관계나 다른 마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크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말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러 나왔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돌맹이 하나가 파동을 일으키듯
공동육아를 통해
마을 엄마들과 미디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끈과 고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금천구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10년에 양천구에서 금천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동안 아이는 컸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요. 금천구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됐고,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씩 관심을 두게 됐어요. 행정경험도 하게 되고 저에게는 정말 큰 경험과 변화죠.

마을일이나 행정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나요?

(하하하)극복했어요 많이. 처음엔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마을일을 해야 하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활동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요즘은 남이 나를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갈등은 내가 일으킬 수도 있고 남이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사는 거는 당연히 다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힘든 것 보다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하지’라는 고민만 해요. 하루 이틀 정도 고민하면 또 넘어가더라고요.

현재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이 뭔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청 주택과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속되어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을공동체사업에는 ‘마을지원활동가’가 있고 공공주택의 사업에는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2013년도에 공동육아를 시작하면서 마을미디어 사업이란 걸 공동육아팀과 하게 됐어요.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변화무쌍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마 공동육아를 하지 않았다면 마을지기로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파동을 일으키듯’ 그런 계기가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앞으로의 마을활동에 대한 목표나 꿈이 있나요?

제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기회가 오면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가고 그렇게 한해 한해를 잘 넘기면서 살고 있어요. 꾸준한 것도 좋지만 내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꾸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주위 시선이 따갑지만, 자기중심을 잘 잡고 가지 않으면 이리저리 잘 휩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을 일도 마찬가지고요.

마을활동에 대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마을새내기 분들에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마을일을 하면 마음이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동료 관계나 마을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서 크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싶다면 자신이 왜 마을에 나왔는지 ‘왜’에 대한 물음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시흥2동
이영대

주민자치회장 2020~현재

제 생활이 직장 그 다음에 가족
나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다거나 그런 거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얻는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그 역할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되셨는데 마을활동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금 9월이니까 3년 9개월쯤 됐어요.

직장 다니시고 바쁘실 텐데 어떻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 했어요. 제가 생활하는 패턴이 집과 직장 그 외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정년퇴직 후 직장에 지금도 나가지만 옛날만큼 타이트하게 활동하지 않아 여유가 생겼는데 주민자치회위원을 뽑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어서 그것을 보고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동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동네가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역할을 나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회위원을 하게 되었지요.

시흥2동은 어떤 마을이에요? 마을 자랑 좀 해주세요.

시흥2동에는 호암산이 있어요. 산이라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동네가 과연 서울에서 벗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동네 환경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학교도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95%정도 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흥2동은 마을활동을 한 다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장점이 있어요. 물론 아파트라는 개인주의적인 특성도 있지만 잘만 역할을 해 준다면 오히려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시흥2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 하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시도해 본 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1기예요. 2017년도 처음 시작해서 2020년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다음 해 사업에 대해 몇 명만 모여서 결정할 수는 없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열고 있어요.

주민총회가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까?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개 동별로 예산이 7~8천 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쓸까 결정하는데 그냥 물어볼 수 없으니까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서 사전조사 의제발굴을 하고 그중 10개면 10개를 정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건데 주민들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소그룹들이 결정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제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10개중 몇 개 떨어지고 5~6개 선정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개별 투표소를 만들었어요. 방문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1주일 동안 밖에서 설명을 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마을의제 발굴 투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참여를 해요.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가꾸보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계기가 금년이 주민자치회 2기인데 작년보다 나아지고 앞으로 조금 지나면 괜찮아 질 거 같아요. 이런 것이 정말 민주주의지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 사업을 올해 선정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코로나 생각도 못하고 결정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사업이 선정돼서 금년에 하는데, 금년의 사업이 분과별로 건강 체조, 명사특강, 힐링 숲 체험 이라든가 반찬 나눔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반찬 나눔 같은 경우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랬는데 반찬들을 50~60개 만들어 놓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몇 시까지 오시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사람씩 와서 갖고 가는 거지요. 이렇게 코로나이지만 방법을 찾아서 사업이 진행되더라고.

특강 이런 거는 다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명사특강?

명사특강 같은 경우 우리가 다 모여서 옛날처럼 오프라인 강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완화되면 우리 호암산에서 마스크 쓰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전조사도 했어요. 그리고 힐링 숲 체험도 넓은 호암산에서 해보자 해서 젊은 엄마들·어르신들 대상으로 요가매트 같은 거 깔고 할 거예요. 내년도 사업도

네 개에서 두 개가 선정 되는데 내년에는 우리동네 버스킹을 해서 거리문화 공연도 하고 어르신들 인생체험 여행도 하고, 장수사진도 찍어 주고 이런 거 할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컴퓨터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각 분과들 회의 하는데 모여서 하려니 부담이 돼서 우리 이제 줌으로 하자 해서 옛그제 처음으로 줌으로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내년에 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2기에서 관심분야, 선생님의 관심 분야는 어떤 거예요?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든가 내가 꼭 이것은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 하고싶다 하는 게 있나요?

어떤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와 마을공동체로서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무슨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일 수 있을까? 주민들의 관심 있는 것이 무엇 일까? 제가 생각하는 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의 관심사항을 논의 해 이런 사업 한번 해 보자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느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요?

어려운 게 우리가 활동을 주로 낮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참여가 힘들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36명인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참여 할 수 있게 회의를 6시 이후에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우리의 소중한 마을사람인데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학부모들의 참여를 늘려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교육분과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아 이곳에서 활동하는 단체장, 통장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특정계층들의 참여율이 낮기는 낮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힘을 써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잘한 샘플 같은 거 혹시 따라하고 싶은 데가 있나요?

선진지 탐방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매년 전국에서 박람회를 해요. 작년인가 경주에서 했고 그전에는 여수에서 했고, 가보면 벤치마킹 할 곳이 많아요. 그런 곳에 가서 브리핑도 받고 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 생활이 직장 그 다음에 가족 나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다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얻는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그 역할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정신적인 만족감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것과 비교가 안돼요. 그런 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참여 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참여하라는 독려의 한마디 하신다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참여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과를 하는 홍보요원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주민자치회위원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내년도에 주민자치회위원 뽑으면 나도 한번 주민자치회위원 해봐야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때 참여하게 되니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과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시흥2동
전명숙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봉사를 하면서 남이 알아주던 아니던 상관 없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다 보니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입장이 되니 더 행복해요
내꺼에 욕심 부리지 말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웃음이 별로 없는데 봉사를 하고 나서 정말 기쁨을 느꼈고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 캠프 20주년 행사를 했는데
10개동 캠프장님들의 한분 한분 말씀들을 듣고
모두 마음이 예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예쁜 마음을 갖은 분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봉사라는게 정말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예쁘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시흥2동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시흥2동 캠프에는 12명의 상담가 선생님들이 계세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방문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물품도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활동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시흥2동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요. 엇그제도 어느 어르신 댁을 소개로 찾아갔어요. 부부가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어요. 우리가 빵을 전달해 드리는 봉사도 하는데, 빵 배달을 하다 보면 그 빵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한 집 한집 더 발굴해서 열심히 다니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 같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마을을 배우는 활동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봉사라는 게 정말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되는 거 같아요. 예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곳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주민센터에서 일자리가 나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예쁘니까 봉사도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하시리라 믿어요. 마음이 예쁘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마을활동을 하면서 자신이나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통장을 하면서 마을 일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하는 일이라 그런지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니 더 행복해요. 내 것에 욕심부리고 싶지 않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명 선생님들과 발로 뛰면서 일이 일정대로 진행이 잘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전보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제가 웃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봉사를 하고 나서 정말 기쁨을 느껴요. 얼마 전 캠프 20주년 행사를 했는데, 10개 동 캠프장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고 모두 마음이 너무 예쁘다는 것을 느

꼈어요. 그런 예쁜 마음을 갖은 분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흥2동
정태량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선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효과나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정말 내 스스로 봉사 하면서 힐링을 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청소년을 위한 선도를 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요쿠르트 봉사를 하고
그 후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통통나래도 진행했어요
사정상 계속 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주변의 변화 보다는 내 스스로의 변화로
담배도 끊을 수 있는 계기와 힘을 준것~
그리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를 열심히 해볼 생각
입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시흥2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 분 정도로 구성되어 매월 청소년의 폭력 금지를 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2동 뒷골목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분식집을 시작하면서 동네 분들과 교류하다 보니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교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많은 아이가 흡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뒷골목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보고 지인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개인보다는 단체활동을 함께 하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선도하면 아이들이 바뀌나요?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도해서 바뀌었다 하는 것은 사실 바로 확인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방법으로 주변에 결손가정의 아이들에게 장학금 등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봉사와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에게는 질풍노도라고 하는 시기가 고등학생보다 더 어린 중학생 아이들에게서 보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요즘은 홍보 수단지만 주변 잘 받지 않아서 물티슈를 함께 나눠주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나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담배를 30년을 피웠는데, 8년 전 12월 31일 딱! 끊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말하면서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주변에서 독하다고도 하고 이런 저를 보면서 많이들 놀라셨어요. 이 활동이 저를 변화시키고 정확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봉사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힐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도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효과나 변화가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처음엔 청소년을 위한 선도를 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요쿠르트 봉사를 하고 그 후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통통나래단 활동도 진행했어요. 사정상 계속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주변의 변화보다는 저의 변화가 제일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마을에서 하고 싶으신 다른 활동이 있으세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바일이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니까 운동양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탁구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체도 건강하게 하고 취미도 만들 수 있는 탁구교실을 열어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흥2동
조정자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함께 봉사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몇 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그래도 마을 안에 들어가 보면
주위의 다른 여러분들이
마을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서
이제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외된 이웃과
노인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복지정책이 잘 되서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살기 편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흥2동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시흥2동 부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추석을 앞두고는 물김치를 담아서 송편하고 물김치를 가져다드릴 예정이고요.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해서 드리고 연말이 되면 만두를 만들어서 떡국하고 가져다드리고 있어요. 또 녹색장터를 열어서 김이나 미역 같은 것을 판매하고 그 돈을 기금으로 모아 어르신들에게 지난여름에는 삼계탕을 해드렸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쓰고 있어요.

부녀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1997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6년동안 통장을 했었고 통장의 임기가 끝나고 부녀회에 들어가 2년차 되던 해에 부녀회장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어진 봉사 활동이 20년이 조금 넘었네요.(웃음)

마을을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젊었을 때부터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몸이 고되고 힘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 봉사를 하면 정말 보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애로사항은 많아요. 함께 봉사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녀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나마 몇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쭉 이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자주 가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삼막사를 자주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갔었는데 갈 때마다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큰 정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다니기도 하였어요. 사계절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다리가 아파서 삼막사까지 오르지 않더라도 호암늘솔길이 새로 생겨서 잣나무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쉼터도 많으니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동네는 뒷산 (삼막사, 호암늘솔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을에서 활동하시면서 본인 또는 주변은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은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예전보다는 살기 편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챙겨 드리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살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체감있는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시흥3동
김명자

주민자치회장 2017~현재

어떤 예산 도움도 없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작했는데
성격상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지만
하자고 정해지면 70%는 해야 한다고 믿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마을활동에 아마추어이고 이제 2년 만에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하면서 모범사례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서 그 속에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다름에서 오는 다양한 의견들도
서로 충분히 감론을박의 의견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으니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의 회의의 룰을 정확히 만들며 상황에 맞는
그 방식을 채택도 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거 같습니다.
시흥3동은 주민자치회를 하면서도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걸 무조건 진행하지 않고
간담회로 끝내고 다음 회의를 정하고 진행합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마을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는지요?

시흥3동에 32년째 살고 있는데, 마을활동은 15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 시작은 통장 활동부터 시작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금천동복지협의체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마을회관도 생기고 변화가 생기니까 같이하면 보탬이 되는구나 싶어서 하게 되었던 거 같아요.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해야겠다는 마을활동이 있다면요?

시흥3동은 서울의 제일 끝 마을인데도 서울 같지 않은 마을이에요. 조용하고 고층건물도 없고 특별한 자연경관도 없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의 인공폭포 근처에 장미길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도움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미비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바뀌는 그곳이 좀 더 안전하길 바라고, 그 길을 지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동 특성화 사업으로 제안하고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니 더 가꿀 수 있게 되었고 차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기분 좋은 길이 되는 거 같아요. 그 길이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성 활동을 할 거예요.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늘 좋을 수만은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성격상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지만 하자고 정해지면 70%는 해야 한다고 믿어요.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마을활동에 아마추어이고 2년만에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하면서 모범사례도 남겼어요. 우리가 실수하면서 그 속에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다름에서 오는 다양한 의견들도 서로 충분히 갑론을박의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있으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흥3동
김민금

금천마을지기 3기

제가 생각한 것은,
사람이 진짜 소중하다 라는 것을
마을활동을 하고 도서관에서 일하고
마을회관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변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이게 저한테 중요한 거 같아요.

활동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 만나서 수업도 하고 책도 정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금마샘 이라고 마을교사로 구청에서 시험을 봐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 시흥3동 으로 이사와서 박미사랑 마을회관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지내고 있죠.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나오기까지가 낯을 많이 가려서 두려웠는데 나오니까 재밌어요.(웃음)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마을지기 할 때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는 뭐가 있다’라는 거를 사진 찍었던 활동이 있었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동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던 것도 알게 되었던 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이러한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 또는 기대되는 게 있나요?

마을사서를 하면서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데 매번 새로운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 같아서 내년에는 내가 또 뭘 하고 있을까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면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전하는 거 그러면서 있는 거 같아요.

마을활동들로 인해서 나와 주변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며칠씩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마을로 나오면서 재밌는 일이 항상 있으니까 매일이 기대되고 남편과의 대화가 많아졌고 제가 이러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지지해 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 같아요.

이 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을 활동을 하고 도서관에서 일하고 마을회관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사람 때문에 변하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시흥3동
배정님

금천마을지기 4기

마을활동은
사람과의 관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조금 어긋나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나가버리잖아요.
따뜻하고 안 맞으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조금씩 배워가기도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얻어가는 기쁨도
굉장히 크잖아요.

시흥3동 박미사람마을회관에 계시는데 이곳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흥3동 마을회관은 2014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있어요. 1층에는 카페하고 공유부엌이 있고요, 2층에는 헬스장이 있어요. 3층은 동아리방 2개가 있어요. 4층은 원래 작업실인데 지금은 더 나은 건축조합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마을총회라던가 이런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고, 1층 카페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죠. 헬스장은 월 2만원으로 회원이 평균 150~160명이 있고요. 3층은 독서실이 있고, 하나는 동아리방으로 다양한 마을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군요.

저는 마을회관 하면 시골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마을회관이라는 공간이 있으므로 마을 사람들의 이웃으로 연결되고, 공유부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많이 이루어져요. 학부모와 어린이 또는 노인일자리 하면서 공동체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커피를 드시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웃의 정을 쌓고 있죠. 현재는 혼밥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시흥3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공간의 활용도라던가 대관이라던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조금씩 보조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에요.

마을회관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곳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여기에 마을회관이 들어선다고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출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마을에 회관이 들어오니까 10만원 정도 그냥 낸다 생각하고 냈는데, 그걸 계기로 우연히 총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을활동을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낯선 일을 하는데 새롭고 즐겁더라고요. 제가 그때 직업전환은 하고 싶었고 중년에는 좀 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찰나였는데 마침 마을회관 사무가 그만두는 바람에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을지기는 회장님께서 시흥3동은 마을지기가 없다고 한번 해보라고 말씀

하셔서 하게 되었는데 하면서 지역에 많은 마을활동가가 있고 여러 마을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러한 활동들로 인한 본인의 변화 또는 주변의 변화는 있었나요?

저는 23년 정도를 아이들만 가르쳤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도 좋았지만 이 일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임을 하면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깨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 거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보게 되요. 제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외에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을활동은 사람과의 관계인 거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조금 어긋나거나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조금씩 배워가기도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얻어가는 기쁨도 굉장히 크잖아요.



시흥3동
서희경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조금 달라졌다는 것은
예전하고는 시선 처리하는 게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예전에는 내 볼일 보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성으로 봤던 것들
주변에 구석구석 건물을 짓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 하고의 갈등
이런 것이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내 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보면 조금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퍼다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정말 내가 저렇게 있으면 참 나도 힘 들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나도 부모한테 잘 못하는데
남한테 이게 뭐 이중성이야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예전에는 못 느끼던 것을 느끼게 되네요

하고 있는 마을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활동이랄 게 뭐 있나요. 통장하고 있고요. 저는 통장 하면서 그 통에 반장님이 지역별로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마을 주민이고 무슨 활동과 연계가 되고 했을 때는 어느 방면으로도 필요하신 분이고, 통장 일을 하면서 일일이 손이 못 가는 부분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통장은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긴다던가 주변에 무슨 상황이라던가, 자연재해로 피해가 있다던가,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혼자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많이는 안 오지만 그래도 간혹 반장님이 전화하셔서 신축건물이 생겼는데 하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든가 관심가지고 보시고 연락을 주신다는 것 그런 동네 관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민센터나 동에서 행사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 초대도 하고, 동에서의 대화 같은 것들도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다 보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선 처리하는 게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내 볼일 보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성으로 봤던 것들이나 주변에 구석구석 건물을 짓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이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내 통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됐죠.

나에게 마을이란?

제가 통장을 한 것도 현재 점점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지역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알고 싶고 그런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평생교육사 공부도 했고, 사회복지사도 가지고 있어요. 마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통장 지원도 하게 된 거죠. 저는 마을에서 배우는 게 많고 마을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시흥3동
장제모

마을공동체위원회 2013~2016

공동체하는 사람들이 우선 내가 가진 하나하나가
돋보이도록 한다면 그것이 절대 공동체적 형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줌의 흙들이 모여서
화분이 되고 꽃을 담은 그릇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후세를 위한다면
공동체는 잘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겁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꽃이 되려 하지 말고, 열매가 되려 하지 말고,
잎이 되고 거름이 되자'
물론 내 나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고...

현재 하고 계시는 마을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을회관이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죠. 그 일환에서 주민 공동체의 어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어준 겁니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기도 하죠. 여기서 주민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이랄까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필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이야기 하자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이러면 빨리 식상도 하고 그러니까 흥미를 줘야 하잖아요. 흥미를 주기 위해서는 문화 활동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활동 공간으로서 또 젊은 엄마들은 공유 부엌에서 마을 밥상도 하기도 하고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동기부여도 하고 그런 마당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참 많죠. 마을활동의 본질은 저는 '이웃을 찾고 이웃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취미 생활을 같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본질에는 사람이 서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오해가 없어져요. 오해가 없으면 갈등도 없어져요. 그럼 평화가 오거든요. 평화가 오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마련되요. 근데 우리 마을활동들은 너무 다양하게 열심히 하는데 가끔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기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요.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물론 그런 현상이 많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뭘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하자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도 틀리고 어떤 사소한 것도 틀린 데 그러면서 어울리는 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되면서 진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는데 나는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조금 더 섬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관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민은 수동적이게 되고 수동적이게 되다보니까 관에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자면 포맷을 해요. 이런 걸 해라 저

런 걸 해라 그러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도시재생 사업본부가 생기고 또 뭐 자생 같은 단체가 생기고 그런 어떤 취미 동아리를 묶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데 그런 형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 마을을 깨끗이 하자. 주민들 복지를 하자 그런 목표는 좋지만, 그 과정에 정말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본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흥미가 없다 보면 참여하지 않아요. 지금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보면 주민 자율이다 하며 걸 포장은 좋죠. 또 그게 맞고 근데 지속 되지않아요. 이유는 흥미가 없고 또 비록 흥미를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적인 반대급부가 부족해요. 이건 여러 가지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기주의가 본능이에요. 그것을 착한 이기주의로 끌여가는 이런 것이 공동체 활동이거든요.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엄마들이 모여서 뭘 하다 보면 큰 애들이 적어도 자기 주머니 돈은 안내고 이런 거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험담을 좀 했어요. 행정은 뭘 해서 뭘 하면 특근 야식들을 받는다는 등 주민들은 밤늦게 회의를 나오라고 해놓고는 밥값도 제대로 못 주고 이런 것은 물론 재정 운영 이란 건 참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생긴 지가 벌써 20년 쯤예요. 주민자치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한 것도 2011년부터니까 10년에 가까운 세월인데 지금까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민·관 협치, 민·민 협치 등 뭐 협업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는데 구호는 요란한데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을공동체 활동도 좀 했고 나이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요.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마을회관을 하면서 주민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휴먼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시가 명분을 어디에 걸었느냐 하면은 서울시 번두리에

지금 뉴타운이라는 정책으로 그냥 고층아파트 대단위 개발을 해서 주거 사정은 나아졌지만 반대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라든지 저 면적을 가진 입주자들은 개발이 돼서 환경은 좋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돼 쫓겨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그 일환에서 우리 동네가 해당이 되어 내용을 보니까 거리 환경 바꿔주고, 쉽게 말해서 지지분한 거 좀 고쳐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정말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자면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 의견들이 수렴되어 마을회관을 지어줬거든요.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도 사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 동네 악재가 터졌어요.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라는 아스팔트 길 고치고 하는 담당부서가 온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넘비현상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동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동네예요. 강남 순환고속도로 내면서 동네가 반으로 갈라졌죠. 고도제한 환경지역으로 묶여서 지금은 좀 올랐지만, 옛날에는 3층이상도 못 지었어요. 그리고 시계 경관 지구라고 용적률도 상대적으로 적고, 말하자면 비교적으로 접근해볼 때 바로 윗 동네인 시흥5동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동네에다가 공해시설이 온다니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상황에 따라서 국가 정책에 순응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해요.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마침 우리 집이 해당구역에 소속돼 날 더러 회장을 해라 해서 회장이 되었는데 관하고 발을 맞춰서 땅도 사고 주민 사랑방도 만들고 해서 희망차게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동네가 비록 작지만, 저층 주거지로서 아름답게 살자고 했는데 이렇게 공해시설이 들어오고 잘리고 이걸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맞다. 나는 이런 관의 이중적 행동에 나는 못 하겠다. 하면서 저도 반대를 했어요. 마을사업이고 공동사업이고 그래서 서울시장 구청장이 내려와서 사안을 들어보고 하니까 이유가 있다. 재검토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은 관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관에서는 밀어붙인다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랬고 송전탑도 그랬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박혀있으니까 절대 이걸 안 되니까 우린 결사반대를 하자해서 저는 서울시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분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속속 몰랐던 부분을 이해했어요. 시장이라고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신이 알았을 때 판단이 어떻게냐 했더니 '주민들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반대는 삼가주시고 기다려 주실 수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구청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어렵다. 이런 중에 서울시에서 차선의 방안이 나왔다고 해서 회의를 했더니 공해시설이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졌어요. 왜냐면 도시재생 지구저층 주거지 사업이고 또 자연경관이 아름답고한데 그 대신에 청사는 들어오겠다. 청사가 들어오면 우리는 반대할 리가 없죠. 동네에 도움이 되니까 이거야말로 전화위복이었죠. 그래서 내가 주민을 대표해 서명했죠. 근데 주민들이 야단이 난거예요. 장제모회장이 갑자기 서울시 편을 든다. 그래서 제가 쪽 설명했어요. 그 사람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객관적 자료를 다 보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이 편성되려면 심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것이 과정들이 다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 재정경제부서에 이미 승인된 문서가 다 있었고 이젠지 후보가 되어 있다 우리가 뭘 의심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일부는 수긍했는데 과격한 주민들은 완전히 서울시 농간에 말려 들었다고 여기 공사할 때 기공식도 못 했어요. 계란 던지고 밀가루 덮어서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회의감도 느꼈지만 바로 이럴 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어떤 모티브를 담을 필요가 있다 잘되면 그야말로 보람 아니냐 그래서 정면 돌파를 했죠. 반대하는 사람한테 가서 토론하자 당신들이 주장하는 들어온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증거를 대봐라 나는 안 들어 온다는 증거를 낼게 아 그걸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너희쪽에서 확인을 해봐라 연락처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는 돌아서는데 그래도 계속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부 상당수가 찬성했다고 그 사람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야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주민센터하고 이래저래 이야기해서 '동네 화합잔치를 열자' 그렇게 우리 동네 하나의 조그만 추억거리이자 어떤 공동체적 사례가 되었어요. '주민이 모여서 부침개 경연대회를 하자' 그래서 동네별로 해서 찬성반대 주민들이 어울려서 했죠.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를 내었고 특별히 말할 것은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은 마을활동, 공동체활동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예가 된 거죠. 그 갈등사례 이야기는 간단히 했지만, 당사자인 나로서는 정말 힘들었고 우리 집

사람은 이사하자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전화로 온갖 소리 다 하고, 심지어는 마을회관 이거 하면서 국고를 받았는데 그걸 장제모 회장이 1억원을 몰래 숨겨 놨다. 이런 루머를 막 퍼뜨리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결혼한 우리 자녀 셋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들이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4.19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예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한다고 고생했던것도 다 아는데 그렇게 매도를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견학을 오면은 제가 상황을 봐서 갈등사례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어떤 텍스트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를 준 것 같죠. 힘은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보람은 보람입니다.(웃음)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제 나이가 지금 일흔일곱이예요. 한때는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2011년부터 시작해 2014년 마을회관 지으면서 은퇴를 하려고 회장도 바꾸고 저는 고문으로 물러서 있었어요. 근데 마을공동체 주민 공동 시설 지어주면서 공간만 지어주지 나머지 운영지원은 없더라구요. 스스로 해결하라고 근데 운영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같이 지어준 총 20개 중에 6개 마을이 우리 박미마을회관 사이즈로 지어졌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만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잘 했다고보다는 주변에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호흡이 잘 맞아줬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4.19 했다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민주주의가 제 신념이예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참여하고 그랬는데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이웃관계의 회복'이다. 이웃 회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이 단절된 것은 지금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나고 작은 주차 공간 때문에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이 다 이웃이 해체되어 그렇죠. 그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공동체 활동을 해야하는데 끼리끼리 해서는 또 다른 갈등 무리를 만들어요. 지난번 내가 남부도로사업소 때문에 겪었던 소란보다 더 큰 소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소할 방법이 뭘까 물론 한 개인의 힘으로는 참 어렵지만, 주민들이 어떤 예상 하는 방안을 모으는 과정을 함께 만드는 것, 관에서 만드는 건 그동안에 주민 역량 강화다. 이런저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고 선진지 방문도 하고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냐는 거죠. 물론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어요. 신념을 갖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답안을 잘 써도 그것에 적어둔 행동을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누군가 감명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4.19를 맞고 굉장히 어수선했지만 제법 공부를 잘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법대 가서 판 검사 되라고 했는데 어머니들의 꿈이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문학이 좋았어요.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그래서 어머니 명을 거역하고 국문학과를 갔어요. 어머니가 실망은 했지만 반대하고 이리진 않았어요. 곧 대학 들어가자마자 6.3 사태 4.19 이후에 박정희 정권 그런 파동을 해서 퇴학을 당했고, 그리고 군에 갔죠. 어디까지 갔느냐 월남까지 갔어요. 1965년 베트남 파병, 그런 역경을 겪고 돌아와서 복학할 형편도 안 되고 퇴학을 당했으니까 새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형편도 안 되고 고졸 학력을 가지고 어렵게 사회에서 살았죠. 근데 60이 넘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불현듯이 보니까 사이버대학교 그때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학과를 가야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공부하고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죠. 대학과정하고 똑같더라고요. 정식 1학년부터 쪽 해서 학점이수 다 할 무렵에 4학년 1학기 때 8학점 인가 남겨놨을 무렵에 교수님께서 행정학도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전공을 했어요. 5년 만에 졸업했죠. 행정학 때문에 근데 행정학 공부를 할 때 리포트 과제가 주민자치 연구였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연구를 하려하니까 동사무소를 가야 하고 마침 우리 후배가 나하고 같이 서예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주민자치위원이예요. 선배님 주민자치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해 보게 이래서 주민자치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을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왜 내가 그렇게 빨리 심취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가 내 신념이고 주민자치가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다. 그렇게 해서 빠져들어 일하게 되었어요. 모기관에서 저한테 그 글을 책으로 내자고 요청해서 제가 그걸 집필 중이예요.

이러한 활동으로 회장님 자신이나 주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내가 많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원리는 불변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투쟁하고 싸워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겠다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더라' 같이 가려고 하니까 참 얼마나 편차가 많아요. 이 편차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맞춰가는 걸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싫으면 가라 좋은 사람끼리 하자. 효율을 봐서도 그렇고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도 훨씬 낫죠. 그렇게 했던 것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어요. 쉽게 말해서 빨갱이로 몰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소셜리즘이 지금 말하면 커뮤니티즘이 공산주의 하의 어떤 차이점 같은 거 있고, 사회주의 칼 막스 등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도 썼지만 그 공산주의 이념을 사회주의에서 찾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손학생으로 몰려서 혼이 난 적 있고 어쨌든 그런 사회성에 대해서 일찍 알게 됐죠. 그때는 금서였지만 구하기도 쉬웠어요. 그런 과정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조화를 시키는 변화를 하게 되었죠.

주변의 변화는 인간의 속물근성을 보는 게 제일 빨라요. 눈에 보여야 손에 만져져야 편하거든요. 예수도 그랬죠. 내 옆구리에 손 넣어 보고 제자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랬듯이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대세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눈에 보이는 일회성, 이벤트성, 마을공동체 활동도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모여서 하자. 발표문도 거창하게 만들어 내고 포스트잇 탁탁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이 연대해 은행나무어린이라도서관이나 꿈씨 등 여러공동체들이 자생하더라구요. 수많은 씨를 뿌려도 다 나지는 않지만은 그중에 나는 게 있더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에서도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 그런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섬세하게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처음하고 지금 차이가 많아요 변했다는 증거죠. 그 변화는 할수록 발전된 성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도 없는거지요.

긍정 부정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절대 선은 없어요. 절대 악도 없듯이 그러듯이 평범한 사람이 조그만한 일에 만족한다면 '한줌의 흙'이라는 그 책 읽어보세요. 한줌의 흙이 자기는 대단하다고 자부했는데 남들이 짓이기고 그랬는데 나중에 화분이 되었더라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 보니까 그 화분에 백합이 심어져 있더라 '아 내가 그 그릇이 되었구나' 그런 스토리예요. 그렇듯이 나는 공동체하는 사람들이 우선 내가 가진 하나하나가 돋보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절대 공동체형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줌의 흙들이 모여서 화분이 되고 꽃을 담은 그릇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후세를 위한다면 그 공동체는 잘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겁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꽃이 되려 하지 말고 열매가 되려 하지 말고 잎이 되고 거름이 되자. 물론 내 나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공동체는 그래서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 하니까요.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구요. 다만 그것이 어떤 비교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공동체에 대한 것이예요. 예를 들어 노인들 모임이 있어요. 이분들이 흔히 말하는 꼰대 세대들이예요. 우리 세대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저축이 미덕이고 아끼는 것이 미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두쇠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서서히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다 보니까 반복 학습이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있더라구요.

우선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자존감을 심어줘야 해요. '나는 필요한 인간이다. 이 나이도 할 게 있구나' 내 나이가 어때서 우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생각이 변하다 보니까 어떤 걸 같이 도모하기도 해요. 그럼 각자가 역할을 찾거든요. 그럼 역할을 달라고 해요. 변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시키는 거나 하지만 시키는 걸 하다가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는 역할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이런 것이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흥3동
정성경

금천마을지기 1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별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거나,
책상을 갖다 놓거나 의자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마을활동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2013년부터 마을활동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산본에 살다가 금천구에 왔는데, 학교에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제가 느끼기에 낯다고 할까요, 엄마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권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강남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 우리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살았던 산본도 여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의 학구열이 높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크게 다른 건 없거든요. 강남이나 여기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강남을 쫓아간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왜 그러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 활동도 하고 당시에 마을교사라든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인터뷰 하고 있는 어울샘처럼 그때는 마을예술창작소라고 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돌아가면서 젊은 엄마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금천구에도 되게 풍요롭고 많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관심을 가지다 보니 마을지기도 할 수 있었고, 또 일 년 지나고 나서는 마을사업전문가로 일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제가 살고있는 곳은 시흥3동인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했어요. 시흥3동에는 박미사랑마을회관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만들어질 때 제가 같이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 최초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 정말 제 마음대로 했던 거 같아요. 그때는 미숙한 점도 많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구청 직원도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고 시청 직원도 왔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 했었어요. 그냥 무작정 주민이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지금은 활동가로 하시니 알겠지만 많지는 않지만 보수도 주어지고 하지만 그때는 처음 세워지는 때여서 할 일이 많았는데 하루종일 무보수로 일했었어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잠깐 집에 불일 보러 나왔다가도 구청 직원이 전화오면 달려 나와서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가 가장 바쁘게

도 생활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마을사업전문가로 일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일했던 거 같아요. 4년정도 독산1동에서 일했고 제가 갔을 때는 롯데캐슬도 입주하기 전이었어요. 막연하게 독산1동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주민들과 사업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지 서로 이야기 하고 함께 실행했던 게 좋았던 거 같아요.

지금은 시흥5동에서 새뜰마을하고 도시재생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다른 시작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보통 마을사업을 쉽게 접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나와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사업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확장되어 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마을 사업할 때 이야기 했던 모델이고 그 인프라로 가고 있어서 아직은 도시재생은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활동할 때 이야기 많이 해요. 도시재생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프로그램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고요, 기존에 일하시던 담당 공무원들은 다 때려 부수고 뭔가 고치고 인허가를 내준다던지 이런 거에 익숙해져 계시잖아요. 시흥5동 같은 경우만 해도 뉴타운 개발을 하려 했다가 취소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재생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 쓰거나 아니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서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전 같은 경우 서울시 보면 은평 뉴타운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지만 아파트 미분양 사태라던지 빈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파트만 짓는다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했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삶을 재생해보자는 의미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나 다른 지방에서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도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나와 나의 주변에 특별한 변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2013년 정도부터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 그냥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마을사업시작을 통해서 봉사를 넘어서서 일자리를 찾은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왜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을까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까지는 엄마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이들과 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을 마을사업 하면서 접목시키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변화 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별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정말 아무것도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그럴까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그분들과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는 뭐 할까요?”하며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거나 책상을 갖다 놓거나 의자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사람을 바꾼다는 것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일은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더라고요. 도시재생은 자기 재산권이 걸려 있긴 해요. 집 소유하고 있거나 세입자지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세입자건 집주인이거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큰 맥락으로 보면 ‘우리 동네를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데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 또한 변화되는 모습 변화되는 마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마을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어떻게 보면 담당자나 과에서는 저희에게 빨리 추진을 요구하는 일정이죠 처음 왔을 때 돈을 얼마 써야 되구요. 언제 뭐를 해야 되구요. 막 이렇게 알려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거스를 생

각은 없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이 뭔가 역으로 요구되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새뜰마을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2년 전부터 했던 것인데 여기에 조바심내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시작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 무리는 없는 거 같아요.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도 내일은 저 그거 할 수 없어요. 하기도 하고 부동산 업자가 한 번 들쭈시고 왔다 가면 마음이 슬렁슬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하며 한 달 반 사이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마을을 다잡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도시재생은 전문적인 것도 알아야 주민들과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어드바이스 하는 역할이 되어야겠더라고요. 도시재생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 교육도 계속 받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마을사업 했을 때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을거예요.

마을에서는 도서관이든 사경센터든 도시재생이든 어떻게 보면 다 연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볼 때 그게 따로따로 되어서 갈 때 많이 안타깝죠이 사람은 여기에서만 활동하고, 저 사람은 저기에서 활동하고 하는 일도 그걸 딱딱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더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금천구가 민주적으로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한 자유만을 보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틀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관하고 협조도 잘 되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뭐랄까 금천구 하면 되게 작은 동네 작은 구이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이 힘이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흥4동
강영자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제가 40대 초반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보람을 많이 느끼죠.
'통통나래단'에서는
어르신 안부확인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안양천 청소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스스로 참여하면서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게 보람인거죠.

시흥4동 부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처음이라서 우선은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모여서 함께 의견교환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죠.

우리 부녀회원이 12명인데 모두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시흥4동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든 게 편안하죠.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른 동네에 다녀와서는 그 동네는 너무 좋더라 하고 부러워하는 어르신들을 뵈 때마다 느끼는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힘내실 수 있게 우리가해보자하고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 여름 보양식으로 어르신들 건강하게 더위 이겨내실 수 있게 닭죽을 준비한다거나 명절 즈음에는 계절에 맞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녀회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보여요. 부녀회가 한 1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른 동네에 다녀오시고는 많이 부러워하시고 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해 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건 팔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들 주로 생필품 이런 것 들을 선뜻 내주시는 분들이 대략 몇 십분 되시죠. 감사한 분들이예요. 그래서 더욱 힘을 내자고 다짐합니다.

마을에서 활동하시면서 본인 또는 주변은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마을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전에는 동네 구석구석에 쓰레기도 많이 보이고 지저분했었는데 요즘은 동네를 다녀보면 너무나 깨끗해서 좋아요. 다만 전업주부인 내가 집안일에 소홀해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집안일 해야 할 시간이 적어지는 거 같아요. 마을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즐겁게 지내니까 괜찮죠.

마을활동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제가 40대 초반부터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훌

쩍 넘었네요. 본의 아니게 나이가 공개되었네요(웃음) 보람은 많이 느끼죠. 통통나래단에서 어르신 안부확인도 하고 안양천 변 청소하러 봉사다니고 하다 보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스스로 참여하면서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게 보람인거죠.



시흥4동
권영미

금천마을지기 2기

변화는 활동하는 사람이 뭐랄까
나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마을에서 마을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변화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제가 먼저 사람의 좋은 쪽으로나
아니면 저는 그러거든요
봉사라던지 이런 게 저의 건강지킴이라고 하거든요.
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하면서 기쁨도 얻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과 부딪혔을 때 해결방안도 찾고

저는 그런 게 변화라고 봐요.
저를 키운다고 보는 거죠.

새재미 마을활력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새재미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공개추천 스티커 붙이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산기슭, 새재미 이런 게 있었을 때, 주민들이 새재미를 많이 원해서 새재미라고 지었구요.

저희가 짓고 나니까 다들 하는 말이 '새로운 재미난 곳'인가 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지은 것 같구나 해요. 새재미라는 거는 옛날에는 여기 골짜기가 많았잖아요. 조그마한 골짜기, 큰 골짜기 그걸 재라고 했잖아요. 문경세재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새재미가 '언덕에 있는 작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새재미란 이름이 부르기 좋다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새재미 마을활력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의 봉사자가 있는데 그 봉사자들과 한달에 한번 월례회의를 하고 주민센터에서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잖아요.

주민자치회에 분과가 있는데, 새재미 마을분과가 있어요. 그 마을분과의 분과원들이랑 활력소 인원들이 분과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봉사는 지킴이 활동이나 바자회나 공간 홍보 및 복지활동 지원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마을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처음 마을에 들어간 계기는 통장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통장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마을활동으로 들어왔는데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활력소라는 게 생겼어요. 공간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공개모집 할 때 이런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고 이 공간을 우리가 함께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 지원한거예요. 제가 시흥4동에 자원봉사캠프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자원봉사도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요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모두 같이 하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마을활동으로 인해서 본인 및 주변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는 활동하는 사람이 뭐랄까, 나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을에서 마을 일을 하다보니 어쨌든 간에 내가 먼저 우선 변화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제가 먼저 사람의 좋은 쪽으로나 아니면 저는 그러거든요 봉사라든지 이런 게 저의 건강 지킴이라고 하거든요. 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하면서 기쁨도 얻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과 부딪혔을 때 해결방안도 찾고 저는 그런 게 변화라고 봐요. 저를 키운다고 보는 거죠.

마을활동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제일 보람 있었던 건 아이를 낳았다는 거요. 결혼해서 아이들이 크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큰일을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식에 대한 생각이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하는 말이 옛날에 되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었잖아요. 저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니까 큰 변화 같아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 새재미마을활력소가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주인이 되어 여기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 주민들이 이 공간을 끝까지 이어가고, 이 공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동하는 인원이 많아졌으면 해요. 지금 제일 염원하는 것은 여기가 언덕길이거든요. 그 동네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고 싶은 시흥4동에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 외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마을기록지원단 활동도 많은 분이 모르고 있고 활력소라는 공간도 많은 분이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바자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모르거든요.

마을공동체라던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마을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지역화폐 같은 것들이 마을에서 통용되고, 마을을 마을이 부자 되게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주민들이 많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공간들이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공간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재미활력소는 워낙에 인원수가 많이 와요. 학생들이 최고로 많이 오고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이 와요. 어른들이 오실 때 마을활력소 공간이란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오신분들 통해 입소문 나가고 있구요.

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요 앞에 마을버스 종점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새벽부터 홍보하고,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참여는 못 해도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행사 한다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이 아빠 밥 챙겨 줘야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려고 있잖아요(웃음) 마을일하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자기 혼자서 다 해요. 왜냐면 엄마가 멀리 가서 아니고 어디 직장 나갔으면 되려 에이 엄마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가까이 엄마가 있으니 뭔가 일이 터지면 바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조심을 해요. 마을에 다니면 다 아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시흥4동
백기성

주민자치회장 2017~현재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회장이라도 위원들 없는 회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10개동 중 제가 제일 젊은 회장인데
때로는 위원님들이 고집불통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언제나 위원님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최대한 소통하고자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을활동을 4~5년 하면 딱 맞다고 생각해요.
1~2년은 알아가는 단계,
2년정도 되면 눈을 조금 뜨기 시작하고
3~4년 되면 거기서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열심히 3~4년 활동하시고 그래도 더 재밌다고 하면
더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흥4동에서 주민자치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마을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회 감사로 계시는 최상규 감사님 소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제 목표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했던 목표가 한울중학교 담장 2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올해 그것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시흥4동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흥4동에 직능단체가 있는데 직능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능단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신 많은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한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 것이고, 한울중학교가 들어오면서 ‘한울타리 골목사업’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상이라고 해서 수상했던 이력도 있고요. 주민들과 같이 했을 때,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마을일에 열심히 했었던 것이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시는 일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울중학교가 시흥4동에 오다보니까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는 테마로 많은 일들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한울중학교 ‘모란제’를 하게 되면 마을 축제도 같이 맞춰서 하고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갈 수 밖에 없고..... 2018년 1차 한울타리 골목사업을 했지만, 2019년에도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2차 한울타리 골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학생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도 여러 가지 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한울타리 사업인 것 같아요.

마을에서 활동하시면서 본인 또는 주변은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10개동 중에 보면, 시흥4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장 젊은 층에 속해요. 저희가

고민하는게 곧 서울시가 고민하는 부분 일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쪽의 일은 봉사로 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활동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그 부분에서 주민자치 원년, 작년 2018년에 했던 부분이랑 2019년에 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젊은 의원님들에게 봉사만 요구하다 보니 튕겨져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의 활동비라도 받고 하지만 주민자치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3,600만원의 주민세환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도 단 1원이라는 보수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점이 변화예요. 다른 곳보다 시흥4동 위원님들이 눈을 빨리 뜨고 빨리 깨우치고 있다는 거 그부분에서 다른 곳과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

새내기 마을활동가들이나 마을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마을활동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보다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활동을 4~5년 하면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1~2년은 알아가는 단계이고, 2년 정도 되면 눈을 조금 뜨기 시작하고, 3~4년 되면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새내기로 시작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3~4년 활동하시고, 그래도 더 재미있다고 하면 더 오래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동네를 여행한다고 한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사업에서 시흥4동이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탐방도 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에 ‘윙윙’이라는 마을해설사 분들이 계시고 해서 우리 마을을 탐방하러 오신다면 첫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곳은 마을활력소라는 곳이 2곳 있어요. 그 곳이 전국적으로 봐도 워낙 잘 된 곳으로 정평이 나있고, 한울타리 골목사업을 했던 곳들도 추천하고 싶어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순간적으로 욱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욱기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전 기본적인

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도 위원들이 없는 회장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위원장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위원님들이나 임원들 이야기에 귀기울였지 단 한 번도 저 혼자 독단적으로 뭘 하자고 한 적은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자치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자 하는 회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흥4동
엄셋별

금천마을지기 1기

내가 같이 사업을 할 사람, 파트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느슨한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금천구가 고향이신데 현재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장소(공간)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어울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딱히 어떤 공간에서 뭘 한다가 보다는 요새는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집이고, 본가가 있는데 본가를 걸어가는 작은 골목길이 있어요 그 길을 산책로처럼 되게 좋아해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라든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다른 분들이랑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내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바라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만나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 꼭 같이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내가 지지할 수 있다는 연대감이 생기니까 이 지역이나 내가 살고있는 공간에 굉장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나 할까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유휴인간’공동체가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요?

지금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구요. 그 친구들이 세 명이 다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사적인 관계들로 원래는 알고 지냈던 학창시절이나 교류 관계가 있었던 친구들이 아니고 어울샘을 통해서 ‘빈 벽 프로젝트’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거든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랑 계속 사적인 관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으신 일, 또는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어울샘이라는 공간에 더 많은 주민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또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내가 이 공간을 중심으로 뭔가 활동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 또 그걸 연계하고 네트워킹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재밌지 않으면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 어떻게 보면 쉬울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어울샘이나 마을일을 하시면서 꼭 하고 싶다고 생각되시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계가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오해인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나서 스스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관계도 마찬가지로 회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관계나 사업이나 프로젝트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사회적으로 주었으면 하거든요 이게 너무 바쁘게 뭔가가 돌아가다 보니 저도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소한 일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굉장히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서먹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사람이 싫거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을 보면 특히나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어려서 그런 관계를 잘 몰랐는데 요새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서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서로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울샘도 마찬가지고요. 어울샘도 지금 너무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되게 사소한 일로 시작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들이 계속 많아진다면 계속 서로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돌아도 보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어울샘에서 모임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어울샘에서 청년들이랑 함께하는 활동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어떤 사업을 하자는 프로젝트는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는 거는 한

계가 있다고 서로 깨달은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해 보이려고 일을 하지 말자 우리 ‘유휴인간’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노는 애들끼리 계속 놀자 이런 의미로 모여 있습니다. 소문을 내다보니 요런 것도 해 볼래, 저런 것도 해 볼래, 제안이 들어 왔는데 저희는 다 안 했어요. 해보려고 하다가 안 한 것도 있고 뭐 그냥 거절하고 우리끼리 쪽 우리 필요하다 우리 관계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하자였기 때문에 느슨해서 진행이 안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저를 연계해주고 어울샘 청년 동아리와의 연계되고 이렇게 계속 느슨한 관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느슨한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사업을 할 사람 파트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끈임없이 느슨한 관계를 유지 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업에는 좀 지쳤어요. 저는 지금은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시흥4동
이정석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어찌 보면 불이 안 켜진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마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평생 신탁인이기 때문에
신탁의 정체성에 맞게 신탁을 먼저 성장 발전을 시키고
내실화 시켜서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신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금천 신탁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사회하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마을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재미있는곳이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은 예전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민에서 만들었지만 제도권에 들어가서 꾸준히 성장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상당히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협동조합중앙회 같은곳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회적 경제하고 협동조합이 양대산맥을 이루기 위해 지역내 협동조합 관련된 단체에 같이 가입을 했죠. ‘햇빛발전 협동조합’도 그랬었고 사회적 경제 단체에도 가입을 했었고 그런 계기로 마을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하시고 있는 마을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마을인교육에 제가 이사장이고, 우여곡절이 있어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어찌됐든 제가 1년 동안 이사장 맡으면서 지금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마을인교육도 마찬가지로 너무 영세해요.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개개인들의 능력은 아주 열정적이고 이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안고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들이 적은 것 같아요. 마을활동가들이 ‘마을민주주의’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게 마을활동가들의 주목적이 있을 건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마을인교육에서 어찌됐든 이번에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다시 위탁운영하게 되었어요. 2020년부터 다시 2년 7개월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저희 법인한테는 그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 그것도 하나의 무형적인 재산이죠. 우리한테 큰 경험이 된 거죠. 우리 조직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큰 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했다.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무형의 재산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무형의 재산을 얻는데 유형의 재산은 전혀 얻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마을인교육이 금천구 시민사회 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서 자립하지 않으면 힘들고 외풍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사)마을인교육 구성원들이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마을인교육은 제가 짬 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주 업무는 협동조합 상임이사고 여기 상근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제가 내세울 만한 건 없는 거 같아요. 다만 사단법인 마을인교육 이사장으로서 어찌됐든 이번 재계약 하는데 있어서 저도 역할을 해서 (사)마을인교육이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마을활동가들을 접해보니 마을활동가들이 재정자립이나 이런 게 어려운데 사무실이 없어요. 선진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은 활력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도움도 주고 부족한 협동조합이 거기 와서 일정 부분 있다가 자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마을활동가들이나 협동조합들이 쉽게 말해서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는 걸 해결해 주고 그 활력소가 협동조합이든 마을활동가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활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요?

협동조합이 원래 민에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1960년대 부산에서 가브렐라 수녀님이 만든 게 시초예요. 그래서 그 후에 김대근 신부님이 또 만들고 해서 원래 협동조합은 성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성장한 조직인데 가끔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저희 힘들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게 조금의 힘이지만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협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무실도 없어서 내년이면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데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된 게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어찌 보면 불이 안 켜진 길을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죠. 성경 말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을 빌리지는 않고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해결되지 않겠느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 주세요.

저는 평생 신협인이기 때문에 신협인으로서 신협의 정체성에 맞게 신협을 먼저 성장 발전을 시키고 내실화 시켜서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신협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연말 송년회 때 제가 직원들한테 금천신협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단기 순이익의 10프로는 매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흥4동
이주희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제가 금천구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9살 때부터 살면서 옛날에는 교복 입고
아무 관심 없이 다니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커서 아줌마가 돼서
동네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생각,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서,
그 받은 사랑이 내리사랑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아들에게 사춘기가 오면서 내가 마을에서 아들 보이는 곳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제가 교복을 입었을 때부터 있던 동네 슈퍼아저씨가 지킴이 봉사자 구하는데 가봐 하셔서 가게 됐죠.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고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재 하고 있는 마을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새재미 마을활력소 운영위원이면서 시흥4동 주민자치회위원 활동하고 있고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카페 봉사, 총무로 있어요. 새재미마을활력소에서는 지킴이를 주로 하고 가끔 컴퓨터 작업일을 할 때도 있고, 지킴이는 대관 들어오면 안내해주거나 아이들 놀면 청소도 하고 영화상영 담당으로 영화하는 날에는 팝콘도 튀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하죠. 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전에는 제가 강사 일을 했었는데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는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사춘기다 보니까 아들에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데 아들도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내가 동네에 있으니까 주변인들이 우리 아들을 다 아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아들 다 아는체 해주고 그러다보니 안정감이 생겼어요.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마을일 하면서 제일 뿌듯한 건 행사나 무언가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해 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잘 모르던 소외계층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소소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일에 참여 하면서 마을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 졌어요.

마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원동력은?

아들로 인해서 시작했지만 저한테 마을활동이 잘 맞는 거 같아요. 제가 금천구에서 오래 살았어요. 9살 때부터 살면서 옛날에는 교복 입고 아무 관심 없이 다니던 곳들이 저도 이제 아줌마가 되어서 동네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생각이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서 그 받은 사랑이 내리사랑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마을이란?

마을이란 나의 안식처. 마을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쟁이 아닌 곳 정말 나 하나로 인해서 변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주변인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전달을 해서 다른 동네보다는 따뜻한 정이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시흥4동이 좋아요. 제가 신홍초에서 명예사서 8년 했고, 주변 초등학교에서 강사활동을 해서 웬만한 아이들을 다 알아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내리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을. 여기 시4랑 카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흥4동의 사랑, 시를 사랑하는 마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목적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을활동으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스스로가 뭔가를 베풀게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제가 마을일을 하는 걸 저희 가족들은 보잖아요. 가족들도 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엄마가 이런 걸 하는구나 안정감을 느끼고 옳다가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마을 안에서 활동하며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애들도 데려가서 활동해요. 애들도 같이 조금씩 함께하는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을사업에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활동적이지 못한 분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일. 마을사업으로 청 만들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웃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서로서로 알게 되는 거 그런 관계 확장도 중요한 거 같아요. 걱정을 같이 해 주는 거죠. 내가 가진 것도 풀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일이라 생각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또 관심을 안 갖지만 그냥 함께 하자는 노력인 거 같아요. 뭔가를 바라지 않고 꾸준히 내 길을 간다는... 어쨌든 제 관심분야는 청소년 그런 쪽이니까 마을이 동네쉼터 같은 느낌이에요.

본인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활동을 할 때 가끔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고맙다고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건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니까 좋아요. 제 아이들이 사춘기인데 제가 제일 뿌듯한 건 아이들이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시흥4동 3번지 쪽에 사는데 그곳에서 얼마 전에 마을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냐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외에 하시고 싶은 말은?

봉사는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야 봉사가 되더라고요. 마을 일 하면서 제가 이 동네 오래 살았으니까 나중에 시흥4동도 발전이 있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해요. 봉사로는 용돈별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을 나가기도 해요. 내 할 일 소소하게 하면서 주변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크고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관심 갖는 건 청소년들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밥을 밖에서 해결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일상적인 삶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서 아쉬워요.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봉사도 하지만, 청소년들도 함께 하면서 내리사랑으로 참여해야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거 참여 했었고 내가 이런 걸 먹었어. 이런 기억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주변에는 어르신들과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마을활동은 많아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는 별로 없어요. 제 소망이라면 마을 사업이나 소소하게 강사활동을 해서 그런 쪽으로 풀고 싶고,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시흥4동
정미라

마을지원활동가 2015~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엇인가 하나라도 걸끄럽게 걸리기만 해도 마을에 발을 들여 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예요 예를 들면 환경이 거슬리면 환경에 관심을 갖고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같이 하자 했을 때 귀찮고 싫지만 그래도 이것은 굳이 내가 해도 되겠다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덩석 발을 들여 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 졌을 때 혹은 모든 게 딱 맞아 떨어 졌을 때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기다리다가 보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실타레 같은게 생기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고 쉽게 발을 들여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시작은 큰아이 다니는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동육아지원 활성화사업’이란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업을 지원해서 하게 됐죠. 하다 보니깐 너무 힘든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누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매뉴얼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공동육아지원 활성화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컨설팅 하는 사업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마을지원활동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지원활동가로 지원하고 선정되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 실타래처럼 연결된 마을활동을 하게 됐죠.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금천구 마을지원활동가 라고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마을사업을 하고 싶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마을이해교육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으로 인한 나의 변화나 주위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5년에 마을활동가 교육을 받고 좋은 친구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마을에서 더 역동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 공동체활동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한다는 부담을 줬어요. 사실상 ‘자발이네 사랑방’ 엄마들이 변하게 된 거지요. 또 하나 개인적인 변화는 육아가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들이 모여 공동육아 지원사업이란 것을 하면서 육아가 수월 해졌고 엄마들 하고 친해져서 아이들을 맘 편히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 자부심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겼다고나 할까 그리고 마을에 관련된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마을에 나와서 활동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감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 같고 성취감을 주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는 계획이나 목표(꿈)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꿈은 육아공동체로서의 꿈인데...아이들 돌봄자는 놀이터 등에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면 아이들 안전이나 더럽혀지는 거 또 힘이 들어서 맘껏 놀게 할 수가 없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하니 그걸 좀 나눠서 하잖아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쉬고 있으면 다른 엄마가 와서 봐주고 그렇게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애들은 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공부도 못 할 수도 있고 1학년이 아직 한글도 잘 모르고 5학년인데 받침도 틀리고 이런 건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수업시간 태도만 좋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인성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직업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사는 마을에서 돌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자발이네 공동육아를 같이한 엄마들이 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공간에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점이 있어야지만 밖에서 놀아도 와서 씻고 간식도 먹고 비가 오면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서 옷도 말리고하는 거점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학원도 가고 바쁘지만 틈틈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돌봄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환경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원래부터 자연을 좋아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자발이네가 숲에서 놀잖아요. 그런데 미세 먼지가 너무 많아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환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재밌고 뭐라 그럴까 그냥 환경에 대해서 불만만 하는 거보다 배워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며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2017년도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통대도 다니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참가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굳건하게 살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느 날 폭발하듯이 진짜 위험에 닥치겠다는 위기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누가 강의

해달라고 하면 그냥 가서 해요. 그냥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주민의 입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 할 것이고, 환경에 있어서 최대 고민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 시민이 실천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못 찾았고 찾게 되면 책을 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을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엇인가 하나라도 꺾끄럽게 걸리기만 해도 마을에 발을 들여 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예요 예를 들면 환경이 거슬리면 환경에 관심을 갖고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같이 하자 했을 때 귀찮고 싫지만 그래도 이것은 굳이 내가 해도 되겠다 싶은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덩석 발을 들여 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 졌을 때 혹은 모든 게 딱 맞아 떨어 졌을 때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기다리다가 보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실타레 같은게 생기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고 쉽게 발을 들여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흥4동
조영일

금천마을지기학교 4기

마을일을 하면서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너무 욕심을 안 내지도 말고
나한테 맞게 적당하게 그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욕을 내면 내 몸이 상하고 너무 적게 하면은
또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건강해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마을일에 봉사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일들이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서
양이 많아지면 힘들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산악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매일 마을 일만 뱅글뱅글 돌면 재미가 없잖아요
야외에도 나가서 힐링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많은 분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챙기면서
마을일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을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퇴직하고 봉사활동 하면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센터에 갔더니 마을지기를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고 물으니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가보래요. 그렇게 마을지기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주민센터에 갔더니 또 주민자치회위원을 뽑는다고 해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제가 해볼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위원도 하고, 지금은 꽤 많은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복지회 협의회, 노인건강 클럽, 건강걷기, 수지침을 배우기를 하고 있어요.

수지침은 배워서 노인정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독거노인에게 밑반찬 만들어 나눠주기도 하고 있어요. 보람이 있고 좋아요.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힘들지는 않나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떤 때는 몸이 막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연속으로 일거리가 많았어요.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니깐 좀 버겁더라고요.

마을일을 하시면서 그로 인한 나의 변화나 주변에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노인들에게 반찬 만들어 가면 문 앞에 서 있어요. 기다리는 걸 보면 항상 흐뭇하고 좋아요.

또 수지침도 노인분들이 맞고 좋다고 하시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죠.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걸 가지고 봉사를 하니 즐겁고 봉사하면서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웃음)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아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요.

앞으로의 또 다른 계획이나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나요?

봉사활동이든 다른 마을활동이든 건강이 최고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알맞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려고 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요. 둘째로는 금천마을예술포럼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 사라져 가는 것들을 찾아 촬영했는데, 전시회를 했어요. 제가 회장을 맡고 있어요. 잘하고 싶어요.

마을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마을일을 할 때는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너무 욕심을 안 내지도 말고 자신한테 맞게 적당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욕을 내면 내 몸이 상하고 너무 적게 하면 또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람이 없고 그래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외로 나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도 하고요.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며 즐겁게 마을일하면 좋겠어요.



시흥5동
김성철

금천마을지기학교 1기

마을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호기심이죠
포스터보고 '축제 기획 관심 있는 분 모이세요'~
그거 보고 나갔어요.

마을활동으로 인한 나의 변화는요
가장 좋았던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은퇴한 마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취미로 마술을 시작했는데 직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홍보센터에서 40~50대 마을활동가로 마술에 관심 있는 분 대상으로 마술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지기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호기심이죠. '축제 기획 관심 있는 분 모이세요'라는 포스터를 보고 마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금천구에 살고 있는데, 마을지기 교육을 받으며 재미 있는 분들도 만나고, 마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느낌이어서 뭔가하고 들여다보다 마을일을 하게 된 거죠.(하하하)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닌다고 아내에게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걸 한 번 더 보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고 알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마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간이 있어야죠. 저는 마을활동의 중심점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깨동무라는 마을카페에서 공간활성화지원사업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문화활동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 카페 지하에 걸쳐프로젝트 닷 활동 공간을 내어 주었는데 올해 그 친구들이 무궁무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성장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니 보람있습니니다.





시흥5동
류경숙

마을공동체위원 2017~2019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반경 안에서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
그리고 관심 가져주는 거
골목이 지저분하면 나가서 비질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우선 적으로 생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눈이 오면 과연 자기 집 앞을 나와서 얼마나
눈을 쓸 것이며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고 누가 나와서
주울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거를 내 일터로 볼 거냐
삶터로 볼 거냐가 다르긴 한데
내가 살고 있는 곳 인데 내 삶터인 거잖아요
내 삶터의 반경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건데
거기에 그런 관심들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마을지기 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소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일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마을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삶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즐겁게 살면 좋을까 하다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체험학습이나 나들이 다니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고, 그렇게 즐기다 보니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는 일도 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교육복지센터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일은 아니구요. 제가 즐거워서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만나는 일을 워낙 좋아했어요. 원래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청소년을 만나는 쪽이 제게 잘 맞는 것 같고 훨씬 더 보람도 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밌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 똑같은 삶을 싫어해요.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저는 뭐든 맡겨 주면 잘할 자신은 있는데 청소년하고는 특히 더 재미가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아이들과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뭔가 제시해 주지만 재촉을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하고 눈 맞추고 친구처럼 대해 주는 정도죠. 그 아이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눈빛을 보면 기분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뜬금없이 한 번씩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예요.

혹시 지금 하시는 일 외에 관심 있는 일이 있나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동네서점 원테이블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인데 원테이블을 온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공간에서 마을분들을 연계해 드리고 정보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 얘기도 들어주고 자원이 필요하면 연계해 드

리고 싶어요. 카페든 어떤 공간들을 더 만들고 싶은데 저는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집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갈 수 있는 곳에 공간들을 만들어 하나씩 점차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호가 원테이블이고 조만간 하나 더 만들 생각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갈만한 공간이 없어요. 공공에서 만든 공간은 정작 청소년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원하는 시간대에 문을 여는 공간을 찾아내서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자 자기가 사는 환경 안에서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 그리고 관심 가져주는 거 골목이 지저분하면 나가서 비질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봐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의 환경을 좀 더 넓혀서 옆집 아이 동네 어르신들 여다보고 각자 사는 곳에서 그 환경이 넓어지면 그게 더 큰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마음들이 있어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즐거워서 누가 뭐라 말을 하든 말든 상관안

해요. 제가 좋아서 한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요. 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저도 원테이블을 좋아하지만 거길 운영하는 청년들도 공간을 좋아해요. 마을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고양이들한테도 좋은 곳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하하하)





시흥5동
박원희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마을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봉사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가끔씩은 힘이 들 때도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것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힘이 납니다.
칭찬까지 해주신다면 더없이 고마울 일이죠.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을일이라는 것이 쉽표는 있지만 마침표는 없는 일이기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복지 정책이 있고,
어떤 탐방과 체험활동 등이 있는지
마을 주민 모두가 알게 되면 좋겠어요.
시대에 맞는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함께 행복한 동네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마을활동을 하시나요?

가장 먼저는 봉사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는 선천적인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고요. 봉사하려는 마음과 긍정적 마인드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약간 우스개소리지만 주민자치회에서 버티고 있는 간사들에게 상장이라도 수여해서 격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현실적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따로 없고 가끔은 재택근무도 하는데 엄청난 원동력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간사를 하기 전에 학원운영을 했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만 살았어요. 내가 시흥5동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시흥5동을 잘 몰랐어요. 간사를 하면서부터 마을에서 그전에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었고 마을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을활동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끼를 찾아내게 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면 힘이 난다고 하실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시고 칭찬을 해줄 때는 나의 능력보다 조금 더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지치지 않고 더욱 씩씩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원을 운영할 때 학부모 설명회를 해도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주민 앞에서 주민총회 사회를 보고 '구민과의 대화' 사회를 본 경험이 기억에 남고요. 행사 후 칭찬을 해주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는 일에 대한 보람을 더욱 느꼈습니다. 다음 행사를 치를 때는 더욱 용기를 내게 되고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쉽표는 있지만 마침표가 없는 것이 마을일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이해 해 줄때면 힘이 나요. 가끔씩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

을 때는 스스로 마인드컨트롤과 수작 활동 등을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손을 놓고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게 되죠.(웃음)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나요?

마을계획단 활동을 하다가 주민자치회 간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주민들 모두가 주민자치회를 잘 알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복지 정책이 있고 어떤 탐방과 체험활동들이 있는지 모든 주민이 알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주민들이 시대에 맞는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마을에 관심 없는 주민들,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마을활동의 필요성,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인적자원 발굴에 노력하며 모두가 함께하여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이 많아지도록 하고 싶어요.



시흥5동
설우종

주민자치회회장 2017~현재

주민자치활동 분야가 너무 넓어 때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데
개인이나 자치회가 성장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활동은 지방분권 이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내부에서 일 처리를
척척 해낼 수 있으려면 경험이 없으면 힘들겠죠?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마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동 자치지원관은 앞에서 끌어 주고
동장님은 뒤에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주민자치회에 '많은 주민이 들어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흥5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게 계신데요. 활동을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2017년부터 발족된 주민협의체입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길을 안내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단에서 동자치지원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자치지원관은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지원관이 하던 일은 코디와 주민자치위원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활동 분야가 너무 넓어 때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데 개인이나 자치회가 성장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활동은 지방분권 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내부에서 일 처리를 척척 해낼 수 있으려면 경험이 없으면 힘들겠죠? 주민자치회에 '많은 주민이 들어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본인 또는 주변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 활동할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행동이 자유로웠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지만 상대방은 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동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조심스럽고 불편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웃음)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는 뭔가 눈에 띄는 시설물이라든지 생활환경들을 보게 되면 우리동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하게 되고 주변 마을에선 어떤지 보게 되고 스스로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접목을 해보면서 좋은 것도 있고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하는 것과 경험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늘어나는 것이 배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대충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거기서 중단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만약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시작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속성 즉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경험이 정말 중요하지요.

상인회를 6년째 마무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기만 하고 흉내만 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선이 넓어지고 생각이나 판단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많은 결정권이 주어지는 자리이다 보니 주민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굳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앞으로 마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시흥5동 주민의 기대와 노력으로 드디어 주민센터청사가 2021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편익시설 및 생활의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되며 또한 시흥5동의 자랑인 보호수인 세 그루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과 은행나무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활용도가 적은 공간을 정비하여 금년 4월에 완공. 주민의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시흥5동을 찾아오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마을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은행나무시장에 왔을 때는 물건만 파는 조그마한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상인회를 만들고 교육을 받고 지원을 신청해서 지금은 상인회 사무실과 주차장 시장에 지붕을 덮는 아케이드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마을에 불편한 것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흥5동 시미선

마을공동체위원 2013~2016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활동의 시작, 활동가로 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금천에 이사 와서 지역에 아는 이도 없었고 나 스스로 지역에 적응하는 길을 찾던 중, 동화 읽는 어른 모임 '함박웃음'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책을 읽어주고 싶은 생각 소박한 소망이 시작이었어요.

그런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내 아이뿐 아니라, 나에게도 마음의 품을 넓히게 하였고, 함께 읽은 책을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나와 내 아이를 위한 좋은 책과의 만남의 시작은 지역의 아이들과 나누면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이런 생각이 도서관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책 놀이도 함께 하고,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찾아가서 책읽어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지속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일부이고 좋으니까 계속 한 거죠.

현재하고 있는 마을활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들을 지역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 시작하여 지금 16년차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14년에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을 했고, 지금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활동가이며 금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책을 읽어주고 싶은 생각, 소박한 소망이 동화 읽는 어른 모임 '함박웃음' 동아리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내 아이뿐 아니라, 나에게도 마음의 품을 성장하게 한 것 같아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좋은 책들을 지역의 아이들과 나누며 알리고 싶다는 생각은 도서관 활동을 하게 했고, 특별히 마을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하진 않았어요. 그냥 도서관 활동이 내 삶의 일부이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활동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입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의 말뚱말뚱한 눈빛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을 들락거리면서, 책을 읽으면서 커가는 모습은 도서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시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아이들과 마음이 찌릿 할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야겠네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이야기도 나누지만 가끔은 동요를 가르쳐주고 함께 부르기도 하죠. 하루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감동이었죠. 동요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전달된 거죠. 책을 읽어줄 때면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밋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엄마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흥분하면서 '엄마가 미워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 되었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소리치며 치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나무 선생님(아이들이 부르는 이름)을 편하게 만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보람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나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6년 전에 동화 읽는 어른모임 '함박웃음'모집 포스터가 왜 눈에 띄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는 여전히 해마다 신입회원을 모집하여 1년간 함께 그림책, 동화, 옛이야기 책을 함께 봅니다. 1년간 함께 책을 읽고 활동하다 보면 그분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저도 시작이 그랬습니다.) 신입회원 분들이 1년의 과정이 지나 도서관에 남지 않아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펼치고 들 있더라고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마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요즘 협치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변화가 마을 곳곳에 좀 더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도서관 입구 골목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도서관 진입로 골목이 깨끗하면 좋겠는데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고 쌓이고 있거든요. 깨끗한 골목길을 만드는 데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에게 이로우면 하고 이롭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많아요.

지금도 숙제입니다. 골목에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소통하고 나누면서 함께 골목을 바꾸고 싶어요.





시흥5동
양영신

금천마을지기 4기

마을은 오지랖을 넓혀서
배려하는 사랑으로 돌보고
그 다음 내가 감으로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있는 곳에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마음이 내가 그 봉사자를 떠나더라도
변치 않는 선후배로서
튼튼한 그루터기가 상록수가 되고싶어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부터 통장을 8년동안 했었어요. 통장을 하는 기간에 성격이 완고하신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만 마음 놓고 가시겠다고해서 결국 그 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제가 찾아가고 방문하고 했어요. 처음 보라매 병원에 매일 갔었는데 치료가 잘 안되는 것 같아 이곳저곳 병원을 수소문해서 관악구에 있는 병원으로 모셨고 그곳에서 잘 계시다가 재작년에 천국에 가셨어요.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짐 정리 방 빼는 것까지 다 했어요.

지금은 통장은 그만두고 서울시 시민건강 간사로 활동하고 청소년 상담 등의 활동과 마을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연 이외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통장 할 때 도로명이 바뀌었는데 제 구역의 350가구에 호수의 도로명 명판을 달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했었고, 적십자 회비 걷는 일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감성을 터치하면서 걷어 그때 1등 했어요.(웃음)

저는 이사를 가면 호구 조사를 다 해요. 이웃들과 부침개도 나누고 커피도 함께 마시자고 하고 채소 가꾸는 것도 알려 주고, 이웃사촌이란 소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웃들이 다 한 가족 같아요.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청소년 상담과 웃음치료 등 기쁨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독산 3동 문성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웃음치료도 하고 제가 헬스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해요. 웃음은 200만원어치 엔돌핀을 날마다 먹는 거고 웃으면 몇 만개의 암세포가 없어진다고 온몸으로 웃다보면 100m달리기 효과가 난대요. 정말이에요. 웃음은 부작용이 없어요. 웃다보면 행복해지고 웃음의 지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 전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닉네임이 15개인데 변함없다고 상록수, 어디 가면 힘난다고 에너지이저, 분위기 좋게 한다고 분위기메이커, 사랑이 많다고 사랑짱, 오지랖이라고 오지라퍼 등 좋은 닉네임이 많으니깐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것을 전달해야지라고 생각해요. 복 받은 거지요.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과 주변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자격증이 서른세 개예요(웃음) 웃음치료사, 사회복지사, 인성강사, 진로코칭, 청소년 지도자, 독서 지도사 등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 웃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웃으면 폰수 없다고 그래서 7년을 안 했는데...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 다들 즐겁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듣다보니 담대 해졌어요. 제가 10살까지 수줍어 대답도 못하고 책을 읽으라고 하면 사시나무 떨 듯 떠는 아이였어요. 이제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저라고 다 웃을 일만 있겠어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은 지금부터 라고 생각하며 밝게 살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고 건강을 선사하는 사람이 된 거 같아요.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생애주기멘토링’이라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성강의를 하며 아이들에게 만나면 인사부터 하는 걸 전파하고, 제가 봉사를 성심성의껏 하니깐 다들 좋아하시고 인정해 주고 기뻐하니깐 이런 것들이 보람이고 행복이에요.

더 하시고 싶은 말 또는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제가 닉네임이 1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분위기 메이커, 에너지이저. 사랑짱, 상록수 이게 참 좋은 거 같아요.

마을일은 오지랖을 넓혀서 배려하는 사랑으로 돌보고 내가 어디를 가든 가는 곳 분위기가 좋아지고 내가 있는 곳에 힘과 소망이 넘치고 같이 활동하던 봉사자가 떠나더라도 변치 않는 선후배로서 든든한 그루터기 상록수가 되는 닉네임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들로 활동하려고 해요.



시흥5동
이성호

마을활동가(인터뷰 추천)

우리동네를 좀더 살기좋은 좀 낡아진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고민들을
이건 정치인이 하는건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거
집값 올리자 이런 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불꽃같이 일 이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 사람이 많이 안 나오니깐 일이 중복되실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면 이것도 힘께 하자 저것도 하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
사람이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것도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대여섯군데에서 활동하는 분들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바쁘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중심 고민을 가져가면서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활동이 개인에게도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마을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시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한국사회가 변하려면 지역과 마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행정과 의원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금천구에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은데, 그 활동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활동에 대한 홍보나 기록도 잘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언론을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어떤 언론을 해야 하나 그것도 과제였어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영상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있잖아요. 저는 신문과 미디어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지역신문을 하기로 결정한거죠.

마을신문 외에도 여러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디어 일이죠. 지역신문은 사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신문 보다는 인터넷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더 많은 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라디오도 하고, 영상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 활동은 주로 주민분들을 섭외해서 하잖아요. 제가 미디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미디어 주체는 주민분들이 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미디어의 소비자면서 생산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생산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요. 그런 마을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죠.

급변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나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근데 그 기본은 같아요. 이웃이나 마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시의 눈이 있어야 해요.

사실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꿔 나가자는 거잖아요. 교통이 안 좋고 안전이 위협받으니깐 교통 캠페인 운동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뭉이고 행정과 의회가 나서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행정이 집행하잖아요.

진정하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들인 거죠. 이제 스마트폰 시대예요. 정보

도 많아지고 접근도 쉬워졌어요. 1인 미디어 시대가 됐어요. 주민들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스마트 1인 미디어나 환경이 있다고는 해도 영상제작을 하려면 장비들이 필요해요.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과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요즘 미디어 시대이다 보니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이 장비를 풀셋트로 갖추려면 최소 백오십만원 이상 들어요. 어떤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나 영상제작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북이나 노원은 마을미디어센터가 있어요. 그런 거점 공간이 생기면 미디어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좀 더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겠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사업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깐 아이들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겠죠.

무한상상스페이스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의 안 쓰죠. 갖추다 만 시스템이다 보니 안 쓰는거고 G캠스가 있는데 그곳은 산업에 관련된 촬영을 위한 곳이에요. 제품홍보 영상이나 제품 디자인을 위한 것들을 갖춰 놓은 곳이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미디어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동네에 시간도 있고 경험도 많은 실버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기록관에 관한 바람인데요. 행정에서 할 부분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민간기록도 안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웹 공간이나 기록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을공동체기록관이 있지만 좀 더 확대하고 어떻게 역할을 할지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언론매체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있을 텐데 자신만의 치유 방법이 있나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하하) 누가 쓴소리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상처를 받는 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다툼일 수도 있고 외부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게 일이기도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가는 거죠.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개인의 의지인거죠.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거나 스스로 극복하거나 개인의 뭉인 거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마을에서 개인으로 자원봉사하는 일 훌륭해요. 그런데 그 활동들이 개인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동네를 좀 더 살기 좋고 나아진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할 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꽃같이 일하던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느 순간에 보면 대여섯 군데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요. 근데 그러면 바쁘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중심 고민을 가져가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활동이 개인에게도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시흥5동
임정숙

금천마을지기 3기

아마도 이런데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발성이 많을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는 하고 싶은 맘이 없는데
누가 하도 졸라서 혹은 누구의 권유로 라는 말을 싫어해요
자발적으로 해야 재미도 있고 즐겁죠
집에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우려 지고 버무려 지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맘을 열어놓고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전에 살던 곳은 가산동 쪽인데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깐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센터를 자주 드나들게 되고 추천도 받고 가산동에서 마을지기 3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도 한번 발 디디니까 자꾸자꾸 발걸음이 늘어나 요새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지금은 시흥5동 주민자치회 위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견할 구석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들여 다봐야되고 저기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전에 자치위원하고 지금 자치회위원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전에는 회의만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마을일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시흥5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하나요?

시민참여예산사업 참여도 하고 동 특성화 사업도 있고 하여튼 참여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문화분과인데 시흥5동 프리마켓이라든지 게임 리그라든지 분과원 중에 젊은이가 있어요. 어울샘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은행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무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어

울려 보자 해서 게임 리그를 벌인 거예요.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니 분과 회의도 자주 해야되고 많이 바쁘네요.(웃음)

마을일을 하시면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산동 아파트 살 때도 마을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시흥5동은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사를 왔어요. 단독주택은 사람 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롯이 혼자이겠다 싶어서 스스로 찾았는데 마



침 주민자치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치회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6시간 필수 교육을 받고 지원자가 많으면 추천을 해요. 근데 이사 온 지 두 달 채 안 됐는데 추천에 당첨이 됐어요. 그니깐 오래 살고 오래 활동했던 분들이 이사 온 지 한달 밖에 안된 사람이 들어가네하며 시기 어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추천인데 어찌라고요(웃음) 그러다 보니깐 변화라는 거보다는 마을 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도 들여다 봐야되고 저기도 들여다 봐야되네 그러니까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매일 집에서 티비 보고 뒹굴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활동하길 잘했다 생각해요. 어차피 활동할 건데 회의만 참석하고 머릿수만 채우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죠.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일이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현재를 충실히 하면 되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계획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살던 가산동 누리복지관에 나가서 일주일에 다섯 번을 가서 프로그램을 듣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바빠요. 내가 어디 가서 경품 추천한다고 하면 되는 적이 없어 그런데 시흥5동 자치위원은 잘되었네요.(웃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마도 이런데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발성이 많을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누가 권유해서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나는 하고 싶은 맘이 없는데 누가 하도 졸라서 한다 라는 얘길 싫어해요. 자발적으로 해야 재미도 있고 사람을 겪으면 다 마음엔 안 들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울려지고 버무려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주민자치활동 자체가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있어 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맘을 열어놓고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흥5동
장인국

금천마을지기 4기

저는 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가 사는 동네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노후에 놀이터 같은 동네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마을활동가들이 재미와 보람으로 마을일을 해야지 갈등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을계획단으로 활동할 때 시흥행궁을 복원하자는 지역의제가 나왔어요. 시흥5동에 행궁, 관아 그리고 삼교가 한동네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를 복원해서 차세대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을 해보자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했어요

우리 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컸지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마을은 무료한 일상에서 마을로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마을일을 구상하고 좀 어렵더라도 일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10년 전 쯤에 청담 복지관에서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탐동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곳을 졸업한 아버지들이 구성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었고 청담 복지관과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있다가 2015년도에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때 마을계획단 준비위원회부터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고 2015년 12월 시흥5동 마을기록단이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2018 3년동안 시흥5동 마을계획단 사업 전체 대표자 겸 회계책임을 맡아서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였던 일이나 앞으로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마을 사업에서 주로 했던 게 ‘화목단’ 이라고 해서 ‘잠자는 서랍속의 꽃씨를 깨워서 우리 동네를 꽃마을로 만들자’라는 사업을 했었고 ‘견고 싶은 꽃길’ 사업도 했어요. 그 다음에 주력했던 것은 ‘시흥행궁을 복원하자’해서 시흥5동에 행궁 관아 그리고 삼교가 한동네 이렇게 모여 있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 유산을 복원해서 차세대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을 해보자 해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컨설팅 받고 전자투표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금천구에 이름난 축제들 찾아다니면서 같이 끼여서 하고 우리 동네에서 따로 하기도 하면서 전시·홍보·체험·시흥행궁을 알리고 복원활동을 10차례 정도 했습니다. 동 단위로는 유일하게 시흥5동만 참여를 하거든요. 우리 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사업을 따내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마을신문은 지금 저희 아들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 발행을 하고 아이가 편집장을 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자가 만드는 신문이라고 해서 지금 44호까지 나왔고 45호를 한달에 한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한상상에 목공동아리 회장으로 있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체형성하는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신나는 목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으로 인한 나의 변화나 주변의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무료한 일상에서 마을로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제 일을 하면서 마을일을 하고 있는데, 마을일을 전업으로 할 수는 없죠. 보통 자기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자기일이 라는 게 하다 보면 좀 무료하죠.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고 무료한 일상을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마을일을 구상하고 좀 어렵더라도 일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 동네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노후에 놀이터 같은 동네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마을활동가들이 재미와 보람으로 마을일을 해야지 갈등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을일이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활동가를 육성하는 마을지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지원조직에 들어가 거기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차치지원관이라든지 일자리까지 연결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마을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지만 회계처리라든지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있어요. 이해는 가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50+마을기록지원단과 함께한
금천사람들 인터뷰기록집 Vol.1

참여 변화를 읽는다

금천사람들 Vol.1



